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보통사람을 위한 솔직한 보고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조사대상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E-mail Survey

표본규모

10,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0.98\%$ p)

모집단

24,894천명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20~64세 취업자
(통계청, 2023년 2/4 취업자 통계)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 :
성,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 고려

조사 기간

2023년 10~11월

마케팅 조사 ·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 '(주)컨슈머인사이트'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간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여덟 번째 발간을 맞았습니다.

2017년 첫 발행 이후
‘새내기 직장인과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관심사’,
‘코로나가 변화시킨 세상의 모습’, ‘금융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금융생활과 그 해의 핵심 이슈 등을 다루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런치플레이션’, ‘부업의 변화’,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등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금융 트렌드를
깊이 있게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MZ와 X세대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회사와 집,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란 비전 아래,

고객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은행장 정상혁

이용시 유의 사항

❶ 본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의 표본은 조사 연도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습니다.

표본 특성

성별		연령	
남성	5,623명	20~29세	1,517명
여성	4,377명	30~39세	2,149명
		40~49세	2,534명
		50~64세	3,800명

지역		직업	
서울	1,889명	자영업/기업운영	1,088명
경기/인천	3,372명	사무직/공무원/교육직	5,831명
대전/충청/세종	1,102명	전문직	867명
광주/전라	901명	판매서비스/기능/생산직	1,081명
대구/경북	917명	프리랜서	489명
부산/울산/경남	1,403명	학생/기타	644명
강원	278명		
제주	138명		

월평균 가구 총소득 범위

구분	사례수	소득 범위
가구소득 구간	1구간	2,000명 ~280만원
	2구간	2,000명 280만원 ~ 400만원
	3구간	2,000명 400만원 ~ 550만원
	4구간	2,000명 550만원 ~ 750만원
	5구간	2,000명 750만원 ~

*본 보고서의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❷ 본 보고서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무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도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이 보고서별로 상이하므로 비교 등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❸ 본 통계 정보는 잠정치로 다음 연도 조사 시 보완 될 수 있습니다.

❹ 본 조사는 마케팅 조사 ·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인 '(주)컨슈머인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❺ 본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❻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한은행 Mydata Unit,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

1. 소득	12
2. 지출 [소비 부채상환 저축/투자]	14
3.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22
4. 부채	30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36

2

2023년 보통사람 핵심이슈

1. 런치플레이션	40
2. 부업의 변화	44
3. 부동산	48
4.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52
5. ESG	58

3

2023년 보통사람 기획 분석

1. 직장인 복지	66
2. 소셜라이징	72
3. 경조사	74

4

Life Stage별 금융생활

Group 01 20대 미혼	82
Group 02 3040대 미혼	84
Group 03 2040대 기혼 무자녀	86
Group 04 203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88
Group 05 4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90
Group 06 40대 기혼 중고등생 자녀	92
Group 07 50대 기혼 중고등/대학생 자녀	94
Group 08 50대 기혼 학업완료 성인 자녀	96
Group 09 60대(60~64세)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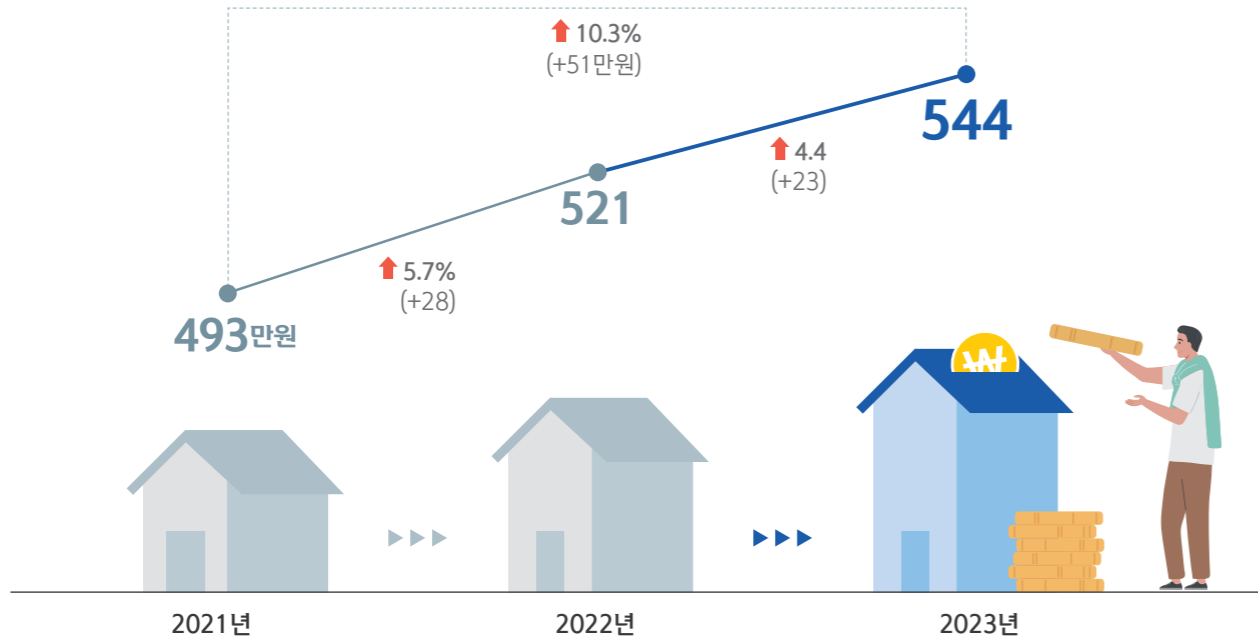
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

1. 소득	12
2. 지출 [소비 부채상환 저축/투자]	14
3.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22
4. 부채	30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36

1 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

2년 새 가구소득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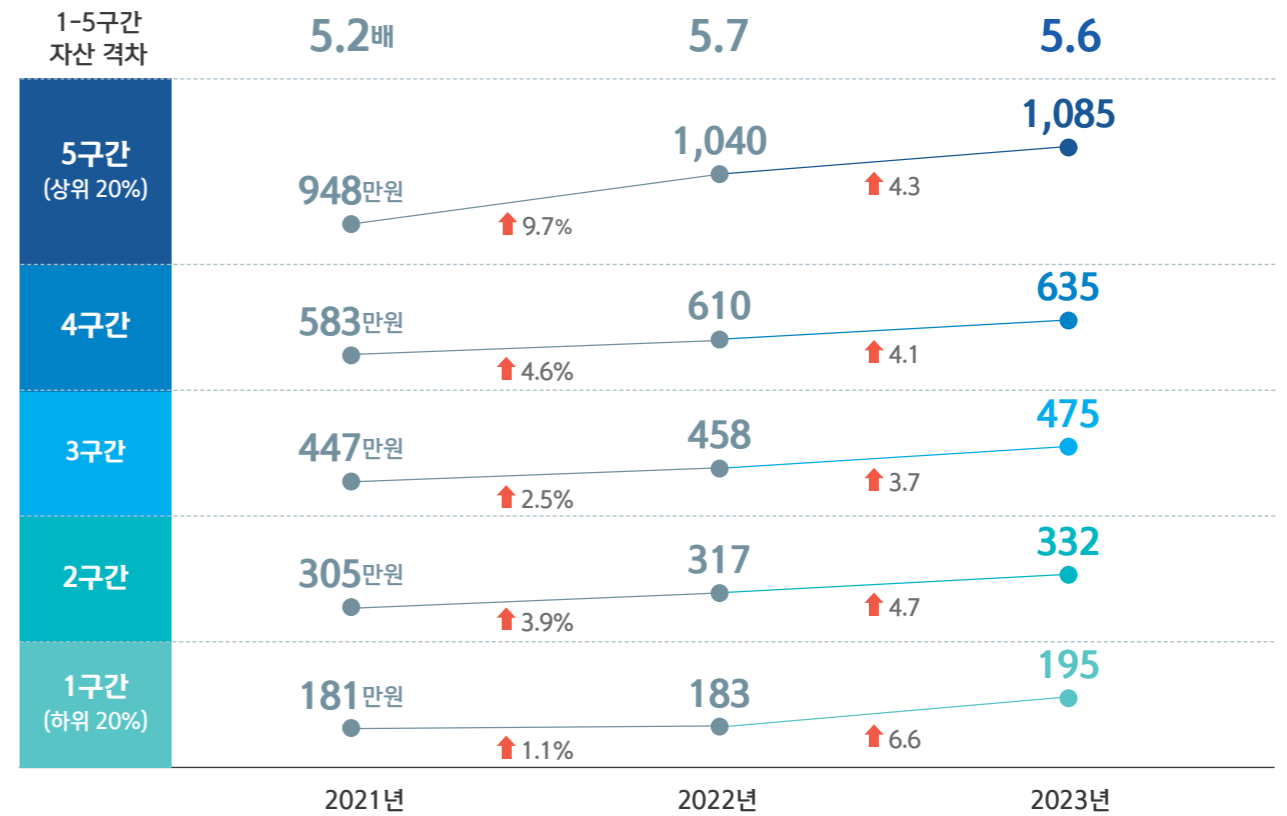
2023년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늘었다.
 2022년에 2021년보다 5.7%인 28만원 증가하며 2016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0만원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3만원 더 증가하며 소득이 500만원 중반대로 높아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10.3%인 51만원 증가했다.

*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 가장 높으며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도 다소 감소



모든 가구소득 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1년부터 매년 늘어난 가운데, 증가 양상은 2022년과 2023년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구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저소득층인 1~2구간의 증가율이 높았다.
 1구간, 2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보다 각각 6.6%, 4.7% 늘어난 반면 4구간, 5구간은 각각 4.1%,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득층인 3구간의 소득 증가율은 3.7%로 1~5구간 중 가장 적었지만 2022년 증가율에 비해 1.2%p 늘어났다.
 1구간의 소득 증가율이 5구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커지면서 1-5구간의 소득 격차는 소폭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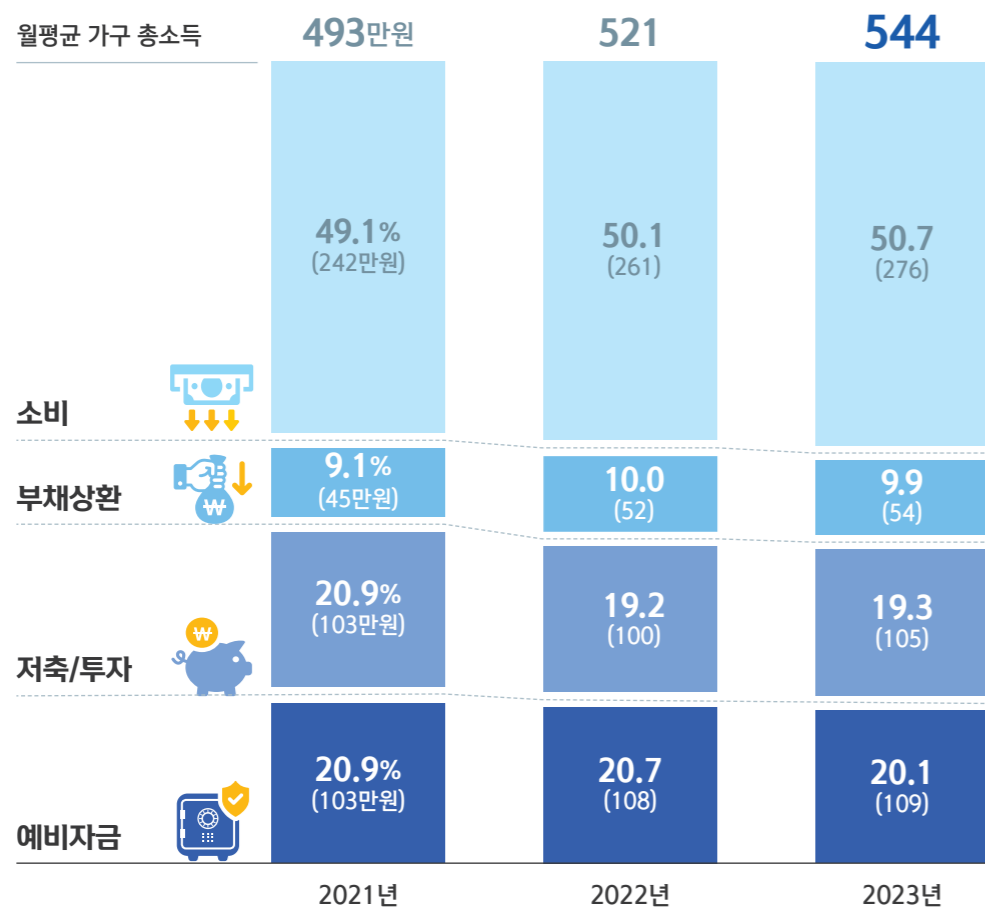
* 가구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
 (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짐)

② 지출

월 지출 행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내 지출 비중)

깡충 뿜 소득에 소비와 저축/투자 모두 늘려



2023년에 모든 항목의 지출액이 늘었지만, 소득 증가로 지출 비중은 2022년과 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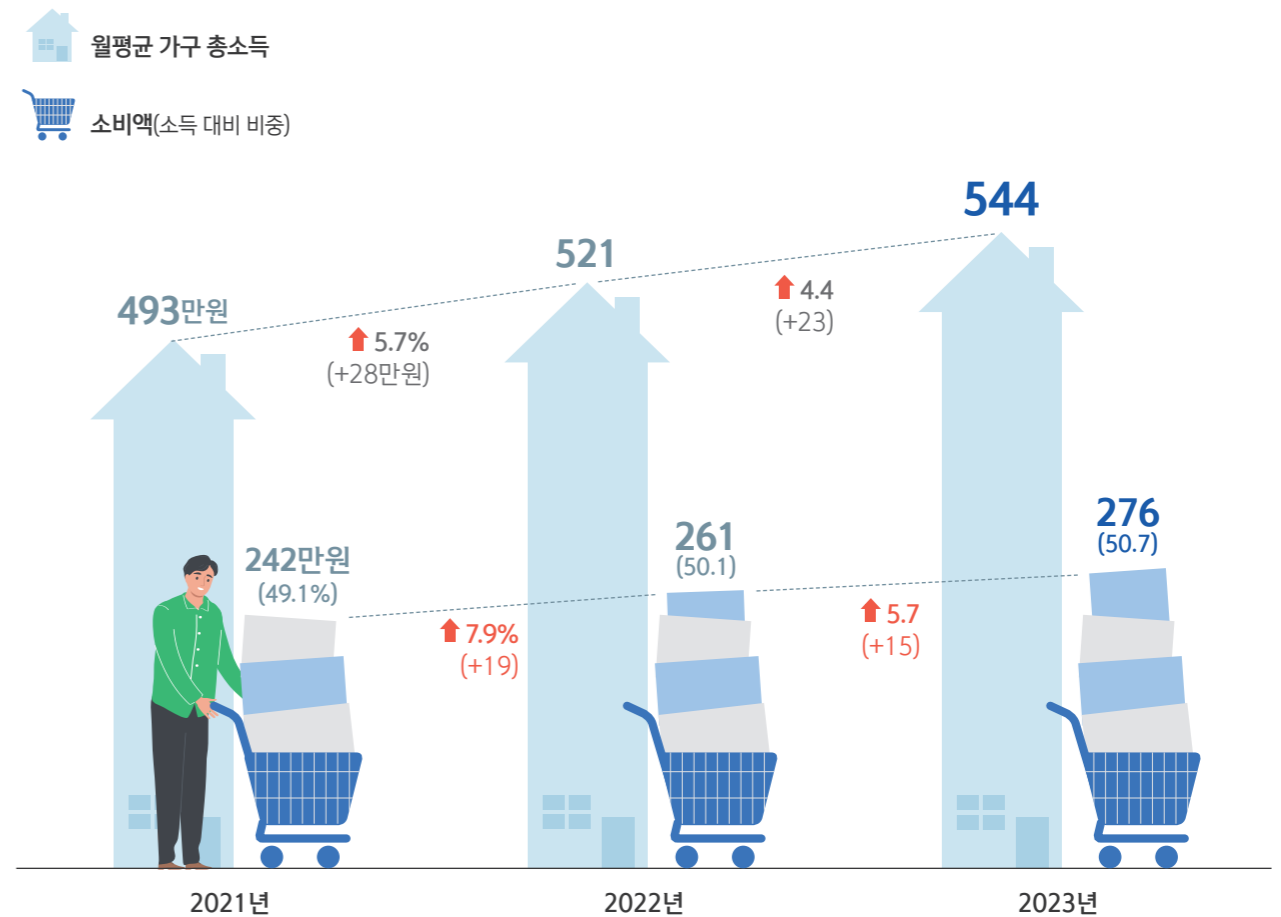
물가 상승으로 소비액이 2022년보다 15만원 증가했고,
2022년에 처음으로 소득의 10%를 차지했던 부채상환은 더 2만원 늘었다.

2022년에 3만원 줄었던 저축/투자액은 5만원 늘며 소득 내 비중을 유지했으며,
2022년에 5만원 늘었던 예비자금은 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소득의 20%대였다.

소비

월평균 소비액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커



2023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22년보다 4.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5.7% 증가하며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컸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는 계속됐고, 소득 대비 소비액 비중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

소비 항목별 월평균 소비액 비중

식비, 교통비, 월세만으로도 전체 소비의 50% 돌파

월 소비액	242만원	↑ 19만원	261	↑ 15	276
식비	22.3% (54만원)	↑ 4만원	22.2 (58)	↑ 6	23.2 (64)
교통/통신비	14.9% (36만원)	↑ 3만원	14.9 (39)	↑ 1	14.5 (40)
월세/관리비/공과금	11.2% (27만원)	↑ 4만원	11.9 (31)	↑ 4	12.7 (35)
교육비	12.4% (30만원)	↓ 3만원	10.3 (27)	↑ 1	10.1 (28)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	5.8%(14만원)	-	5.4(14)	-	5.1(14)
의류/패션잡화/미용비	5.0%(12만원)	-	4.6(12)	↑ 1	4.7(13)
여가/취미/유용비	7.0%(17만원)	↑ 2만원	7.3(19)	-	6.9(19)
모임 회비	2.9%(7만원)	↑ 2만원	3.4(9)	↑ 1	3.6(10)
용돈 지급	5.4%(13만원)	↑ 1만원	5.4(14)	↑ 3	6.2(17)
기타 소비	13.1% (32만원)	↑ 6만원	14.6 (38)	↓ 2	13.0 (36)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에 기타 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 항목의 지출이 202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했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식비, 월세 지출이 크게 늘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 2022년보다 6만원 늘며 60만원을 넘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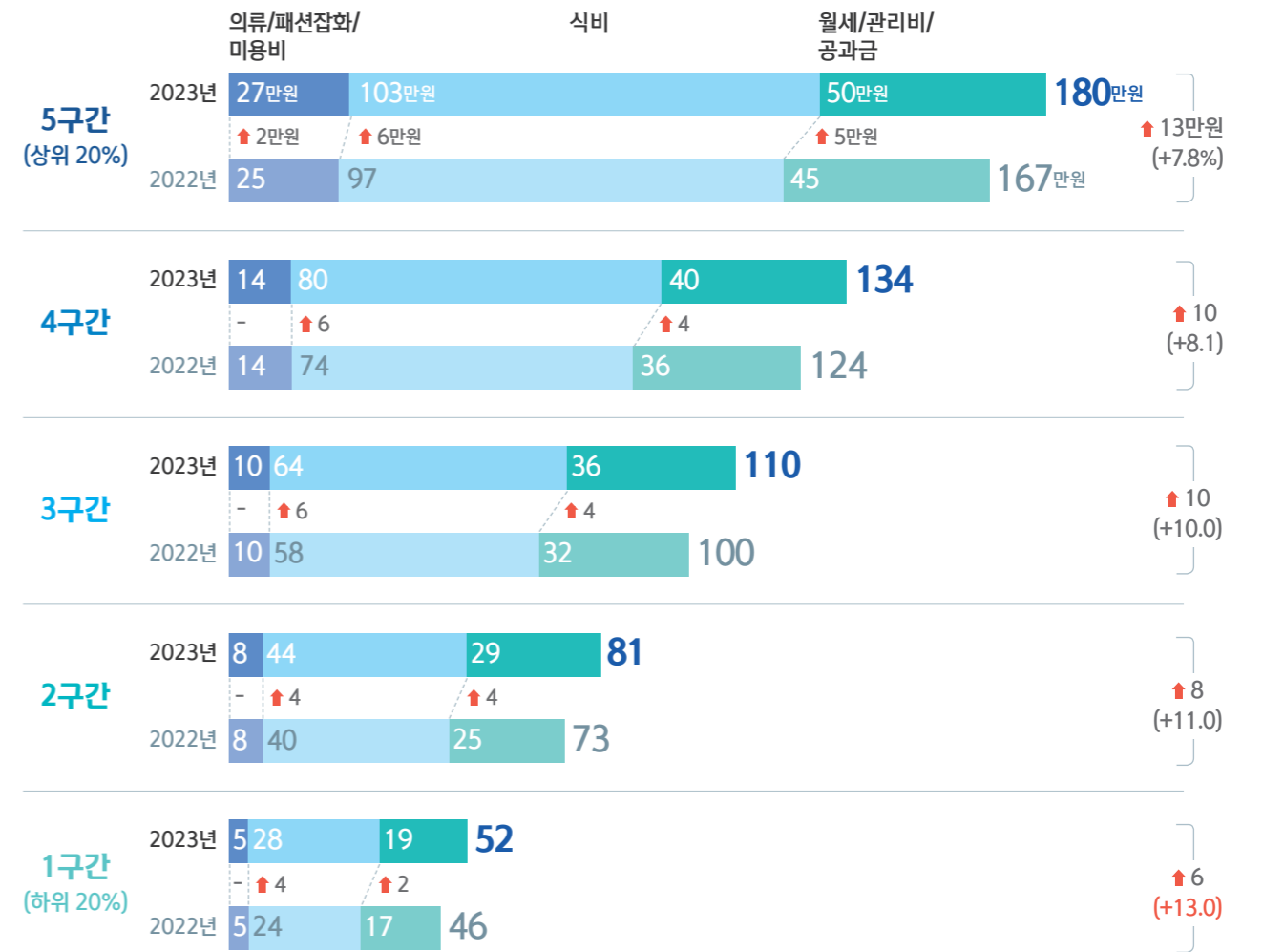
월세/관리비/공과금은 4만원 늘어 35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가스요금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13~14만원을 유지하던 용돈은 3만원 늘어 17만원을 지출했는데, 고물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통/통신비, 교육비, 의류/패션잡화/미용비, 모임 회비는 각각 1만원 증가했다.

가구소득 구간별 의식주 월평균 소비액

식비, 주거비 늘리고, 의류비는 유지



모든 구간의 2023년 의식주 월 소비액이 2022년보다 증가했고,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폭이 컸다.

의식주 중 가장 큰 소비를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로, 1~2구간은 4만원, 3~5구간은 6만원 더 늘었는데, 식재료,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가 치솟은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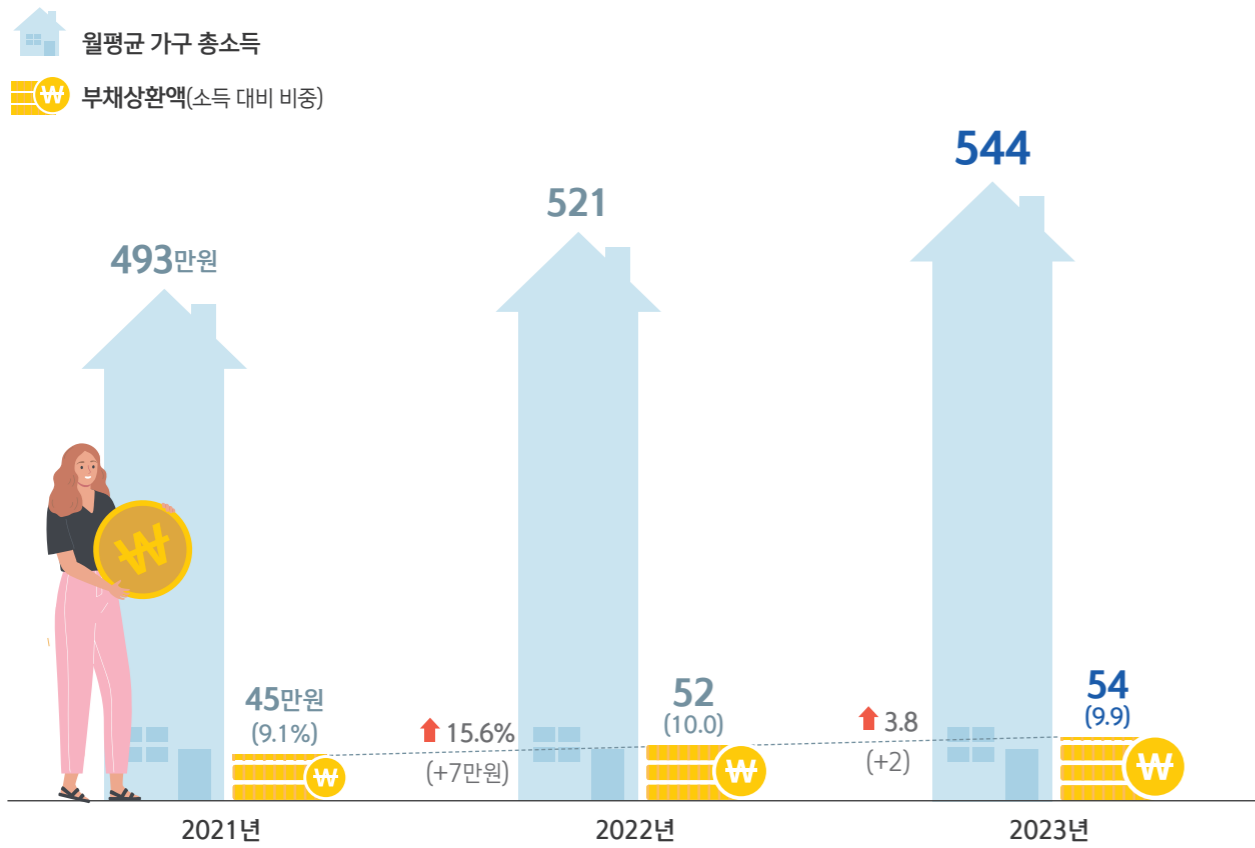
주거비 또한 모든 소득구간에서 2~5만원 늘었는데, 전세사기 불안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류/패션잡화/미용비는 1~4구간이 2022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5구간만 2만원 증가했다.

부채 상환

월평균 부채 상환액*

고금리 속에서 전년도 수준 유지하며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2023년 부채 상환액은 54만원으로, 2022년보다 2만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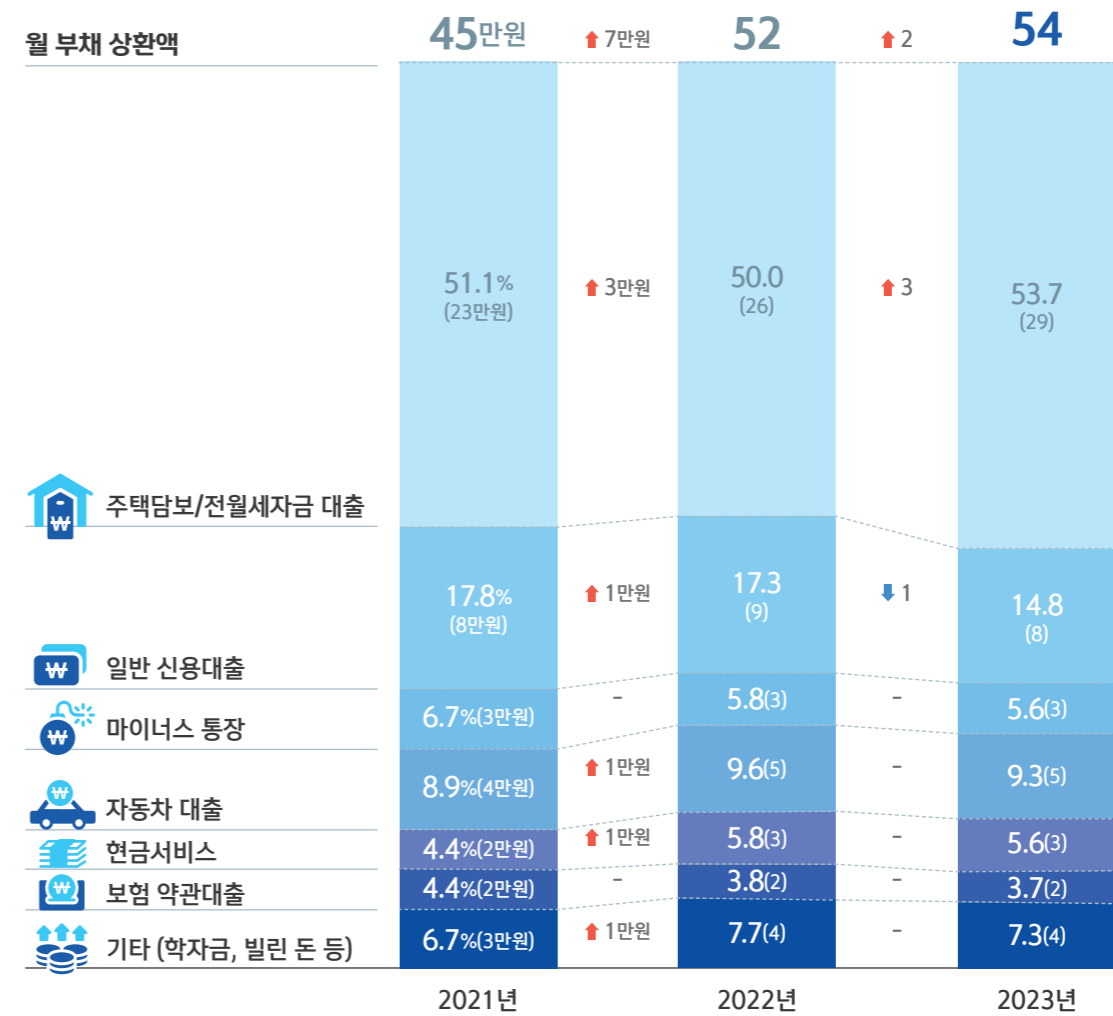
2022년에 전년도보다 7만원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은 줄면서 소득의 10% 수준을 유지했다.

* 부채 상환액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 그 외 대출은 현행 유지



2022년에는 모든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만 늘었다.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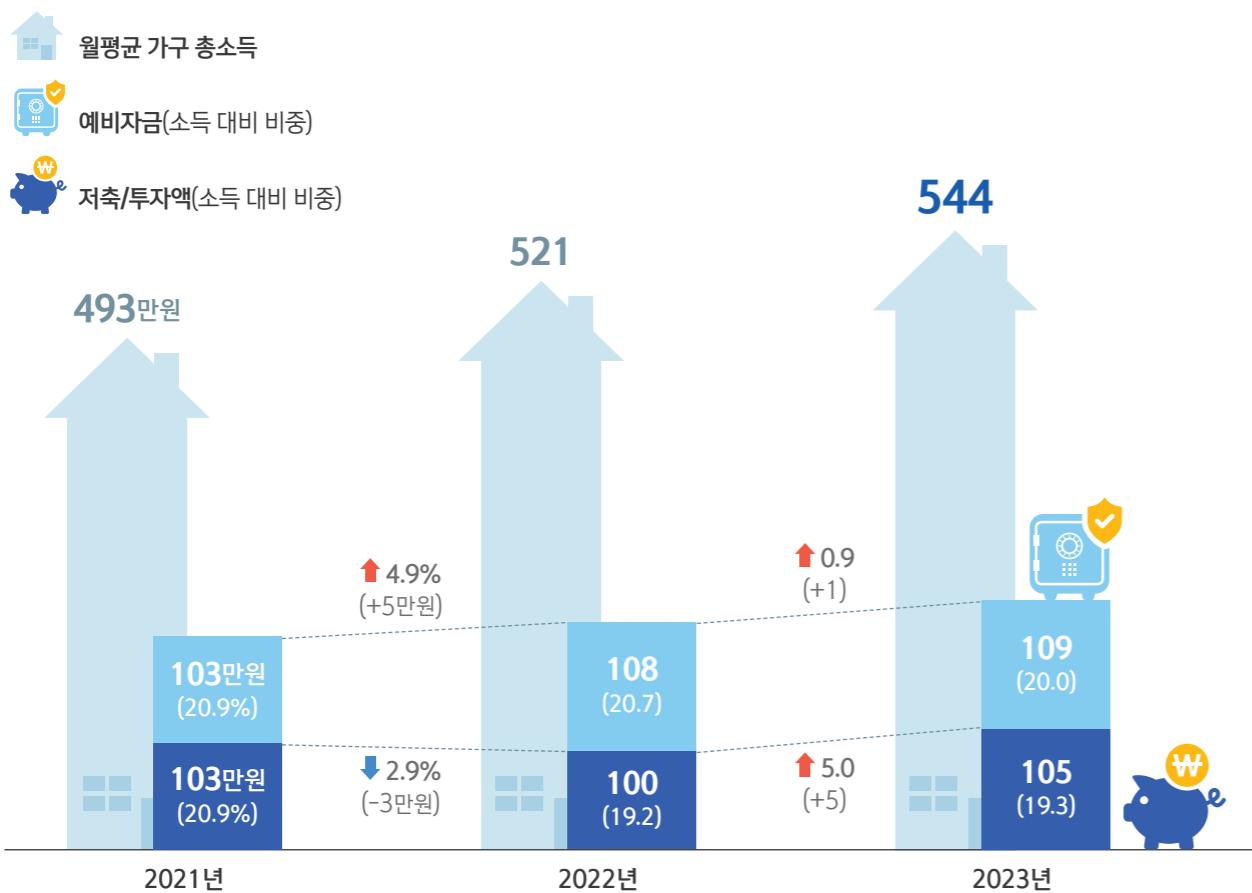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 외 나머지 대출상품은 2022년 수준을 유지했고,

일반신용대출은 1만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저축/투자

월평균 저축/투자액

저축/투자 늘리고 예비자금 확보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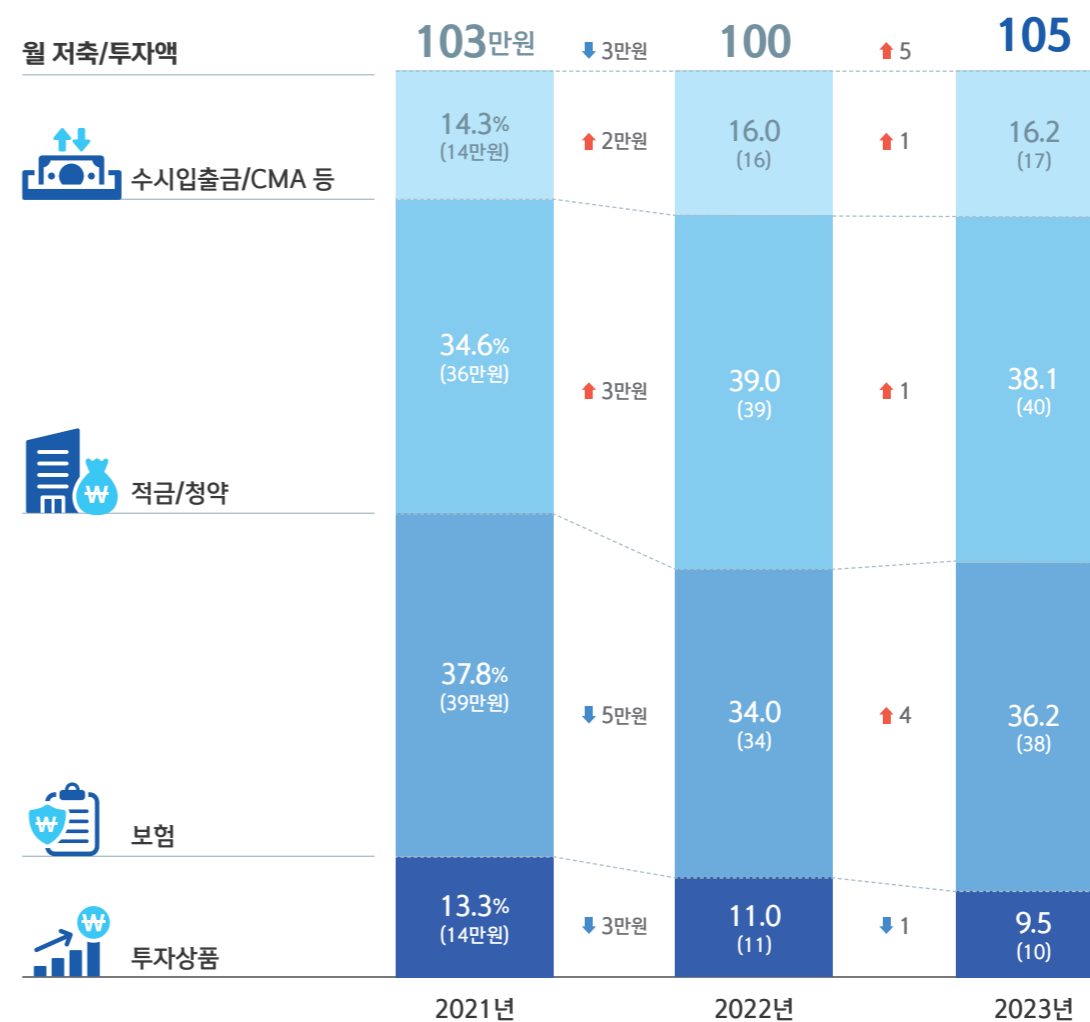
2023년에 예비자금, 저축/투자액이 모두 증가했다.

2022년에 3만원 줄었던 저축/투자액이 5만원 늘어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지만 소득 내 비중은 20% 미만이었다.

2022년에 5만원 늘었던 예비자금은 1만원 증가에 그쳤지만 소득 내 비중을 20%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자금 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별 월평균 저축/투자액 비중

투자상품은 줄이고 보험은 확대, 안정적인 자산 운용 패턴 계속



2023년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05만원으로 2022년보다 5만원 늘었는데, 그 중 4만원을 보험에 저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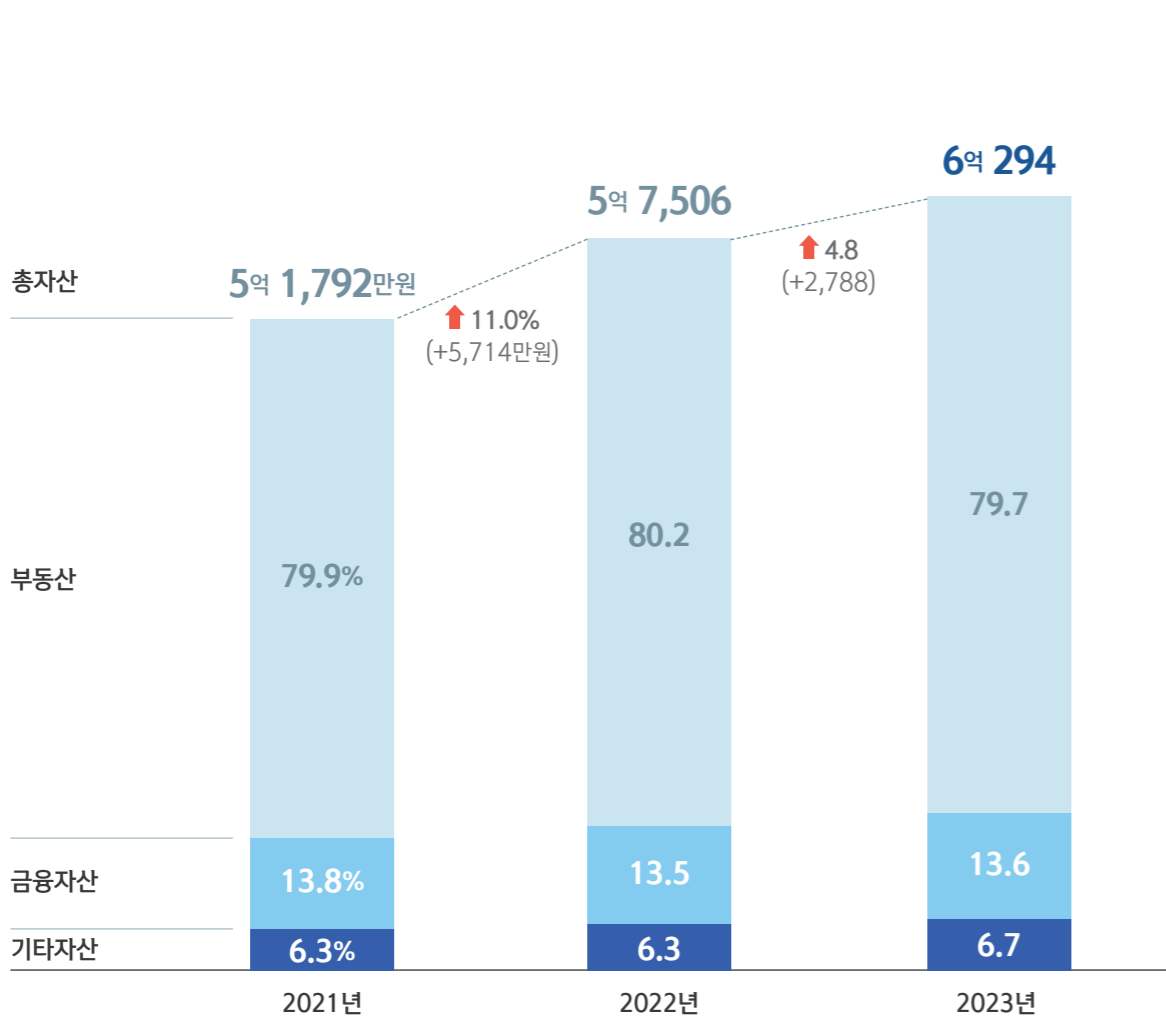
2022년 감소했던 보험 저축액이 2023년 38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보험 저축액 비중이 가장 높던 202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투자상품은 1만원 감소한 반면 수시입출금/CMA, 적금/청약은 각각 1만원 증가했는데, 주식, 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패턴은 계속됐다.

3 자산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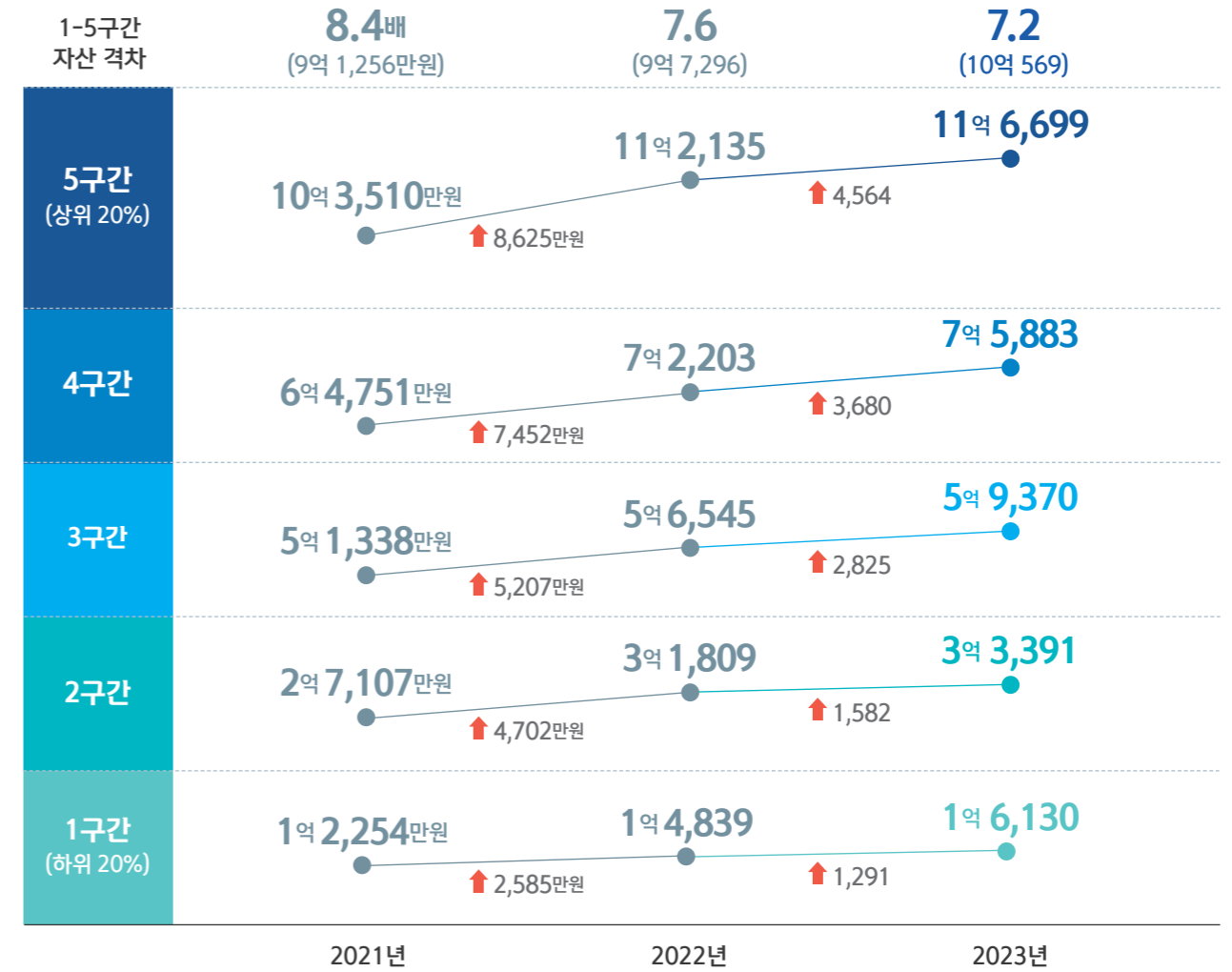
조사 이래 최초로 가구 평균 자산 6억원 돌파



2021년부터 5억원대를 유지했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2023년에 처음으로 6억원대를 돌파했다. 2022년에 2021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4.8% 늘면서 증가세는 완화됐다. 자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금융자산 13.6%, 기타자산 6.7%로 지난 3년간 유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가구소득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

자산 증가폭 완만해지며 1-5구간 자산 격차는 2년 연속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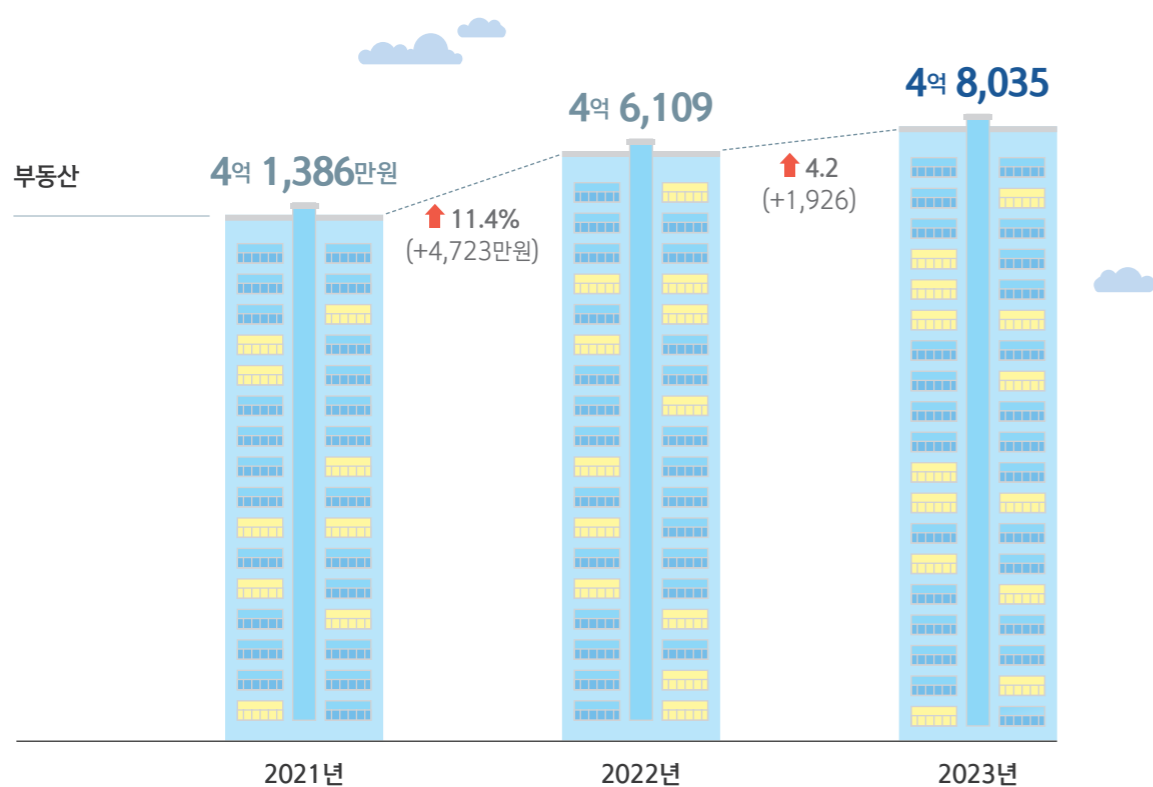


최근 2년간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평균 보유 자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자산액 증가 규모는 2022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자산 증식 속도가 주춤했다. 2023년에 1구간, 2구간은 각각 1,291만원, 1,582만원 늘어난 1억 6,130만원, 3억 3,391만원을 보유했다. 2022년에 5천만원 이상 늘었던 3구간, 4구간, 5구간은 각각 2,825만원, 3,680만원, 4,564만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2년 2구간의 증가액인 4,702만원보다도 증가폭이 작았다. 자산 증가폭이 완만해지면서 1-5구간의 자산 격차도 2021년 8.4배에서 점점 줄어 2023년 7.2배로 감소했다.

부동산

부동산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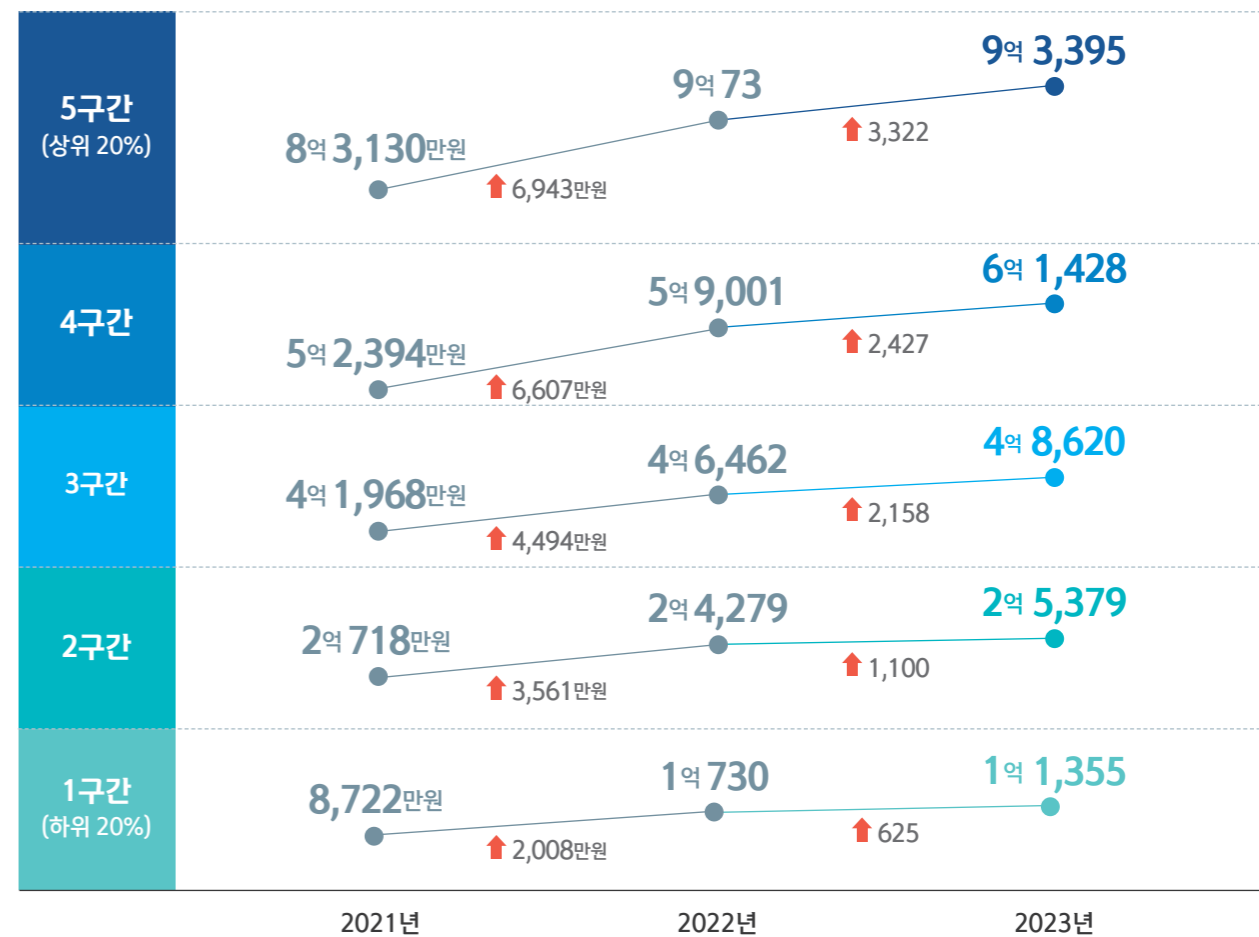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증가 주춤, 4억원대 유지



총자산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23년에 4억 8,035만원으로 2022년보다 1,926만원 증가했다. 2022년에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반면, 2023년에는 4.2%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약화됐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부동산 자산 증가액, 2022년의 절반도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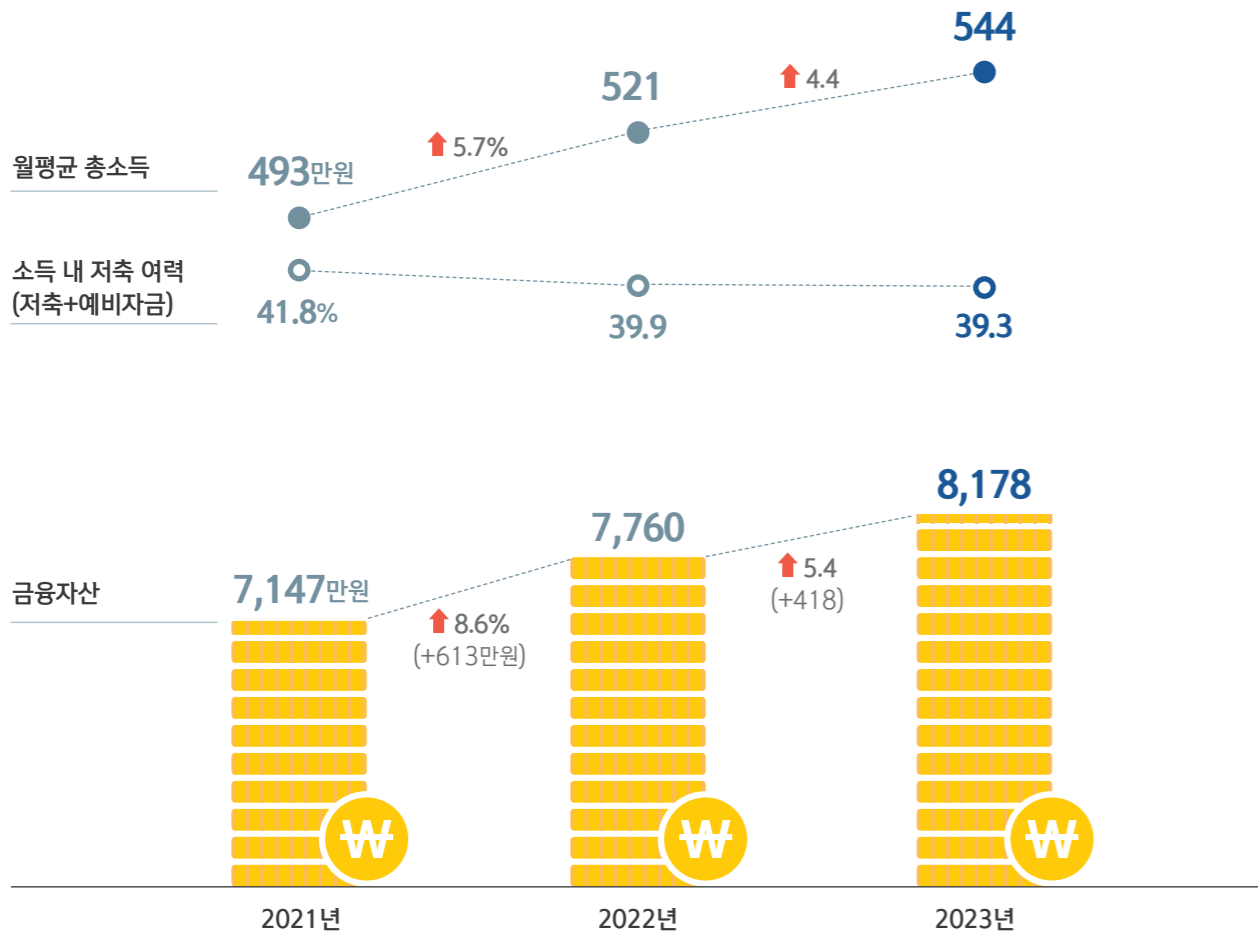


최근 2년간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부동산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더 많이 늘었는데, 증가액은 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2,008만원 늘며 부동산 자산이 1억원대를 돌파한 1구간은 2023년에 625만원 늘었고, 2구간, 3구간은 각각 1,100만원, 2,158만원 증가하며 2022년과 유사했다. 4구간은 2,42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처음으로 6억원을 넘었고,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5구간은 3,322만원 늘며 9억원대를 유지했다.

금융자산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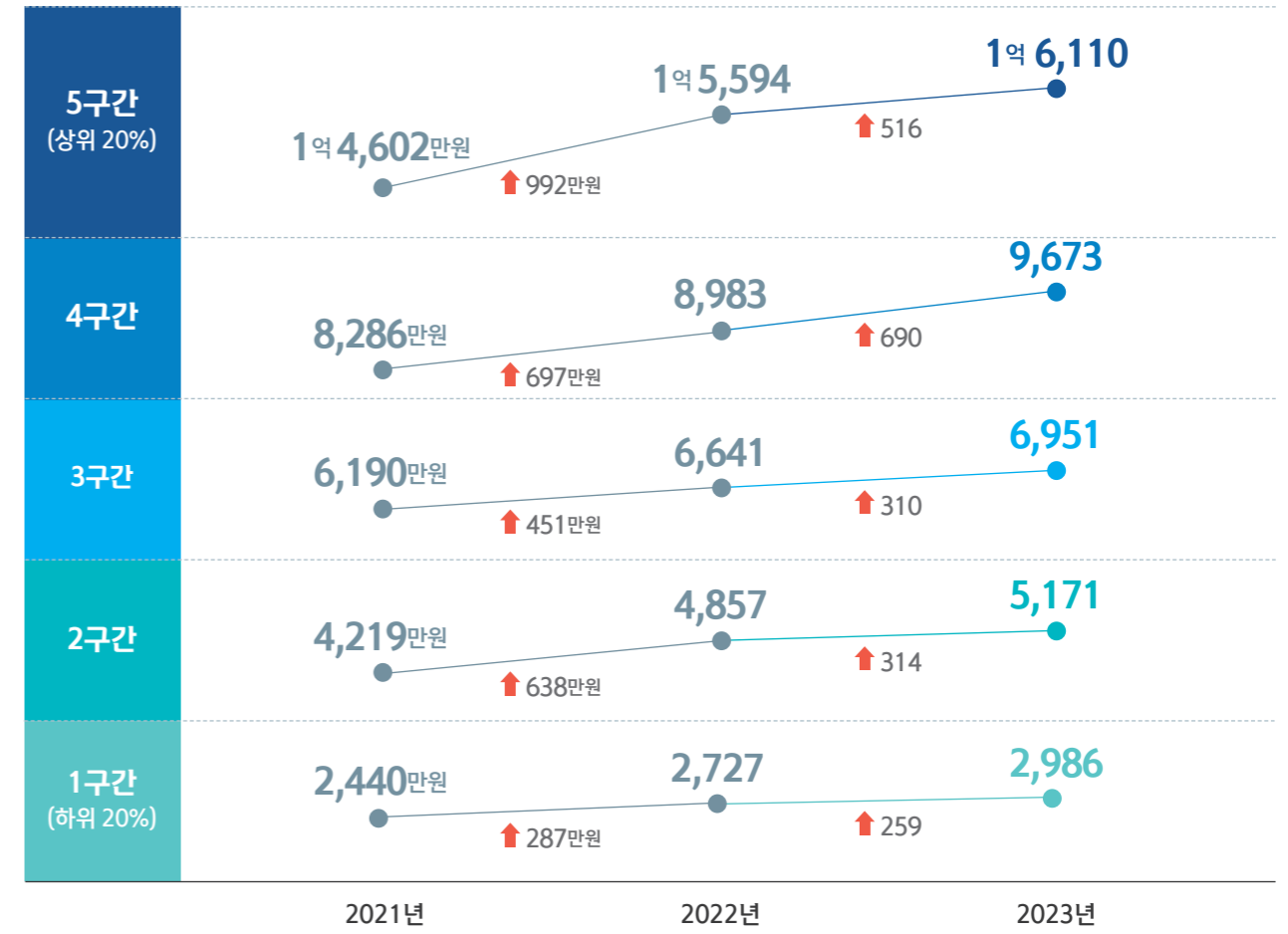
소비, 부채 상황도 빠듯...
소득 늘어도 금융자산 증가폭은 줄어



금융자산 규모는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 2023년에 8천만원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613만원, 2023년에는 418만원 증가하며 2년 새 1천만원 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었다. 매년 소득이 늘었지만 2021년 41.8%였던 소득 내 저축 여력이 2022년에는 39.9%, 2023년에는 39.3%로 감소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 지출과 부채 상황이 늘면서 저축, 투자 여력이 점점 줄어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구간별 금융자산 규모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금융자산 소폭 증가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금융자산이 늘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1구간의 금융자산은 2022년보다 259만원 늘었으나 여전히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한 반면, 5구간은 2022년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516만원 늘었음에도 1구간의 5배 이상인 1억 6,110만원을 보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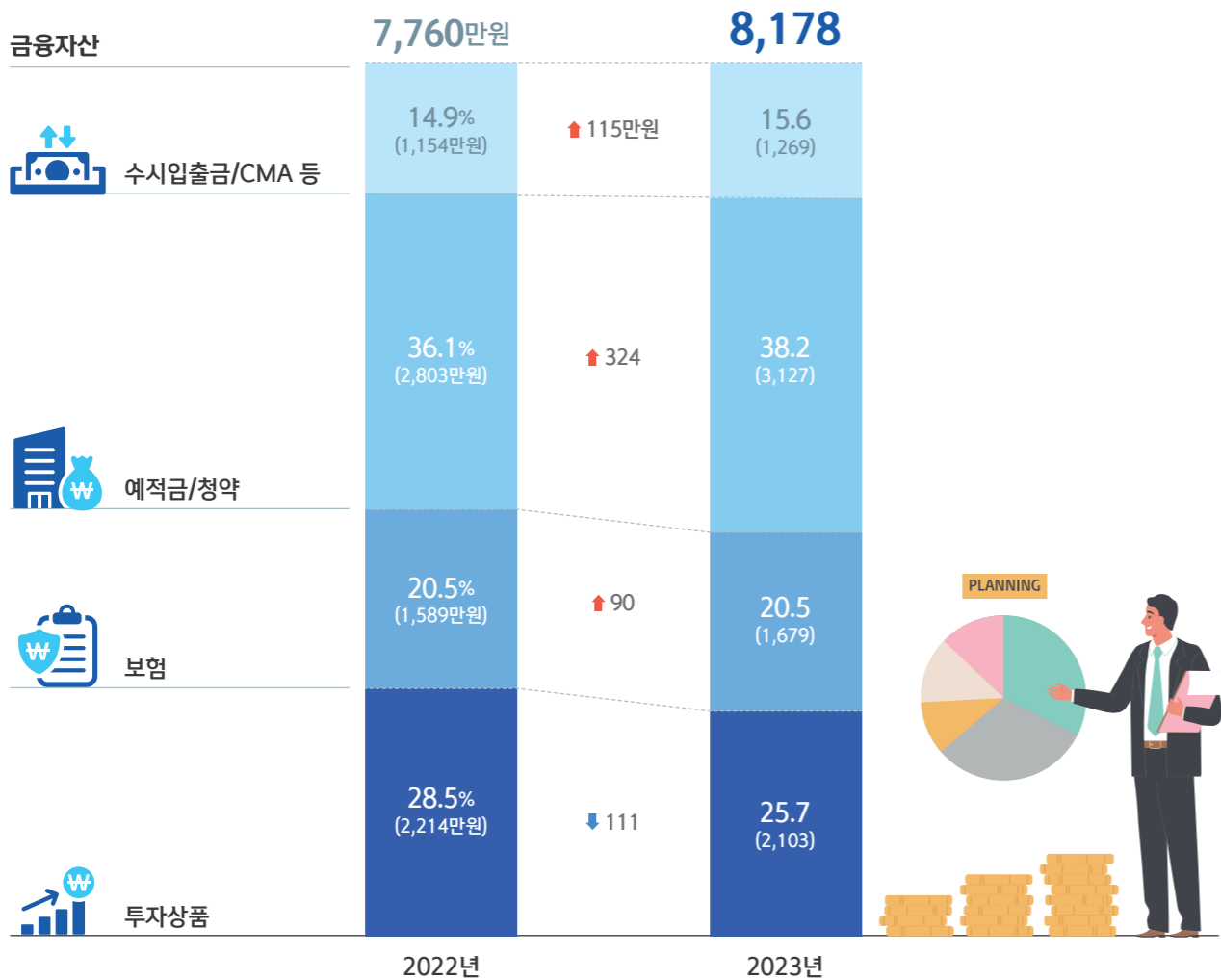
2구간, 3구간은 300만원 이상 증가해 각각 5,171만원, 6,951만원 보유하고, 4구간은 1~5구간 중 가장 많은 690만원 늘었지만 1억원을 넘기지는 못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시장 위축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운용하면서 금융자산이 크게 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금융상품별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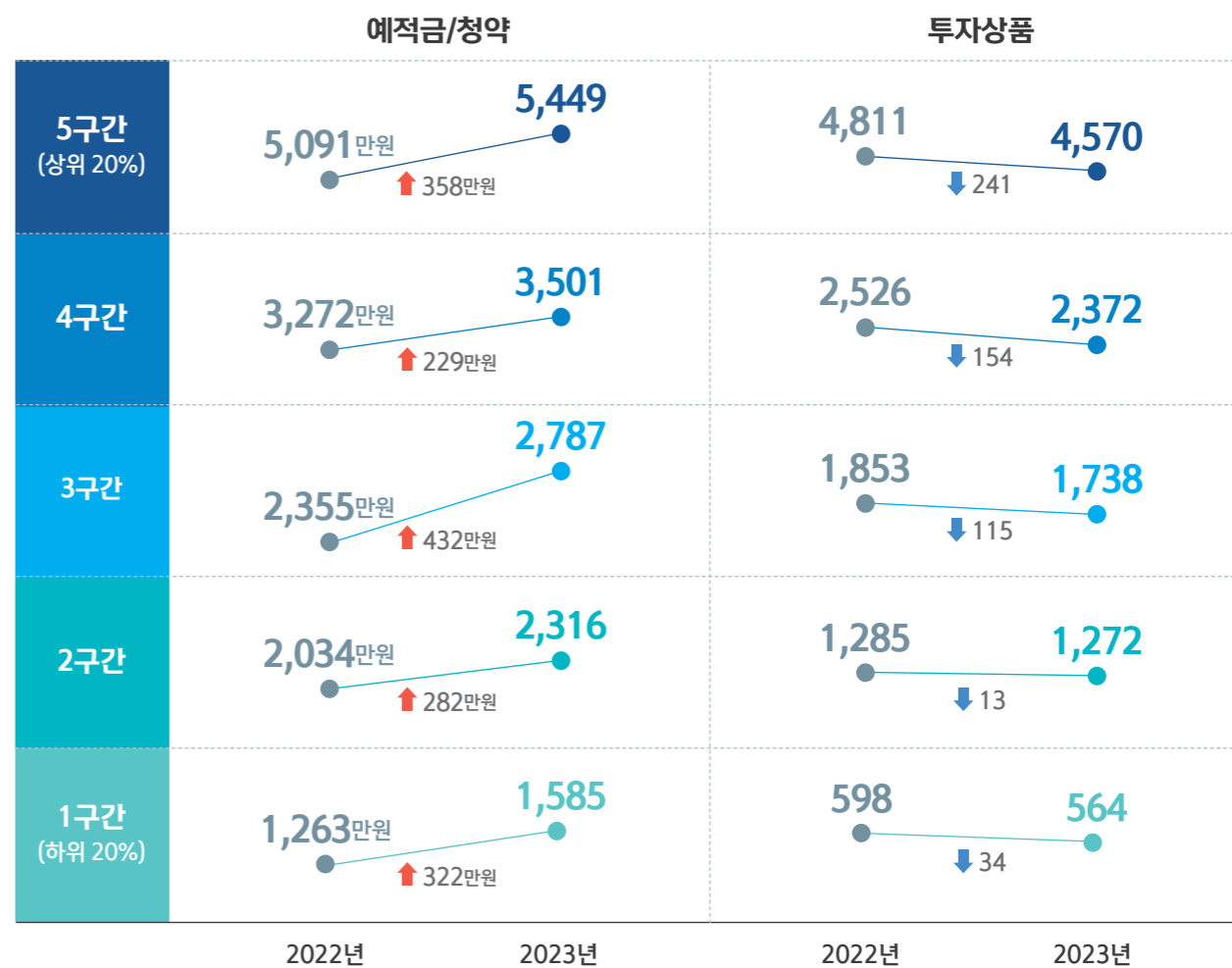
고금리 시대, 예적금에 3백만원 더 예치



2023년에 수시입출금/CMA, 예적금/청약 등 안정적인 금융자산은 늘고,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금융자산은 줄었다. 금융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적금/청약은 한 해 동안 유지된 고금리 기조에 3,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324만원 늘었다. 수시입출금/CMA는 2022년보다 115만원 증가한 1,269만원으로 금융자산의 15.6%를 차지했고, 보험은 90만원 증가한 1,679만원으로 20.5%의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투자상품은 111만원 감소하며 2,103만원으로 줄고, 비중도 25.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2천만원 이상 보유하며 예적금/청약 자산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가구소득 구간별 예적금/청약, 투자상품 자산 규모

가구소득 상관없이 투자보다 예적금/청약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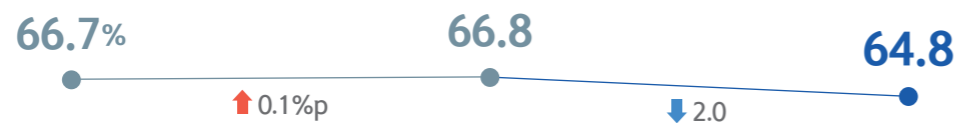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예적금/청약 자산 규모는 늘고, 투자상품은 줄었다. 1구간은 예적금/청약이 2구간, 4구간보다 많은 322만원 늘어난 반면 투자상품은 34만원 줄었고, 2구간, 4구간 역시 투자상품 자산이 감소하면서 예적금/청약 자산과의 격차가 커졌다. 3구간은 예적금/청약이 1~5구간 중 가장 많은 432만원 늘고, 투자상품은 115만원 줄었다. 2022년에 예적금/청약과 투자상품 규모가 유사했던 5구간은 예적금/청약이 358만원 늘고 투자상품이 241만원 줄면서 두 상품 간 자산 규모 격차가 1,0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4 부채

부채 보유율

고금리 상황 속 부채 보유율 하락, 지난 3년간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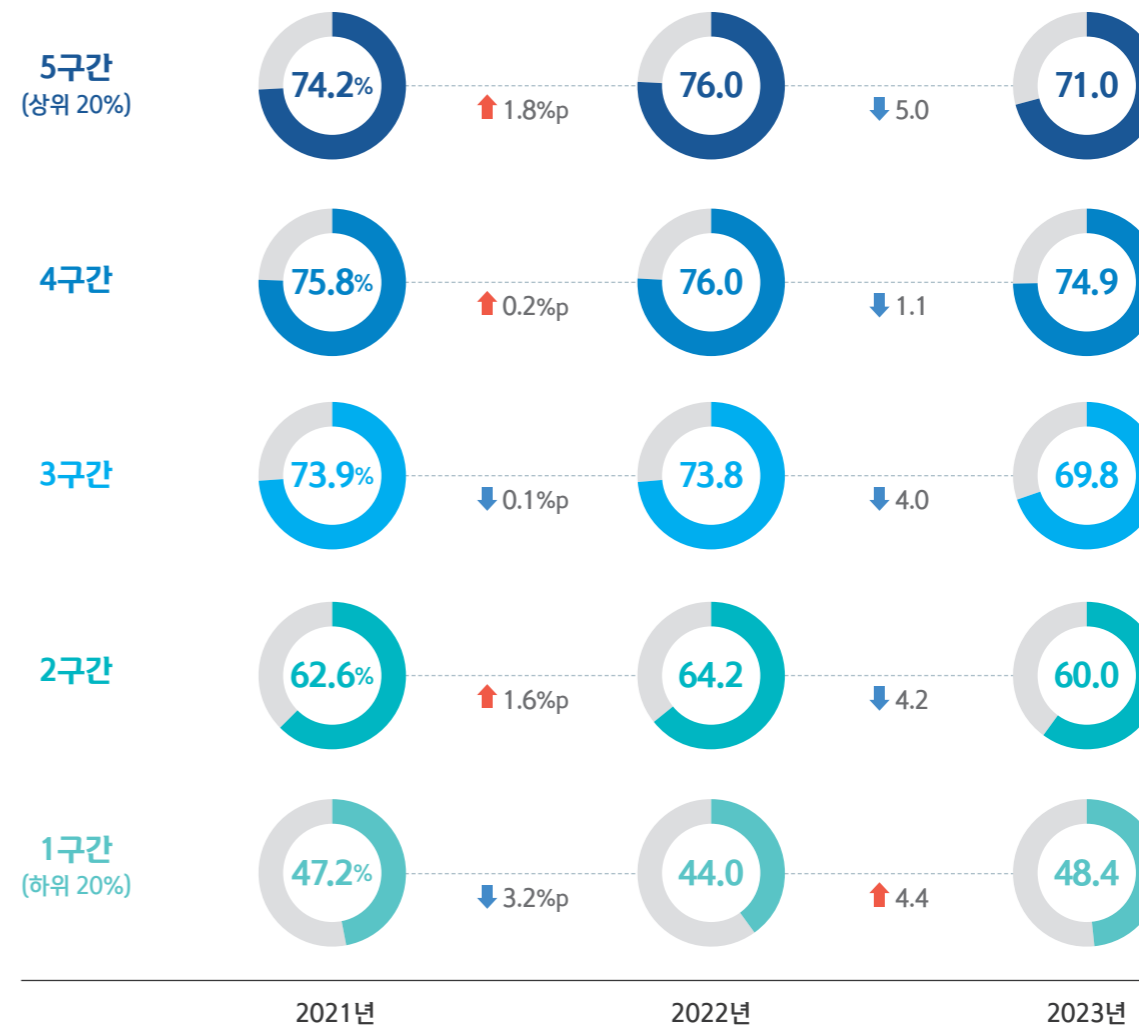
2023년 경제활동가구의 64.8%가 부채를 보유했다.

2022년까지 66%대를 유지하던 부채 보유율이 2.0%p 하락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부채 보유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채 보유율

가구소득 1구간만 부채 보유율 증가



평균 부채 보유율은 줄었지만, 가구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1구간과 나머지 2~5구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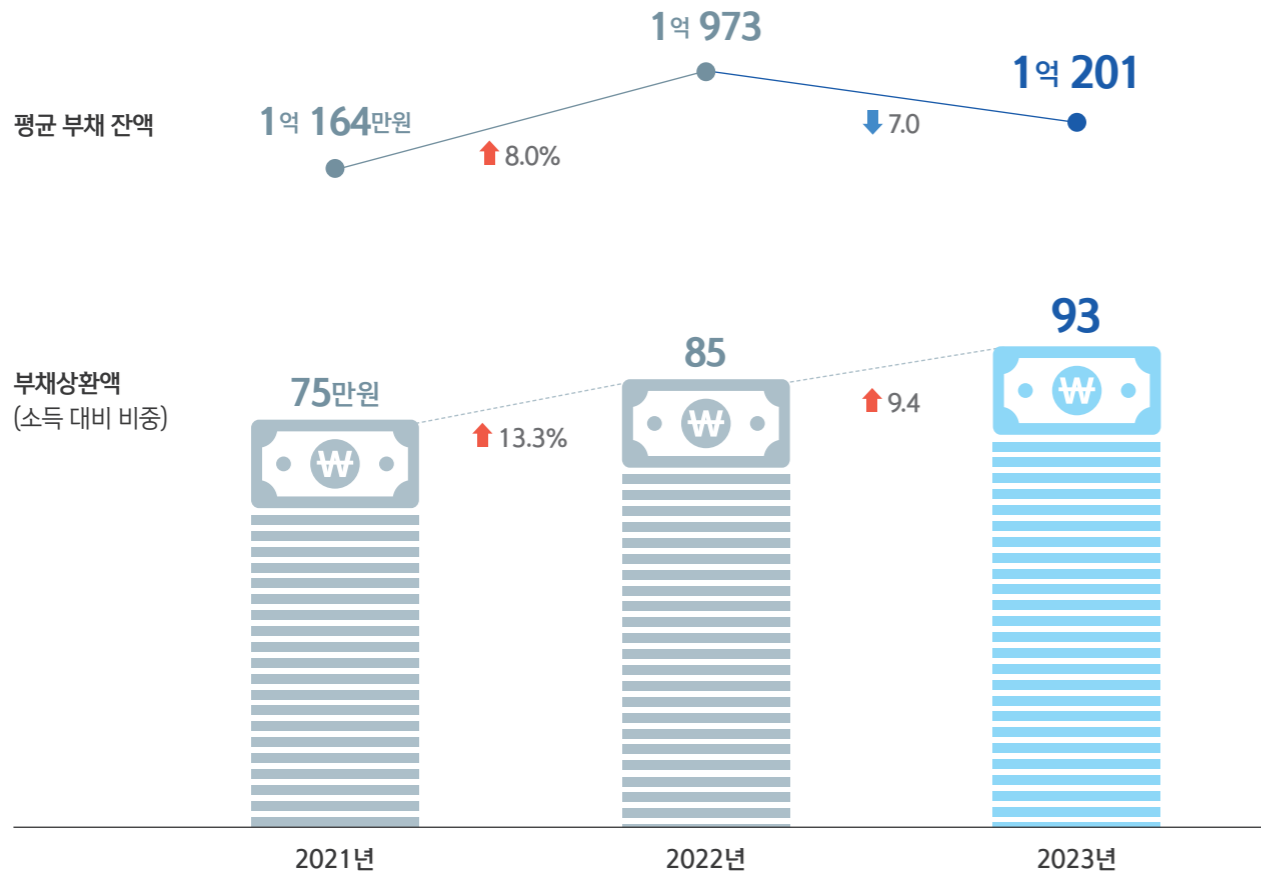
2022년에 부채 보유율이 가장 크게 줄었던 1구간은 2023년에 4.4%p 늘어 1~5구간 중 유일하게 2022년보다 높아졌다.

2구간은 2022년보다 4.2%p 하락했고, 3구간은 4.0%p 줄어 지난 2년간 70%대를 유지하던 부채 보유율이 60%대로 감소했다.

2022년에 76.0%로 동일했던 4구간, 5구간은 각각 1.1%p, 5.0%p 줄었으며, 1~5구간 중 4구간의 부채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평균 부채 잔액 첫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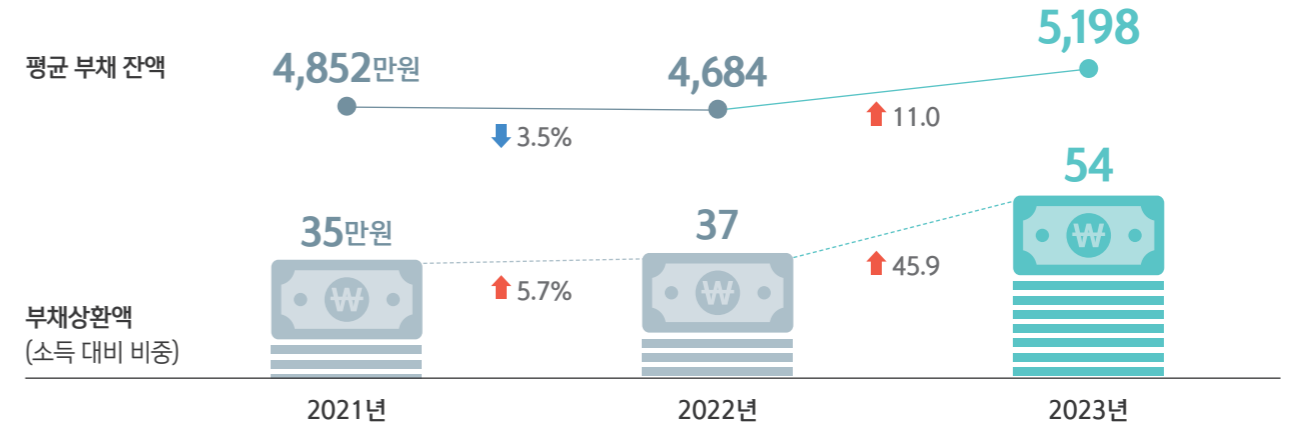
2022년에 크게 늘었던 평균 부채 잔액이 2023년에 2021년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에 1억 164만원에서 2022년에 1억 973만원으로 8.0% 증가했던 부채 잔액이 2023년에는 1억 201만원으로 7.0% 감소했다.
 하지만 부채 상환액은 8만원 증가한 93만원으로,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구간별 평균 부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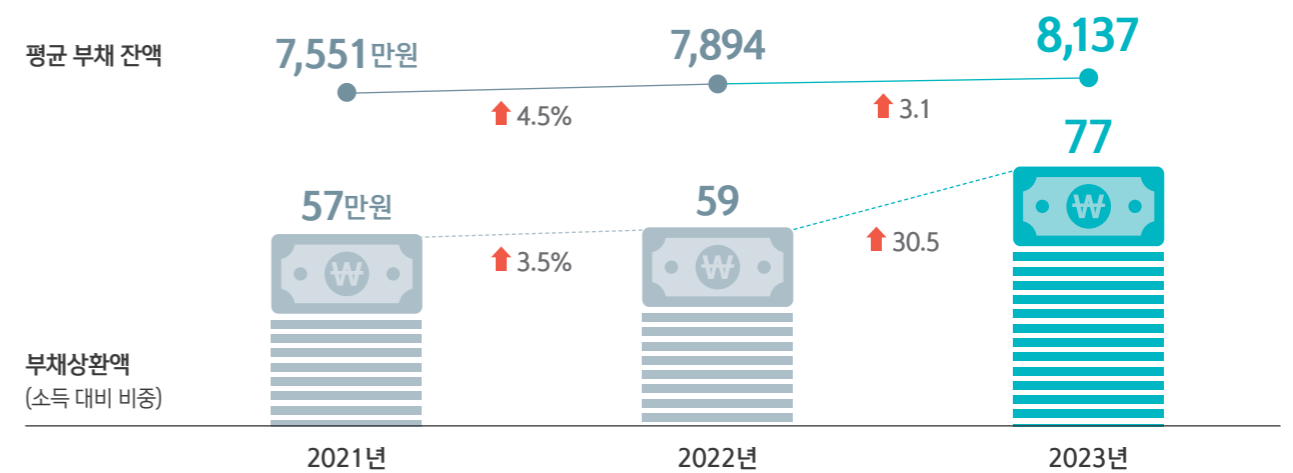
빚 늘어난 1~2구간, 부채 상환액 증가율도 두 자릿수

1 구간(하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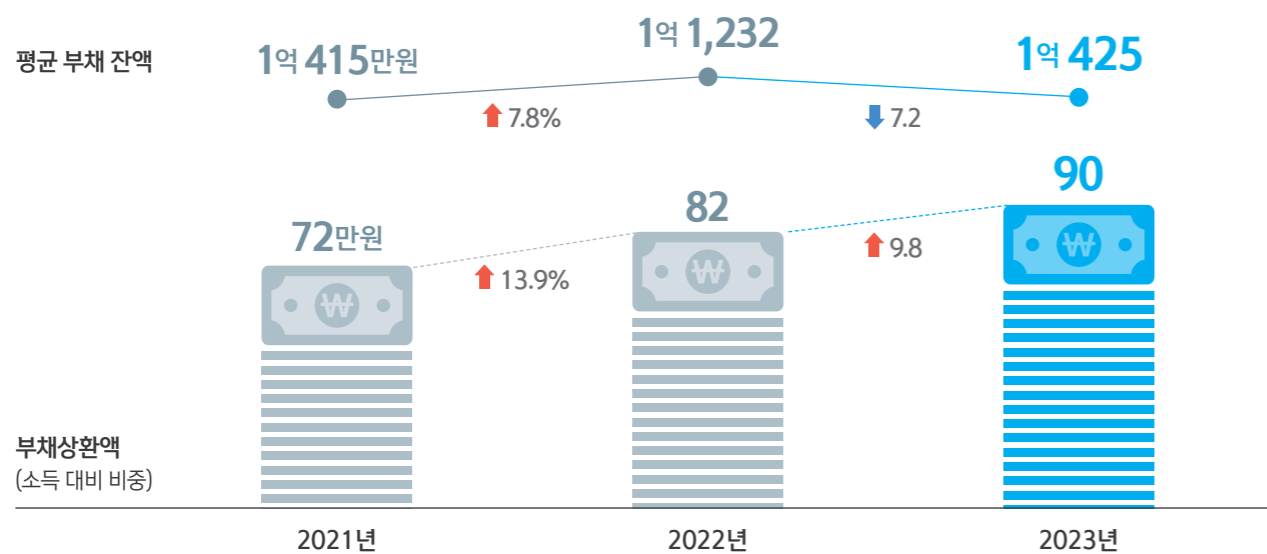
2022년에 가구소득 1~5구간 중 유일하게 부채가 줄었던 1구간의 부채 잔액은 5,198만원으로, 2022년보다 514만원 늘었다.
 2021년, 2022년에 30만원대를 유지하던 월 부채 상환액 역시 54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2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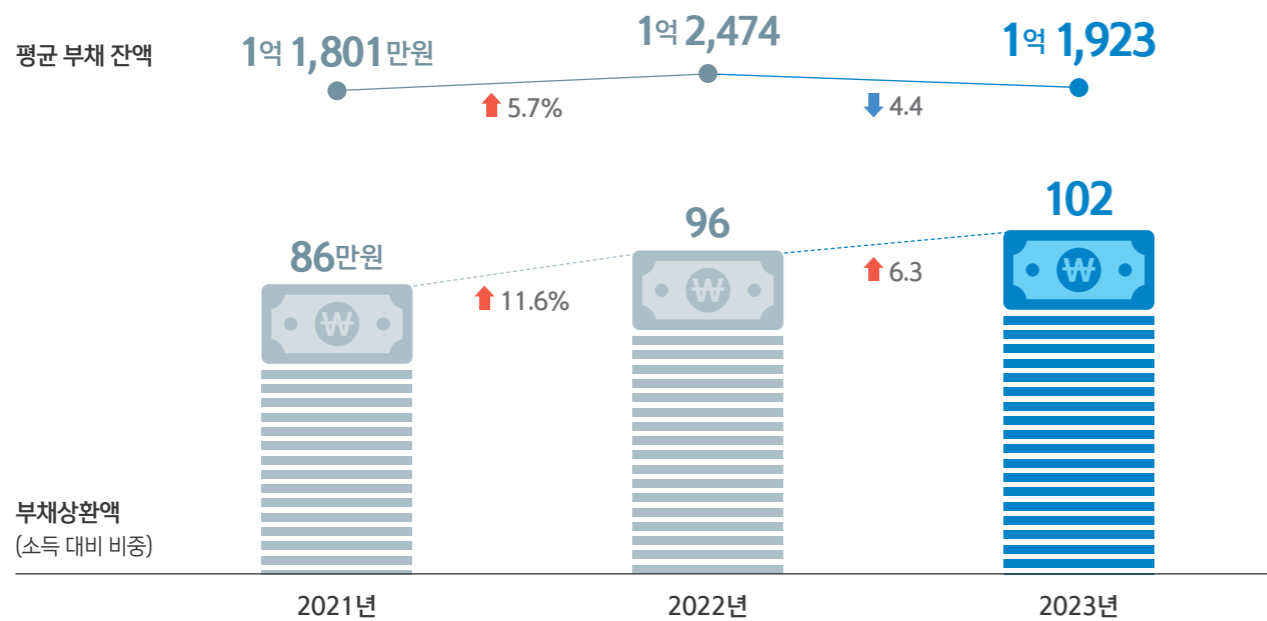
가구소득 2구간의 부채 잔액은 2022년보다 243만원 늘어난 8,137만원으로, 처음으로 8천만원을 넘어서었다.
 2021년, 2022년에 50만원 후반대였던 월 부채 상환액이 77만원으로 늘며, 2년 새 20만원 증가했다.

3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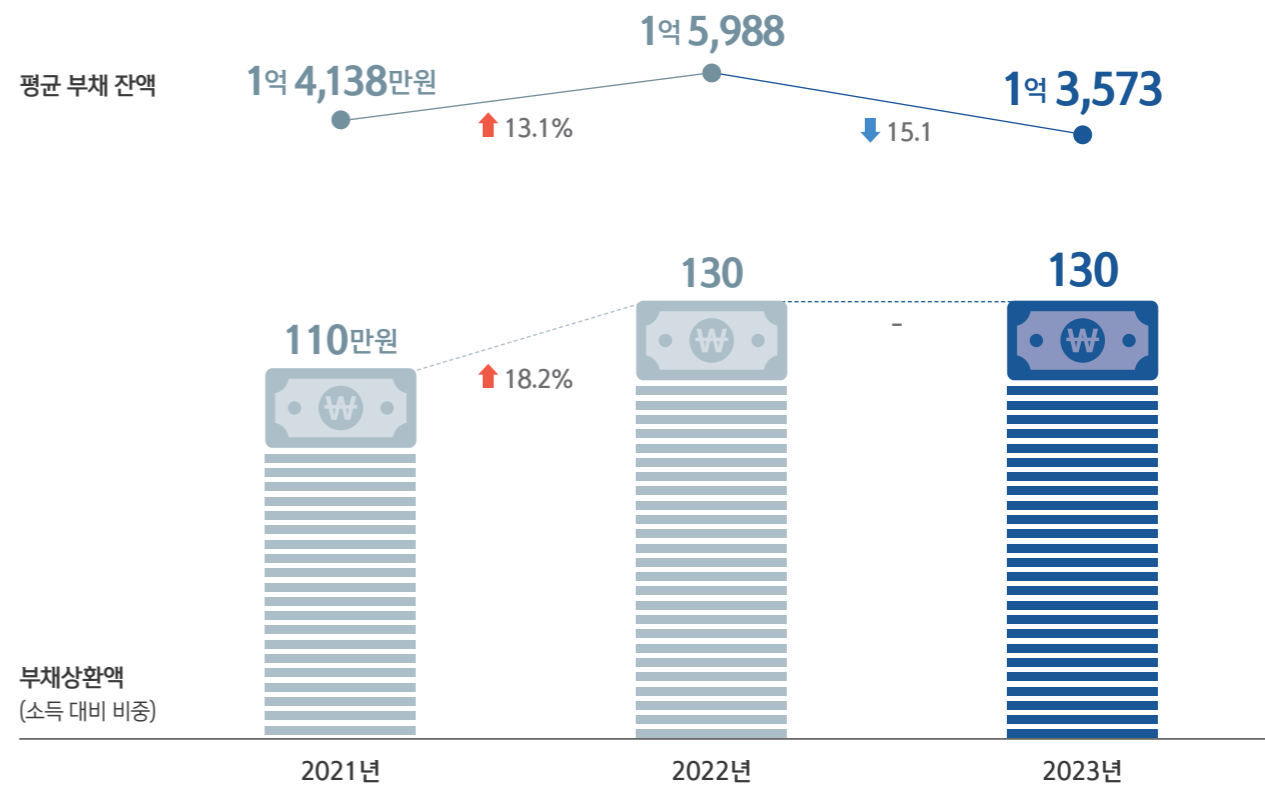
가구소득 3구간의 부채 잔액은 1억 425만원으로, 2022년보다 807만원 줄어 2021년 수준과 유사했다. 반면 월 부채 상환액은 2년 새 18만원 증가했다.

4 구간



가구소득 4구간의 부채 잔액은 1억 1,923만원으로 2022년보다 551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월 부채 상환액은 꾸준히 늘어 2023년에 102만원을 지출하며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5 구간(상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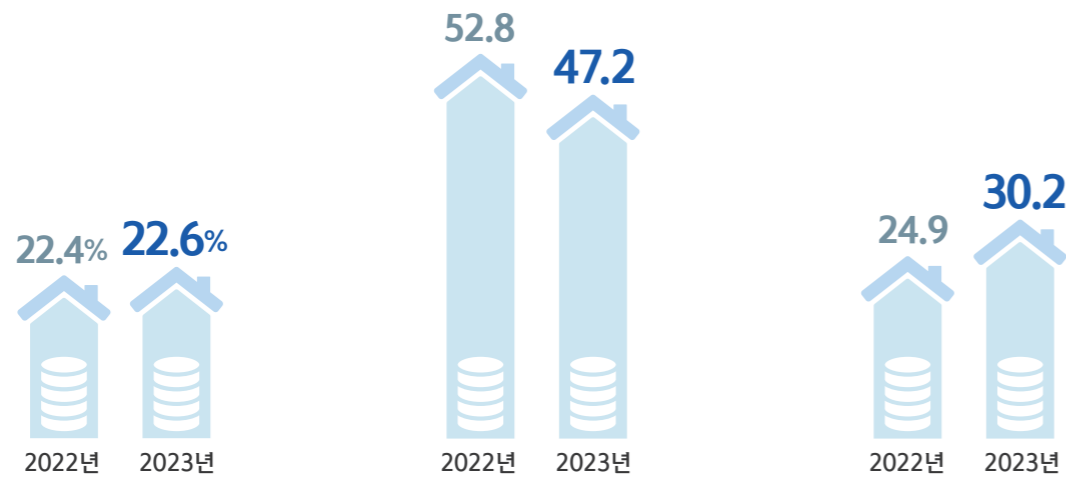
가구소득 5구간의 부채 잔액은 1억 3,573만원으로 1~5구간 중 감소율이 가장 컸고, 지난 3년 중 가장 적게 보유했다. 앞서 보았듯이 부채 보유율과 부채 잔액 모두 줄었지만 월 부채 상환액은 130만원으로 2022년과 동일했다.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2024년 가계 생활 형편 예상

내년 가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5구간은 미래에 좀더 낙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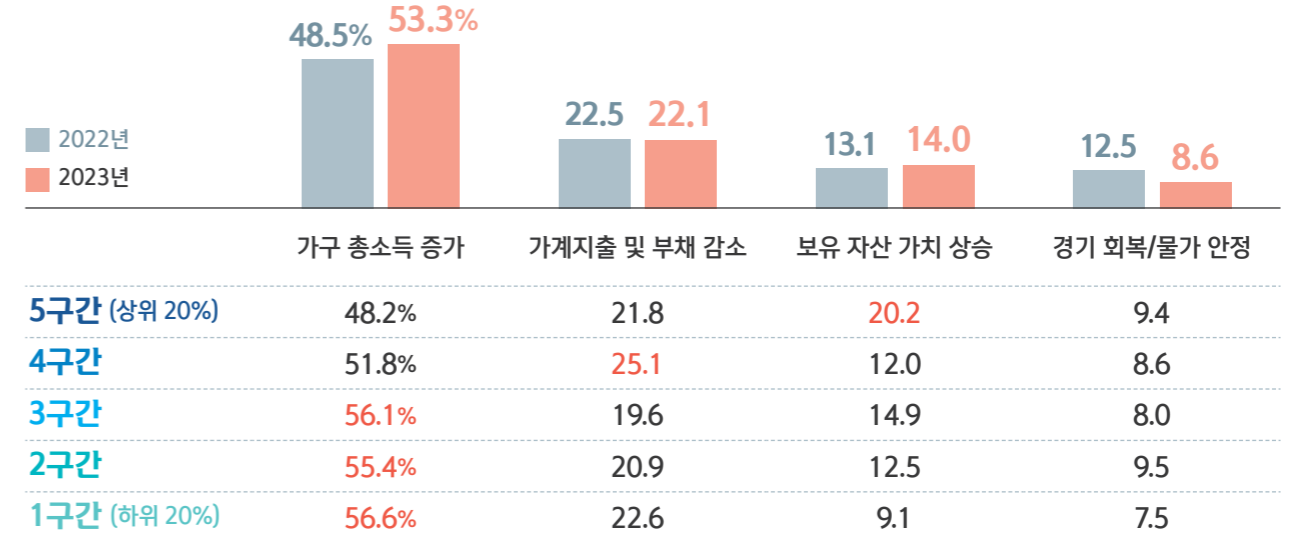
구분	좋아질 것	비슷할 것	나빠질 것
5구간 (상위 20%)	26.6%	47.8	25.7
4구간	23.4%	46.5	30.2
3구간	21.2%	46.4	32.5
2구간	20.1%	47.9	32.1
1구간 (하위 20%)	21.9%	47.7	30.4

올해에도 경제활동가구의 절반 정도는 2024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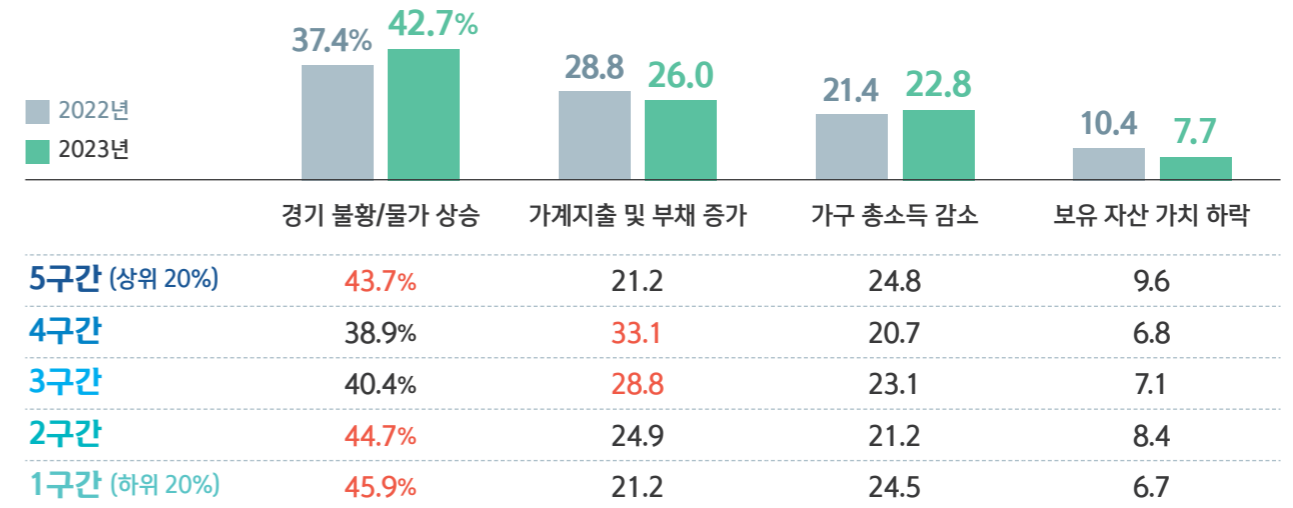
2022년 응답과 비교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5.3%p 늘어 향후 1년 내 전망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비슷했다.

가구소득 1~4구간은 가계 형편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반면, 5구간은 나빠지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아 다른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가계 형편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2024년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2024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2024년 생활 형편 예상 이유는 가구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 이유는 가구 총소득 증가, 가계지출 및 부채 감소, 보유 자산 가치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 증가 응답 비율은 1~3구간이 50% 이상으로 높았고, 가계 지출 및 부채 감소 응답은 4구간, 보유 자산 가치 상승은 5구간에서 많았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경기 불황/물가 상승, 가계지출 및 부채 증가, 가구 총소득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물가 상승 응답 비율은 1구간, 2구간, 5구간에서 높았는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3~4구간은 가계 지출 및 부채 증가에 대한 걱정이 타구간 대비 많았다.

2 2023년 보통사람 핵심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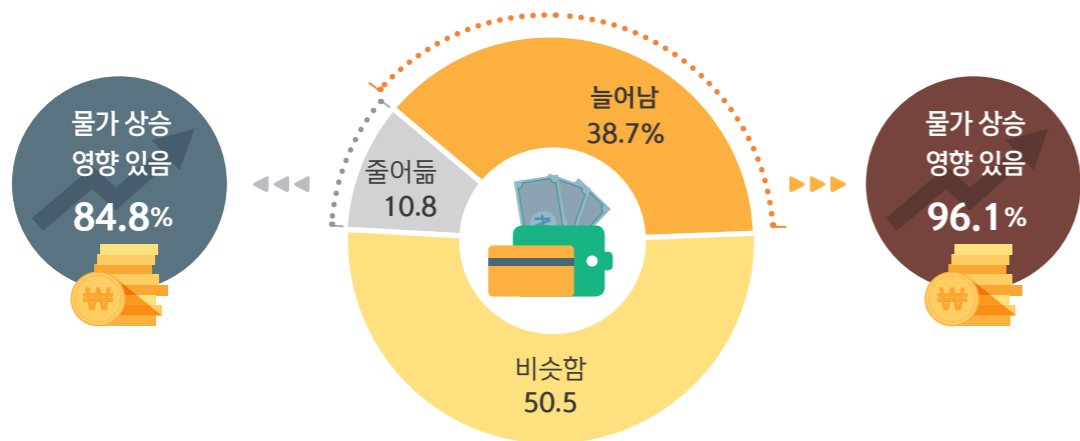
1. 런치플레이션	40
2. 부업의 변화	44
3. 부동산	48
4.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52
5. ESG	58

조사 대상 | 경제활동자 1만명(부동산) 또는 2,500명(런치플레이션, 부업의 변화,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ESG)
분석 설명 | 각 이슈별로 전체 경제활동자(1만명 또는 2,500명)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으며,
특정 대상자(2030대, 의향자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에만 소제목에 대상자를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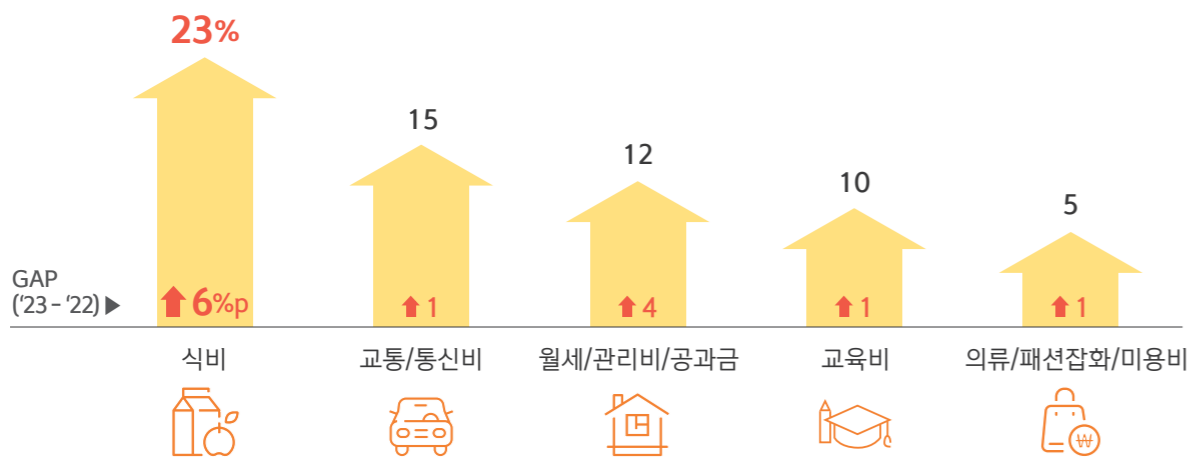
01 런치플레이션*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
알뜰족은 6천원까지 점심값 줄이기 성공

작년 대비 올해 소비 금액 변화



월 소비액 대비 항목별 소비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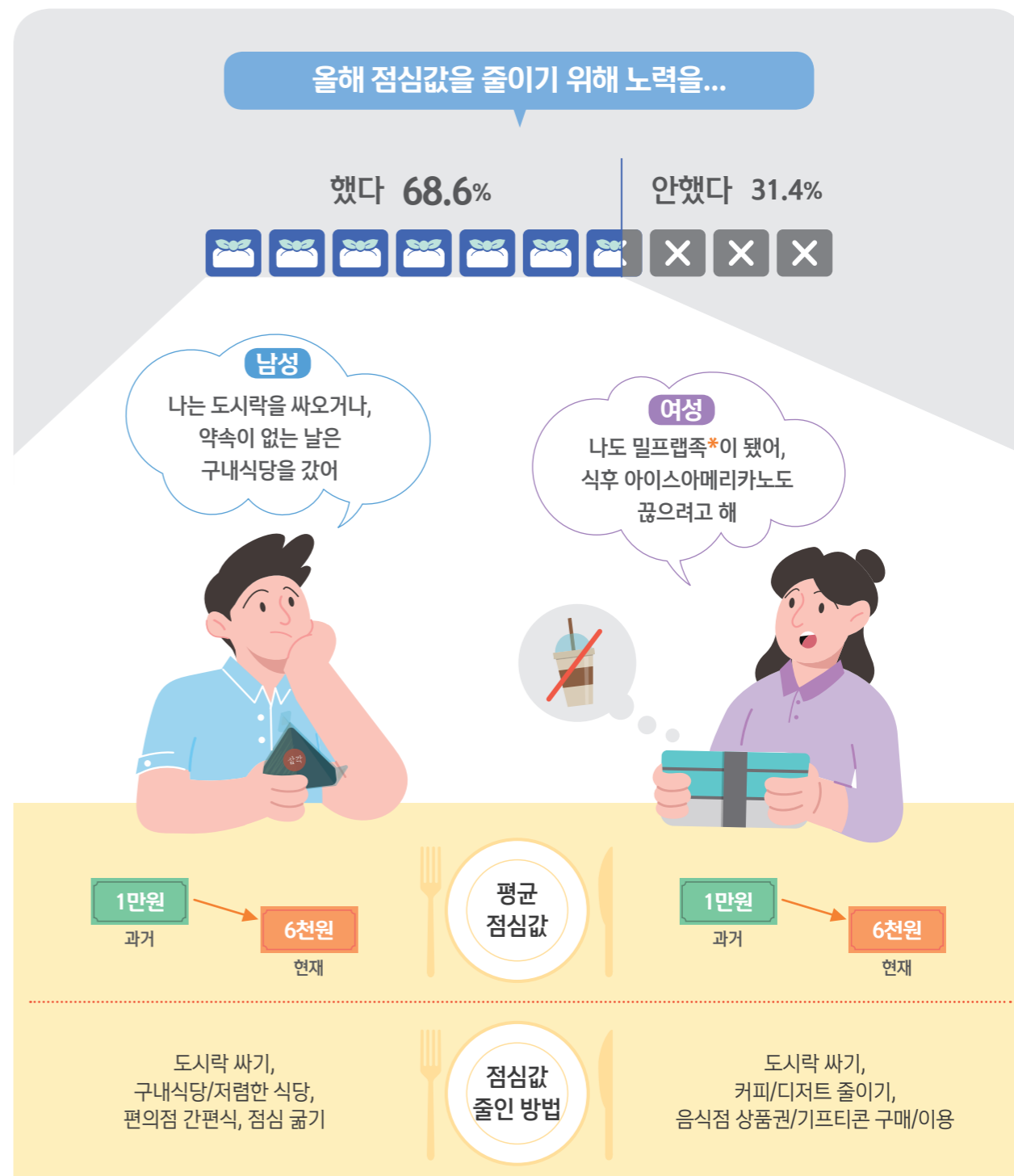


경제활동자 10명 중 4명이 올해 소비가 작년 대비 늘어났으며,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으며, 특히 식비 비중이 6%p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1/4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식비 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심값으로 살펴보았다.

* 런치플레이션

런치(Lunch)+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의미

직장인의 점심값 줄이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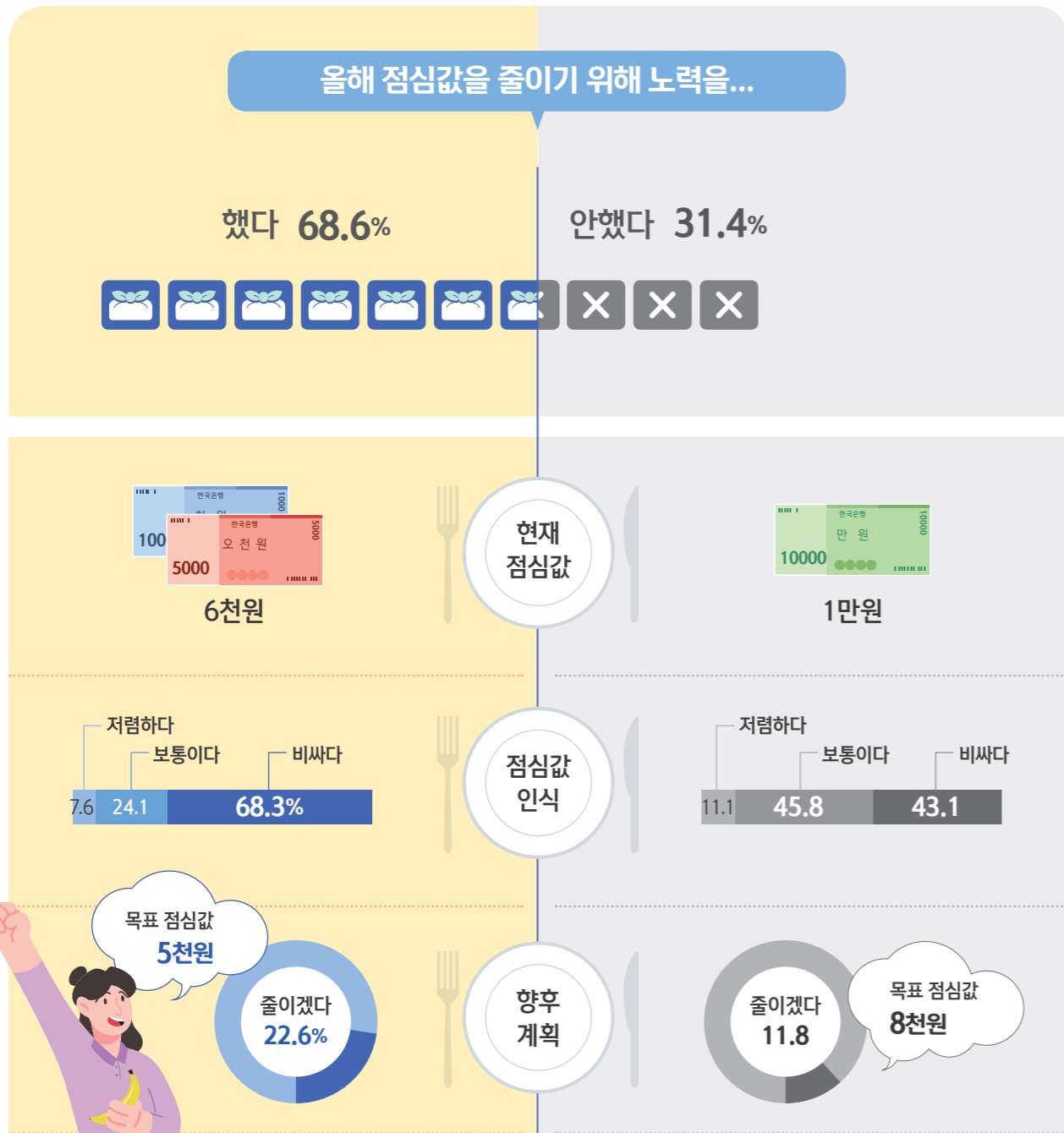


*밀프랩족: 식사(Meal)+준비(Preparation)의 합성어로, 미리 준비해둔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

보통사람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썼고, 이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재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식후 소비를 줄이는데 열심이었다. 직장인의 낙이라는 점심에서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하며 남녀 모두 점심값을 평균 4천원 줄이는데 성공했다.

01 런치플레이션

향후 점심값 줄이기 계획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22.6%는 5천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목표 금액은 2천원 절감한 8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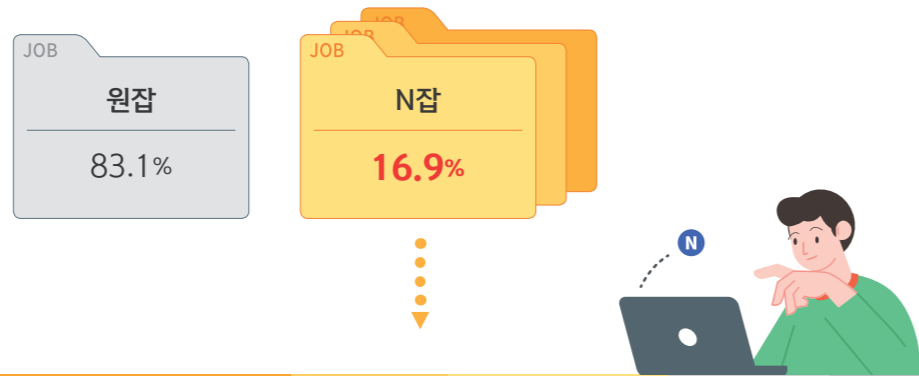


02 부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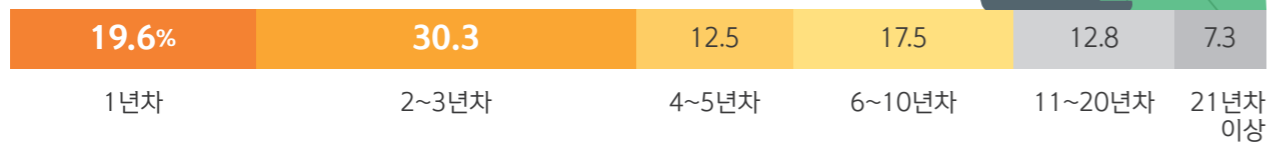
부업은 단순한 부가 수입을 넘어
역량 강화 · 창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중

◆ N잡러

근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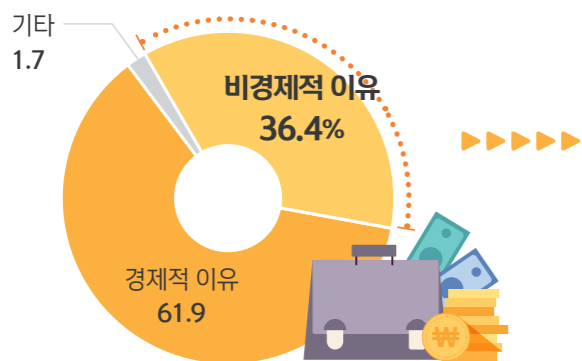
부업 결심한 연차



경제활동자는 16.9%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였다.

N잡러의 절반은 3년차 이전에 N잡을 결심했고, 10명 중 2명은 취업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

부업하는 이유



부업하는 비경제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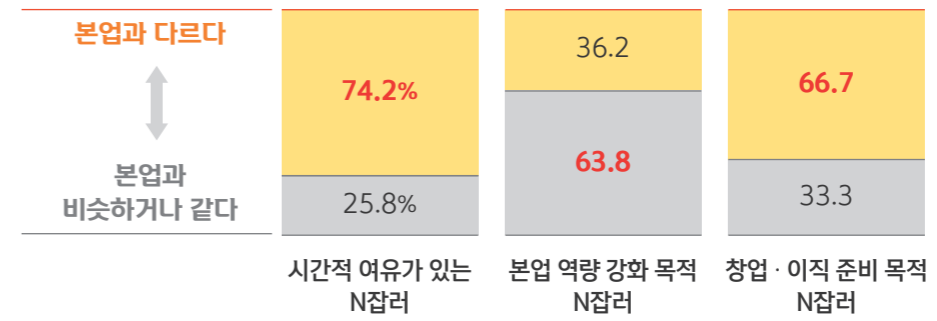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 · 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

본업과 연계성



부업 직종 (복수)

	서비스직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	배달/대리운전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디자인	과외/강사	크리에이터/블로그/ 유튜버/제휴마케팅
20대	34.3%	14.3	17.1	12.9	21.4
30대	12.4%	20.0	16.2	13.3	24.8
40대	21.6%	20.6	19.6	13.4	10.3
5060대	17.2%	4.6	7.3	21.9	5.3

N잡러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본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N잡러는 본업과 비슷한 부업을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창업 · 이직 준비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두번째 직업을 가졌다.

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라는 유행어를 반증하듯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근로활동 만족도

수입		적성/흥미/재미	
본업 > 부업 54.8%	부업 > 본업 16.1	본업 > 부업 29.0%	부업 > 본업 21.0
본업 > 부업 44.7%	부업 > 본업 14.9	본업 > 부업 8.5%	부업 > 본업 31.9
본업 > 부업 57.8%	부업 > 본업 13.3	본업 > 부업 20.0%	부업 > 본업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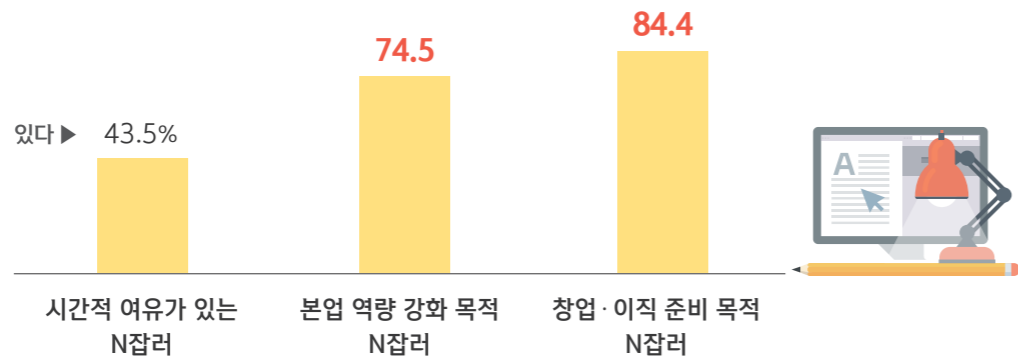
어떤 이유로 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 · 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부업은 수입원 이상의 의미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N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02 부업의 변화

부업 시작 전 준비 경험



경험한 부업 준비 활동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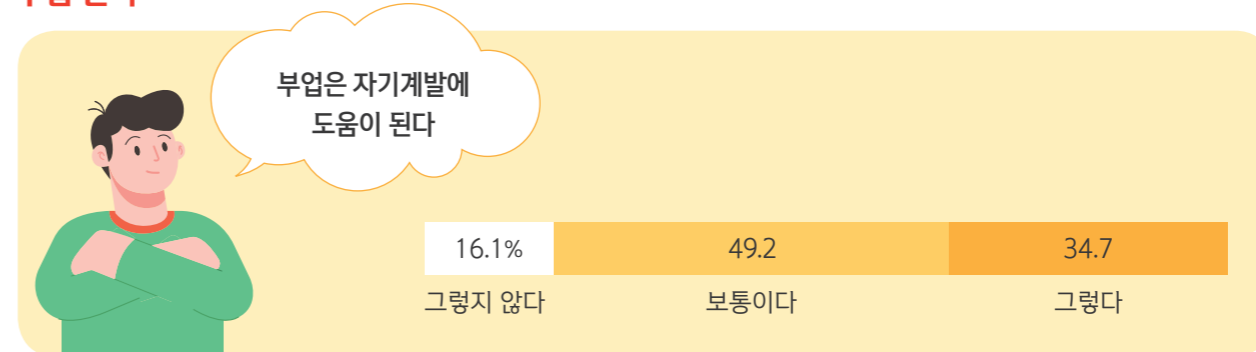
부업 준비 시 지출 비용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들어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 부업 준비 비용으로 월평균 20만원을 지출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강의를 수강했고, 관련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인맥을 형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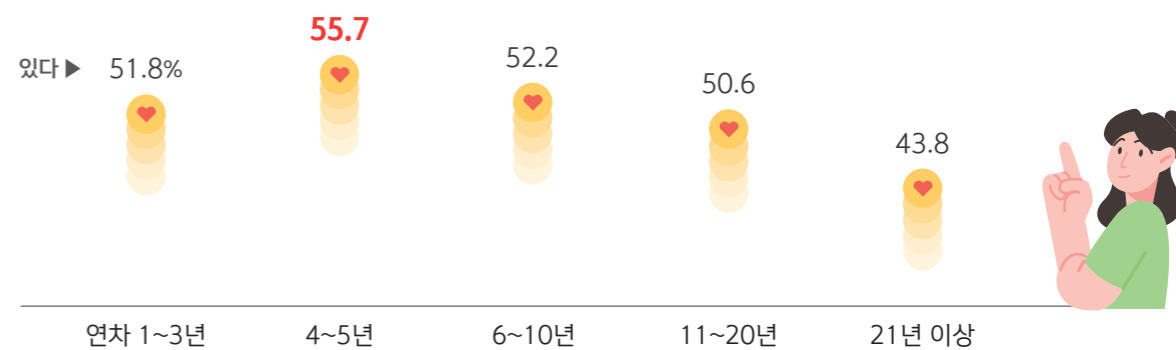
◆ 원잡러

부업 인식



원잡러는 부업에 대해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원잡러 34.7%가 부업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부업 관심도



부업에 관심있는 이유 (1+2순위)

연차	경제적 어려움	창업·이직 준비	시간적 여유	본업 역량 강화	노후 대비
1~3년	65.1%	28.4	25.8	24.9	12.7
4~5년	66.9%	30.6	19.0	27.3	13.2
6~10년	64.5%	30.2	21.1	24.2	17.7
11~20년	64.9%	27.5	19.6	19.2	22.0
21년 이상	54.5%	26.4	18.4	13.0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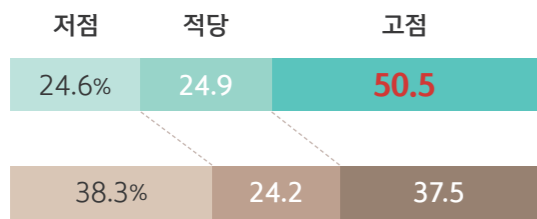
원잡러의 절반 정도가 부업에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4~5년차가 관심이 가장 컸고, 이후 연차가 쌓일수록 관심도는 조금씩 줄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가운데, 10년 이하 연차의 원잡러는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를 위해 부업을 계획했다. N잡러뿐만 아니라 현재 원잡러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자기계발 수단으로 N잡을 추구하여, 향후 부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03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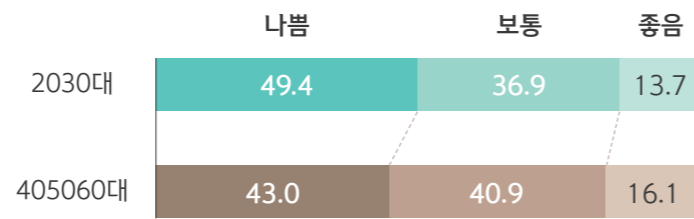
부동산 구입의 현재와 미래

현재 집값 최고점 인식... 2030대는 2년은 더 기다린다
첫 자가 구입자, 집값은 올랐지만 대출금 갚기 '급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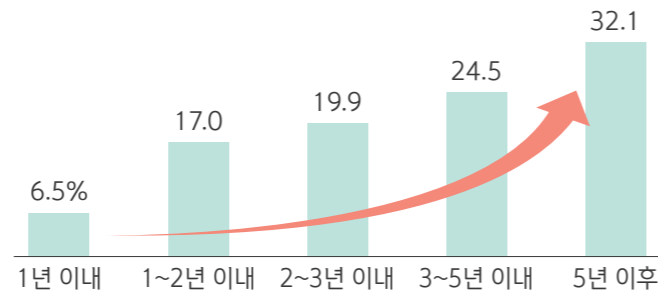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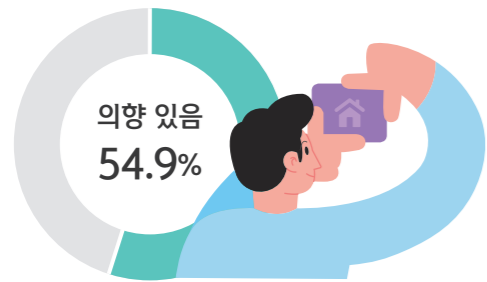
올해 집값 인식



올해 집 구입 인식



2030대의 향후 부동산 구입 의향 및 희망 구입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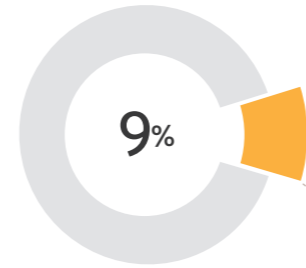


2030대의 향후 2년 내 부동산 구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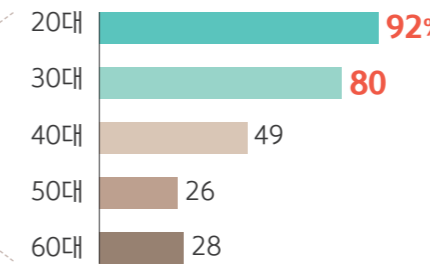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으며,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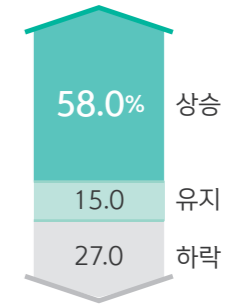
최근 3년 내 자가 구입률



연령대별 첫 자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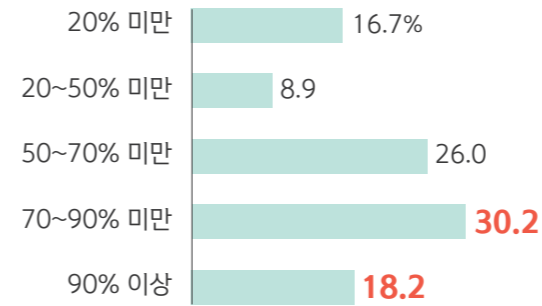


2030대의 거주주택 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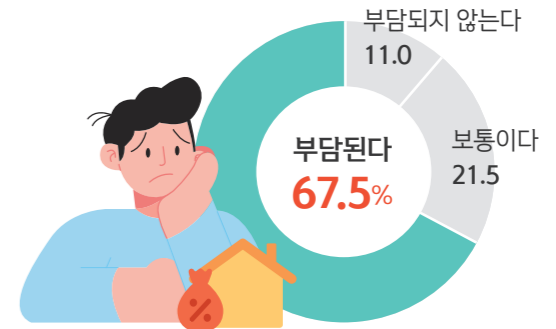


전체의 9%는 최근 3년 내 자가를 구입했고, 이 중 2030대의 대부분이 첫 내 집 마련이었다. 올해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첫 자가를 구입한 2030대의 73%는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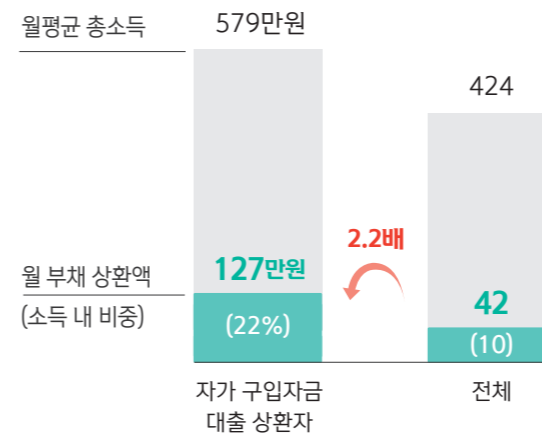
2030대의 자가 구입 비용 내 대출/지원 비중



2030대의 대출 상환 부담



2030대의 자가 구입 시 활용한 대출의 현재 월 상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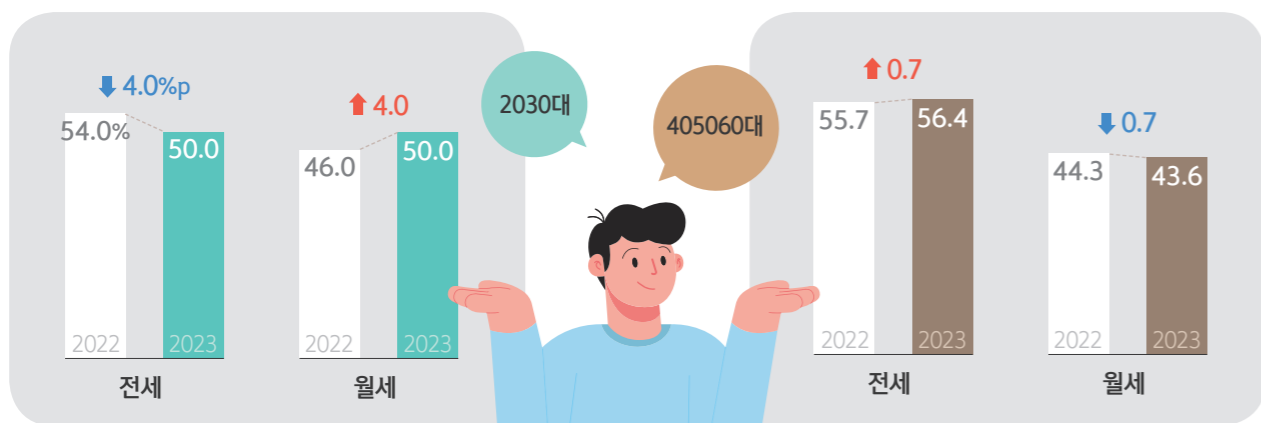
그러나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03 부동산

전월세 거주자의 주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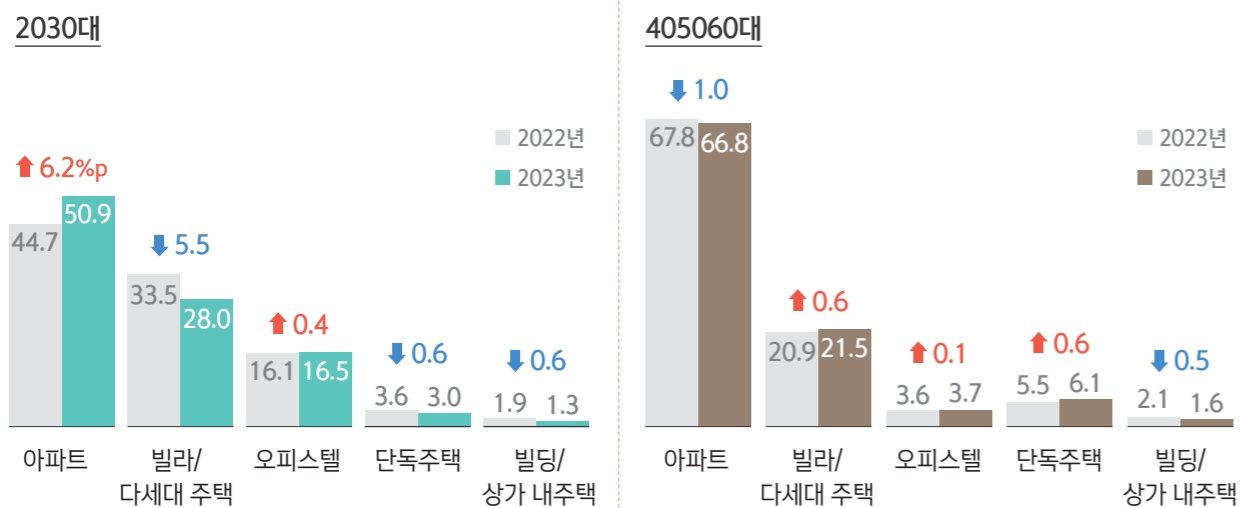
"혹시 나도?" 전세 사기 무서워
보증금 빼고 월세로 돌리는 2030대

거주 형태



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p 줄고 월세 거주자가 4%p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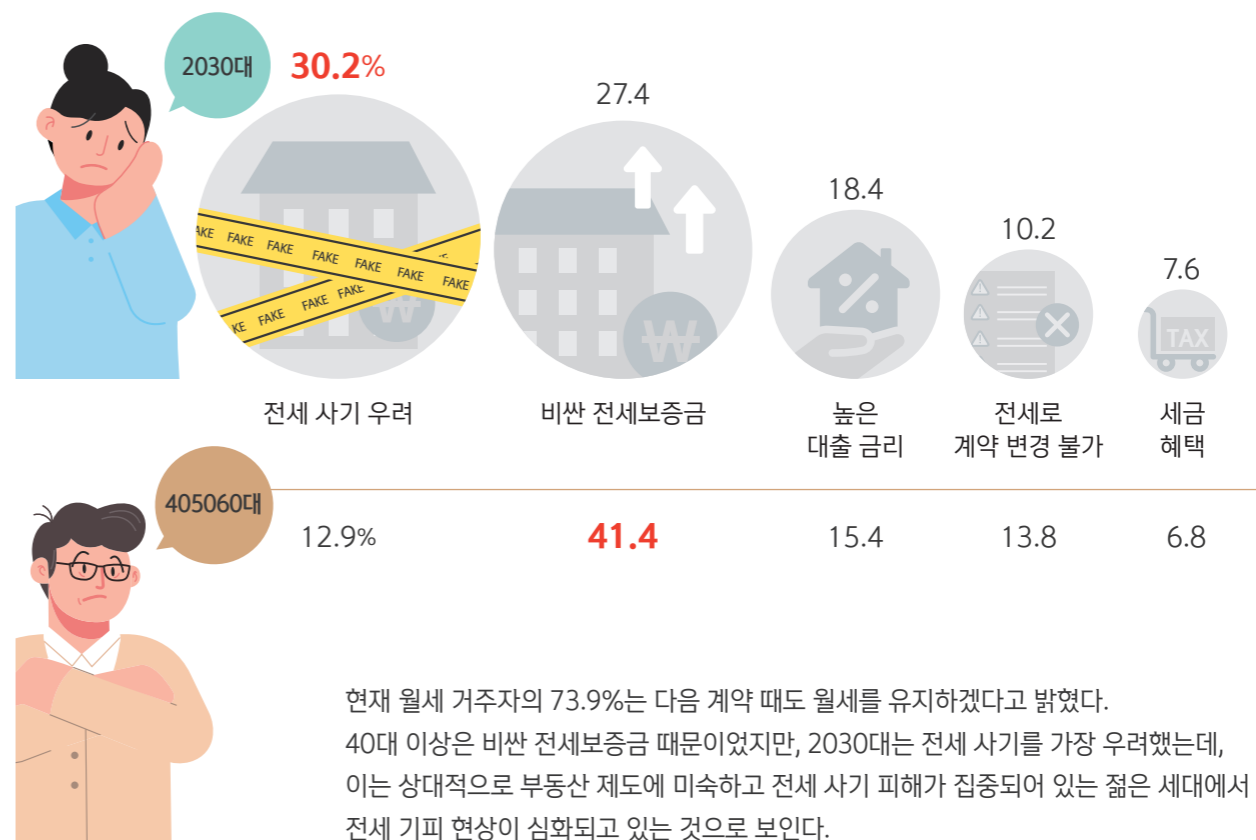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p 증가해 50%를 넘어섰다.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젊은 세대의 첫 보금자리가 되는 빌라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주자의 계약 만기 시 거주 형태 변경 계획



월세 계약 만기 시 월세 유지 계획자의 월세 유지 이유



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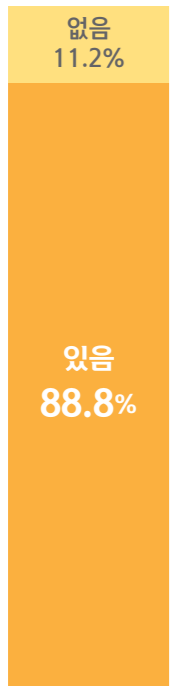


04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은행 밖에서의 은행

퇴근 후, 주말에도 편의점이나 대형 몰에서
쇼핑하듯 즐기는 은행 업무 기대해

은행 방문 시 불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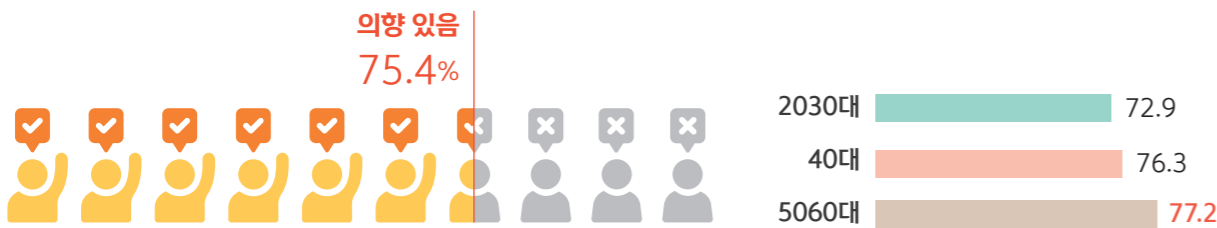
불편 경험 항목 (1+2순위)

	2030대	40대	5060대
긴 대기시간	51.4%	54.1	52.6
영업시간 단축	31.0%	28.7	23.9
상담 창구/직원 수 부족	30.6%	32.8	32.0
점포 축소/폐쇄/이전	17.7%	19.7	24.3
외부 환경 (주차공간 등)	17.7%	21.1	22.0
점포 내 대기공간	9.5%	7.6	8.1
직원의 상담 및 업무처리 불만족	8.1%	9.1	5.3

은행에서 사람들은 어떤 불편사항을 경험했을까?

응답자 대부분이 은행에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주로 긴 대기시간, 영업시간 단축, 상담 창구/직원 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40대 이하는 영업시간 단축을 불편하게 생각한 반면, 50대 이상은 점포 축소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

은행 외 장소에서의 은행 업무 처리 의향



그렇다면 상점, 대리점 등 은행 밖 다른 공간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은행을 방문했을 때 불편 경험이 많았던 만큼 은행이 아닌 장소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의향은 70% 이상으로 긍정적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의향은 더 높았다.

은행 업무를 대신한다면 편리할 것 같은 장소 (복수)



	생활 편의 시설	공공시설	대형 복합 시설	우체국	의료시설	통신사 대리점	금융회사 지점/보험설계사 사무실
2030대	65.4%	34.2	33.9	31.7	17.9	10.9	9.7
40대	68.9%	35.0	29.8	28.2	15.0	13.4	9.8
5060대	69.1%	29.5	28.8	30.3	19.0	18.1	9.6

은행 밖 제 3의 장소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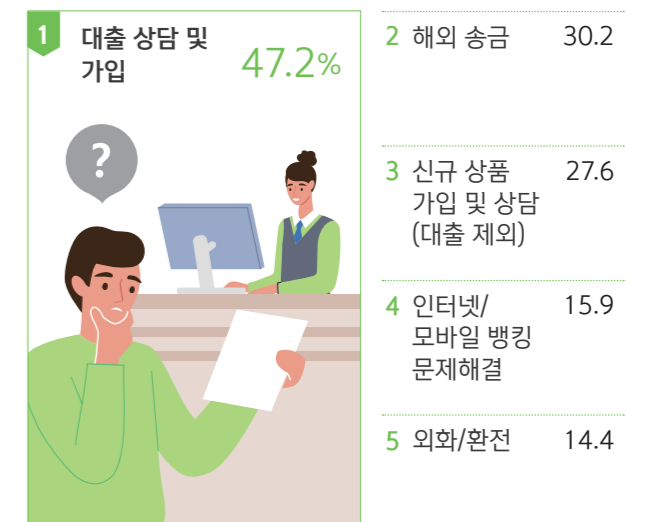
조사 결과 편의점, 마트 등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편의 시설이 1위로 꼽혔으며, 도서관, 구청 등의 공공 시설이 뒤를 이었다. 은행 점포 축소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50대 이상은 편의점, 병원, 통신사 대리점처럼 생활 근거리에서 은행 업무를 해결하고 싶어했다.

반면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을 바라는 2030대는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언제나 방문 가능한 편의점,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복합 시설을 선호했다.

은행 외 장소에서 이용 의향 있는 업무 TOP5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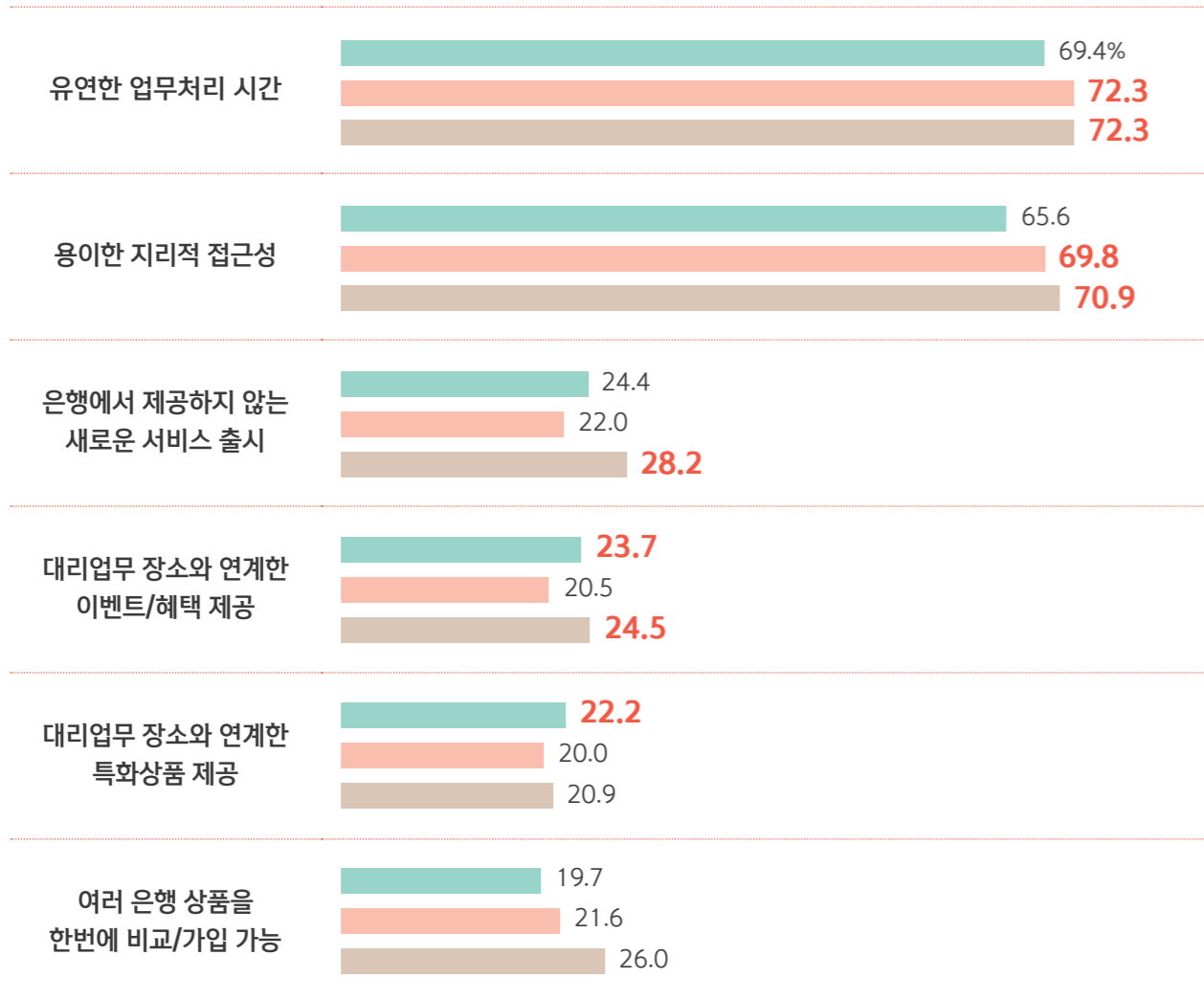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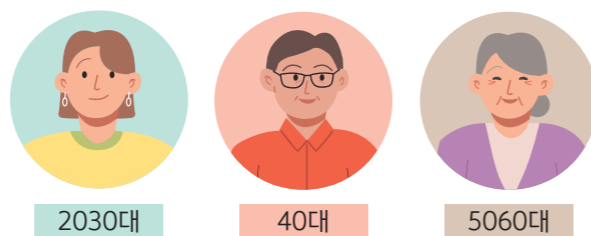
은행 외 장소에서 이용 의향 없는 업무 TOP5 (복수)



은행 외 장소에서는 현금 입출금, 인터넷/모바일 뱅킹 오류 해결, 공과금 납부 등 비교적 간편 업무 중심으로 이용하고자 했다면, 대출 관련 업무나 금융 상품 가입 등 은행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이용할 의향이 없었다.

04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은행 외 장소에서 은행 업무 처리 시 기대사항 (복수)



은행 외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유연한 시간 활용과 용이한 접근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특히 50대 이상은 시간·거리상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등 은행X새로운 장소의 시너지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세대였다.



온라인 플랫폼 × 은행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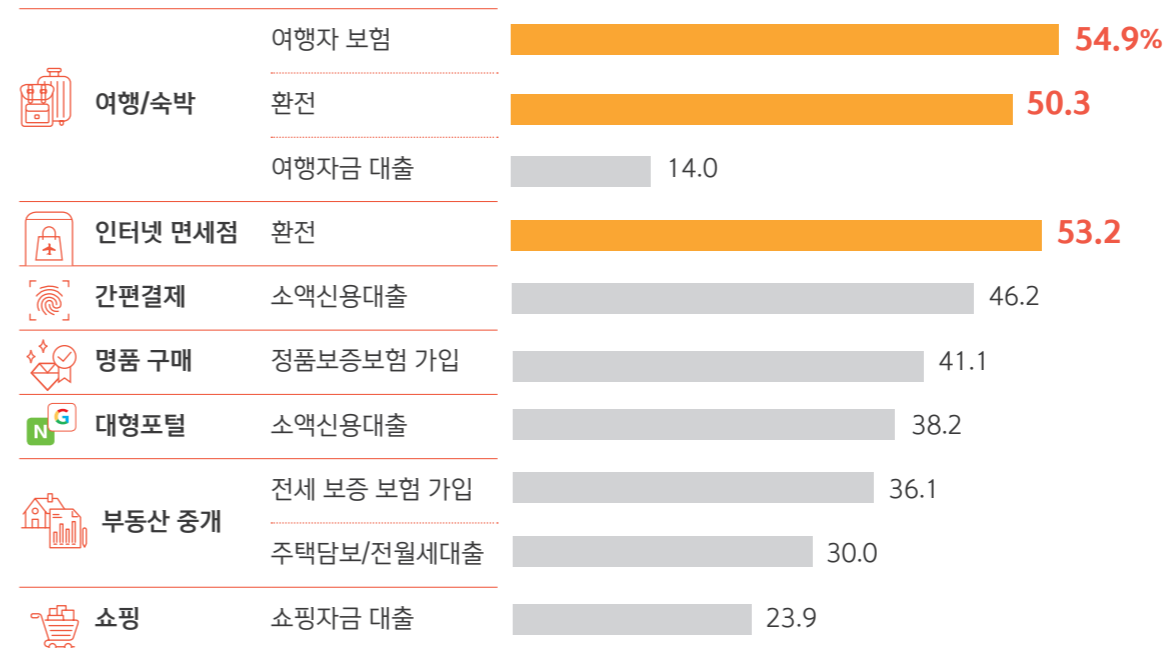
면세품 주문하여 환전까지 한 번에!
여행 관련 앱 × 은행 콜라보를 가장 기대해

은행 앱 외 모바일 앱에서 은행 업무 처리 의향



여행, 명품, 쇼핑 등 전혀 다른 앱에서 은행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50.5%가 은행 앱이 아닌 타 모바일 앱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의향이 있었지만 오프라인(75.4%)보다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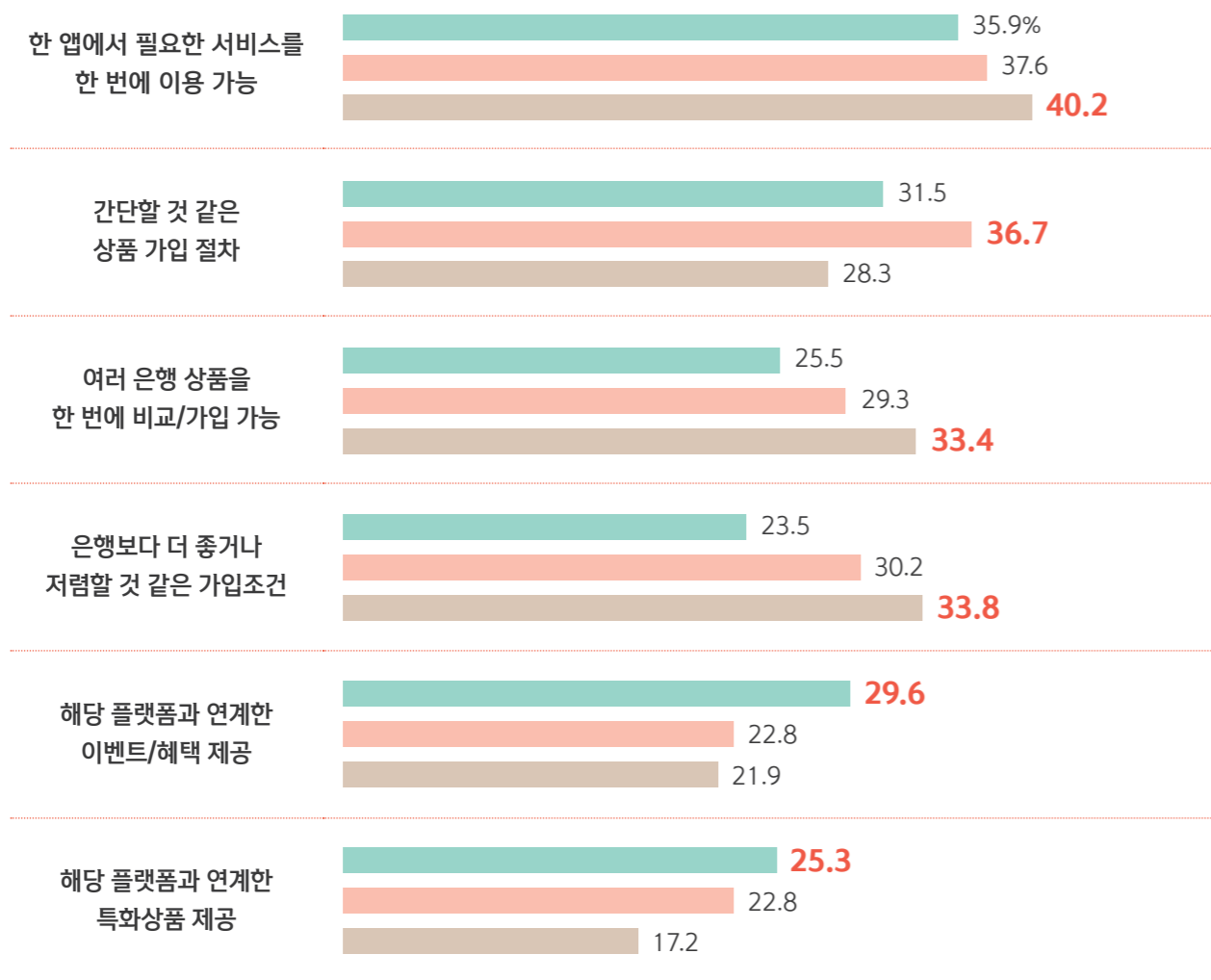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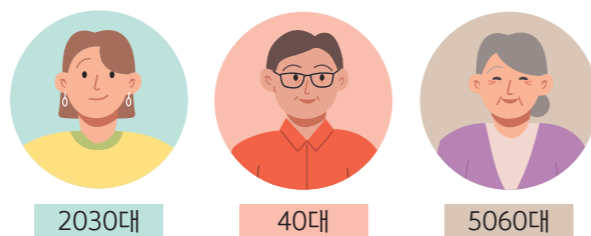
이용 의향자의 플랫폼별 가입 의향



비금융앱에서 여행자 보험이나 환전 서비스 등의 비교적 가벼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입 의향이 있었던 반면, 여행이나 쇼핑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주택담보/전월세대출 등과 같이 민감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향이 낮았다. 하지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간편결제 앱에서는 절반 정도가 소액신용대출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과 연계된 앱에서는 수용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04 고객 속으로 다가가는 은행

생활플랫폼/앱에서 금융 연계 시 기대사항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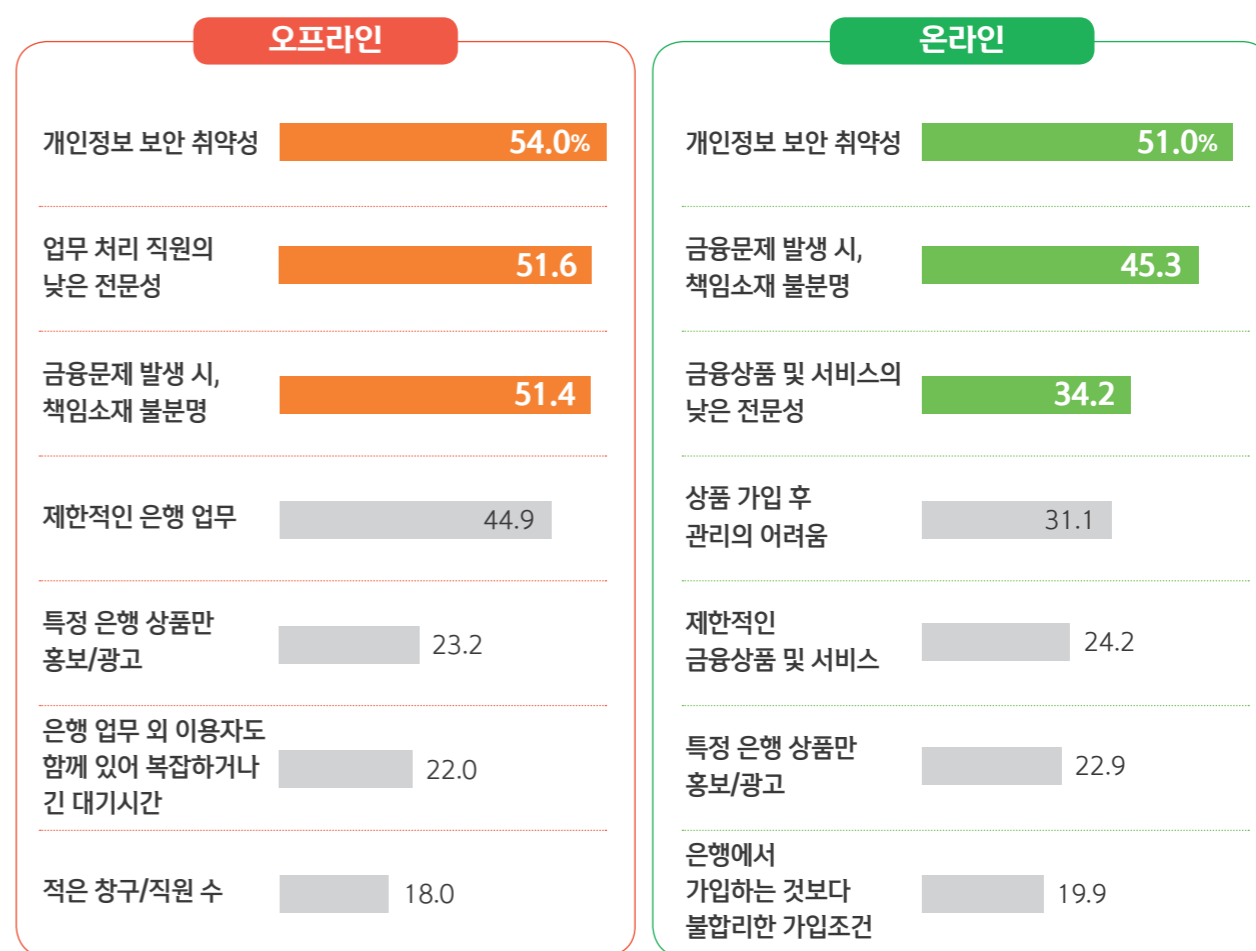
비금융앱에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기대했다. 연령대별로 2030대는 해당 플랫폼과 연계한 이벤트/혜택이나 특화상품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40대는 상품 가입 절차의 간편성, 50대 이상은 여러 은행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성과 기존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은행 외 장소/앱에서 은행 업무 처리 시 우려사항

개인정보 보안과 문제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소재는 온·오프라인의 공통적인 우려사항

은행 외 장소에서의 은행 업무 처리 시 우려사항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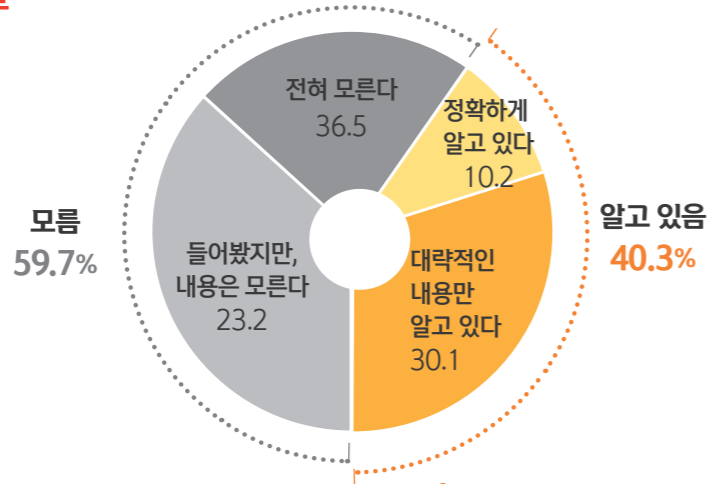


은행 외 장소에서 은행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안 취약성, 업무 처리 직원의 낮은 전문성, 문제 발생 후 책임소재 불분명을 가장 우려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 은행 외 장소에서 민감한 금융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기존 은행의 모습을 탈피해 온·오프라인에서 고객에게 더 다가갈수록 고객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20대와 시니어 세대는 전통적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신개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은행 밖의 은행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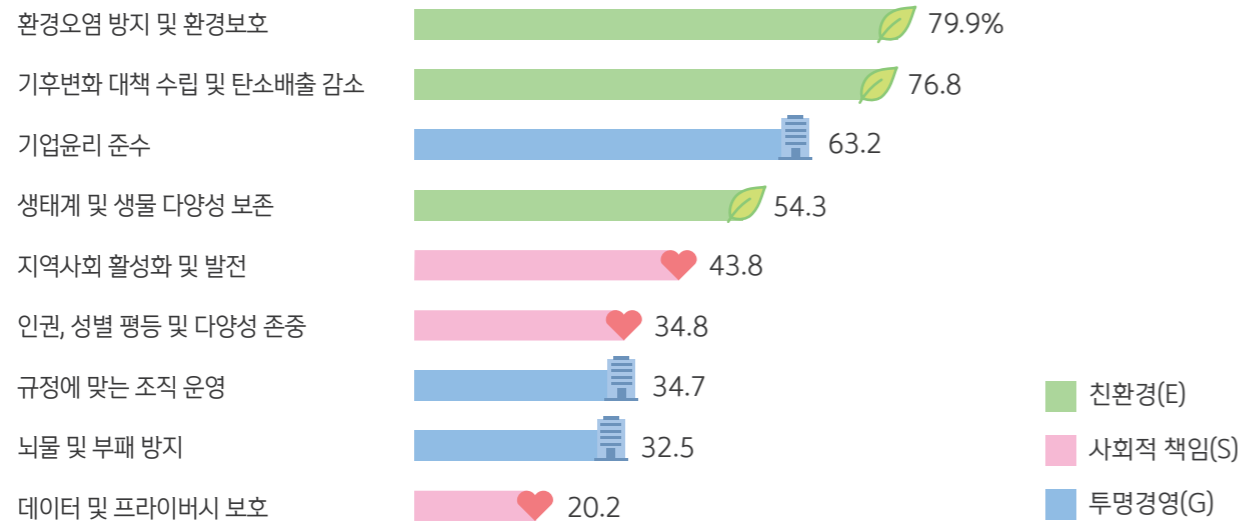
ESG 개념 인식

"ESG는 친환경"
제한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어

'ESG' 개념 인지 여부



ESG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는 항목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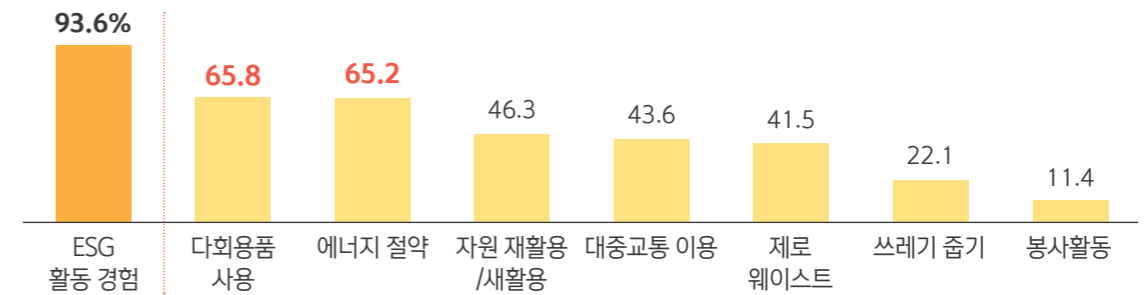


'ESG'는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경영(G)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뜻을 몰랐고, 알고 있더라도 친환경에 국한된 의미로 인식했다. 10명 중 4명이 ESG를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으며, ESG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 기후변화 등 친환경(E)과 관련이 높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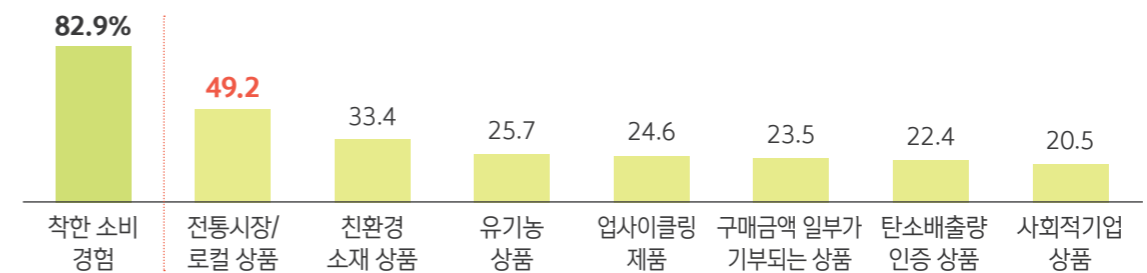
개인의 ESG 활동 현황

일상 속 ESG 실천 활성화,
향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할 전망

2023년 ESG 활동 경험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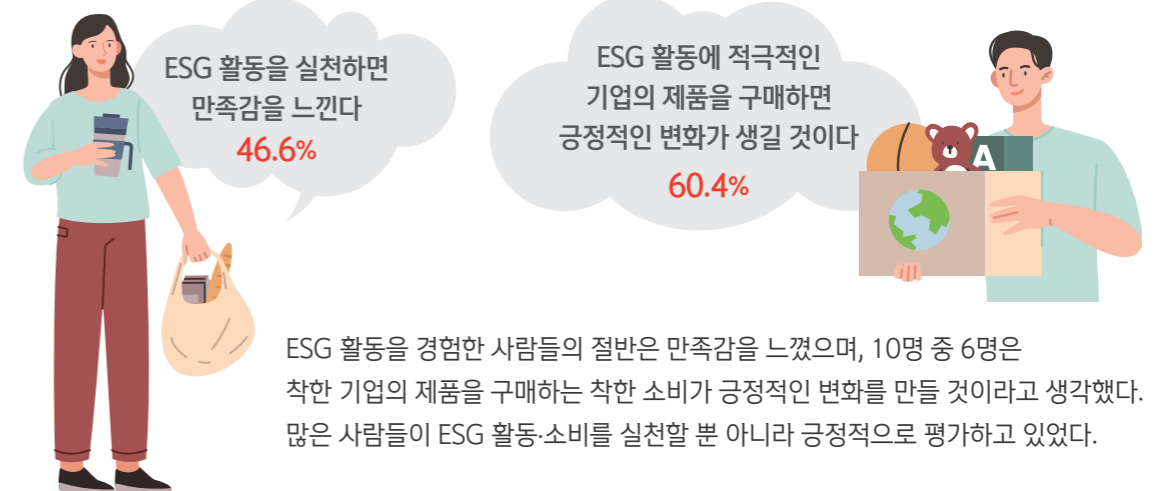


2023년 착한 소비 경험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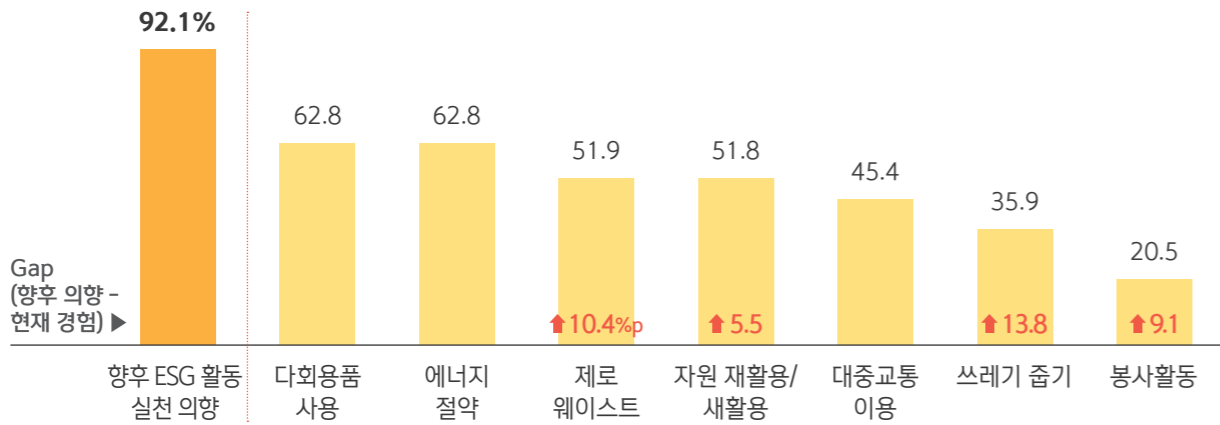
ESG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친환경 활동, 착한 소비 등 ESG 취지가 담긴 활동은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ESG 활동 실천률은 93.6%로, 주로 다회용품 사용, 에너지 절약 등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했다. 로컬 상품, 친환경 소재 상품 등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 경험 역시 80% 이상으로 높아, 소비에서도 ESG를 실천했다.

ESG 활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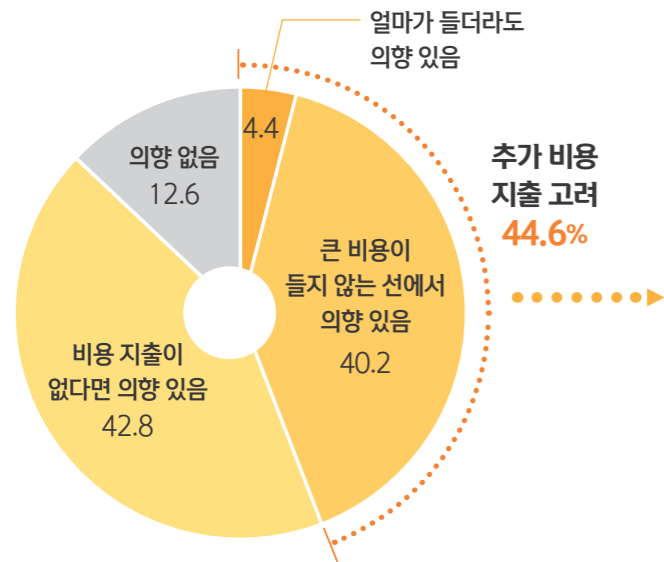
05 ESG

향후 ESG 활동 실천 의향 (복수)



90% 이상의 사람들은 향후에도 ESG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 응답해, 개인의 실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일상적인 행동뿐 아니라 쓰레기 줄기, 제로웨이스트, 봉사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까지 관심을 보여, 개인의 ESG 활동 영역은 보다 넓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향후 착한 소비 실천 계획



착한 소비로 추가 지출 가능한 비용



착한 소비도 10명 중 9명은 실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은 추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하고 있어 착한 소비 실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 상품 구매 시 4천원, 10만원 상품 구매 시 1만 6천원이었다.

기업, 은행의 ESG

은행은 사회공헌 중심으로 ESG를 실천한다고 인식, ESG 금융상품 가입에도 호의적

ESG 실천 주체

70.9%
기업이 실천하는 것이다



40.3%
개인이 실천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ESG 활동 Top3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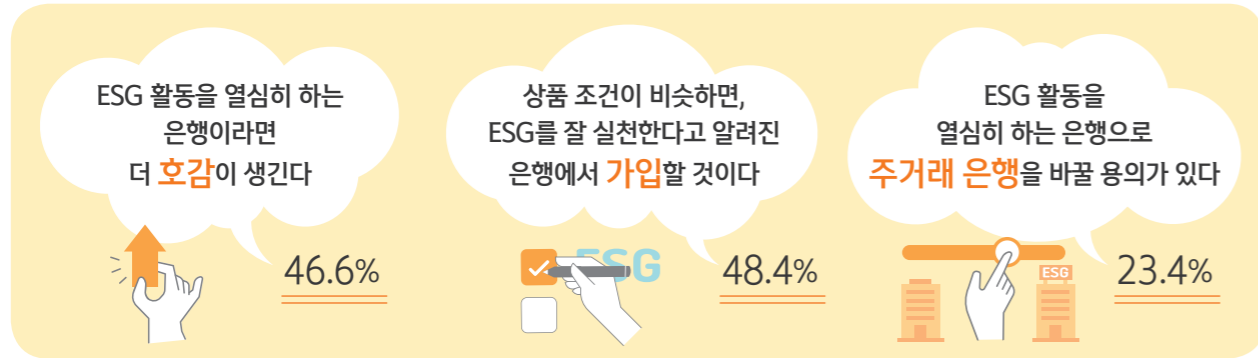
구분	자동차업	공기업	바이오/헬스	IT업	금융업
1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자원 절약/재활용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사회공헌 활동 (취약계층 보호, 기부 등)
2위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3위	자원 절약/재활용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자원 절약/재활용	자원 절약/재활용	자원 절약/재활용

🌿 친환경(E) ❤️ 사회적 책임(S)

개인적인 ESG 활동 수준이 높았던 것과 별개로, 사람들은 ESG를 개인보다는 기업이 실천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실제 국내 각 분야의 기업은 친환경 제품/서비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대부분 친환경(E)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금융 기업은 타 분야와 달리 취약계층 보호, 근로조건 보장 등 사회적 책임(S) 위주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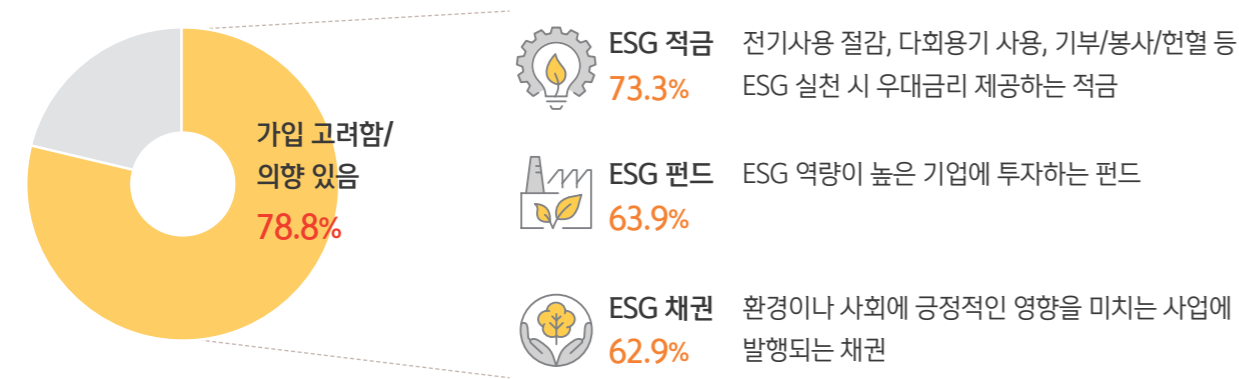
05 ESG

은행의 ESG 활동에 따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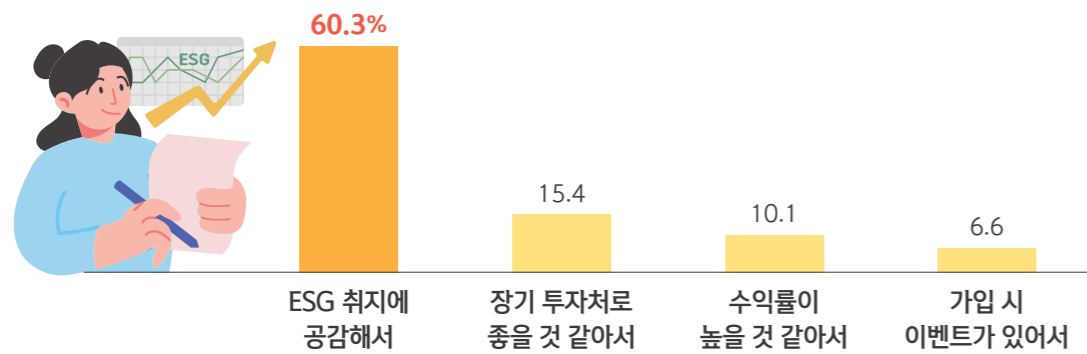


은행의 ESG 경영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상품 가입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등 은행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정도의 강력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은행 및 상품 선택에 있어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입 고려/의향 있는 ESG 금융상품 (복수)



ESG 금융상품 가입 의향 있는 이유 TOP4



10명 중 8명은 ESG 취지가 담긴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했고, ESG 실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는 장기적 투자처, 수익률 등의 조건보다는 ESG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ESG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2023년 보통사람 기획 분석

1. 직장인 복지	66
2. 소셜라이징	72
3. 경조사	74

01 직장인 복지

“ 한국 직장인들은 연봉이 최우선 ”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 1순위

	연봉	워라밸	복지	회사의 비전	개인의 성장 가능성	회사 규모/인지도
Z세대*	48.3%	26.0	9.7	5.9	5.5	4.6
M세대	48.9%	25.2	6.9	7.2	6.9	4.9
X세대	51.1%	18.9	11.2	8.3	5.5	5.0
베이비부머세대	41.6%	15.9	16.8	9.8	13.1	2.8

임금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세대 불문 연봉이었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 세대의 응답률이 25% 로 높았다.

직장생활을 오래한 베이비부머세대는 복지, 개인의 성장 가능성, 회사의 비전을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고려해 세대간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세우며 구직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의 '보통사람' 직장인들은 현재 어떤 복지제도를 누리고 있을까?

그리고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연봉과 워라밸을 일부 희생할만큼 중요한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았다.

* 세대 구분

Z세대  20~28세(1995~2003년생)	M세대  29~43세(1980~1994년생)	X세대  44~58세(1965~1979년생)	베이비부머세대  59~64세(1959~1964년생)
--	--	---	--

“ 직장인들이 뽑은 최고의 복지는?
우리는 모두 오래(정년보장) 자유롭게(유연근무제) 일하고 싶어요...! ”

국내 기업에서 실행하는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복지 종류

근무 자율성/지속성	생산성 향상	경제적 지원	자기계발/여가 지원	가족 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자율선택제 ✓ 유연/탄력 근무제 ✓ 유연한 휴가 사용 (반반차/시간제 등) ✓ 장기 근속 포상 (휴가, 축하금) ✓ 정년 보장 ✓ 패밀리데이 (주/격주/월 1회 조기퇴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근 업무비 지원 (식대, 택시비 등) ✓ 사내카페 (커피, 간식 제공) ✓ 자율복장 ✓ 수평적 관계 문화 (호칭 등) ✓ 구내식당 ✓ 사내 임직원 전용 병원 ✓ 통근 버스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본인/자녀) ✓ 사내 대출 지원 ✓ 교통비 지원 ✓ 통신비 지원 ✓ 사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동호회 운영 ✓ 강의/교육비 지원 ✓ 휴양시설 지원 (리조트, 호텔 등) ✓ 자기계발 목적 휴직 (학업, 유학 등) ✓ 복지물 운영/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배우자 출산휴가 ✓ 본인/배우자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내 어린이집 운영

선호하는 복지 (1+2+3순위)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복지제도, 없다면 절대 안돼요

장기 근속 포상 정년 보장	유연한 휴가 사용 유연·탄력 근무제
Z세대 ✓ 사택 제공 ✓ 교통비 지원 ✓ 근무지 자율 선택제	M세대 ✓ 학자금 지원 ✓ 사내 대출 지원 ✓ 자기계발 목적 휴직
X세대 ✓ 학자금 지원 ✓ 패밀리데이 ✓ 휴양시설 지원	베이비부머세대 ✓ 통신비 지원 ✓ 교통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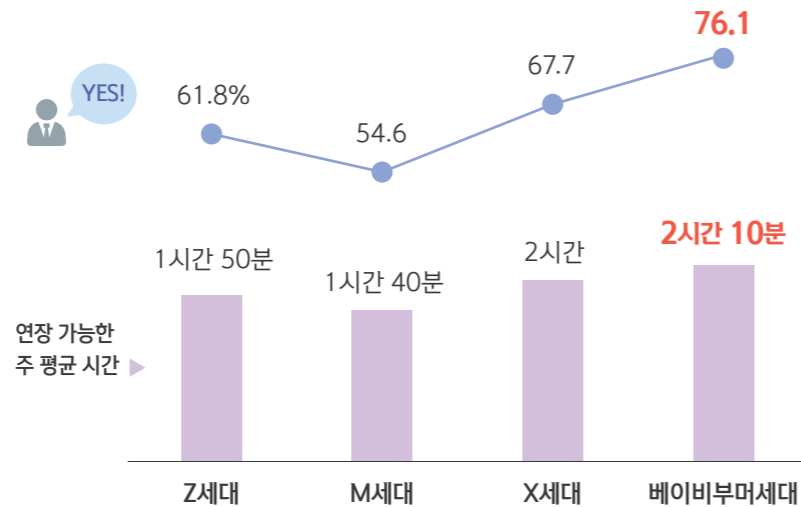
모든 세대에서 정년 보장, 장기근속 포상, 유연한 휴가 사용 등 '근무 자율성/지속성' 복지를 가장 선호했다.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복지 외에도 경제적 지원, 자기계발/여가 지원 등 각 세대별로 선호하는 복지는 조금씩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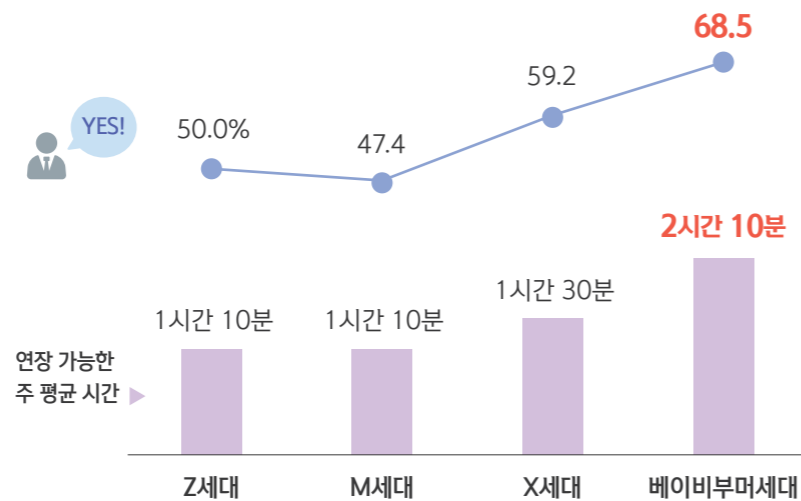
01 직장인 복지

선호하는 복지를 위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정년 보장이 된다면?



장기 근속 포상이 주어진다면?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보장과 장기 근속 포상이 제공된다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베이비부머세대가 가장 많이 동의했다.

특히 정년이 다가오는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정년을 보장하면 근무 시간을 연장하려는 의향이 컸다.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면 주 평균 2시간 이상 더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해,

경제적 보상과 고용 안정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장기 근속 포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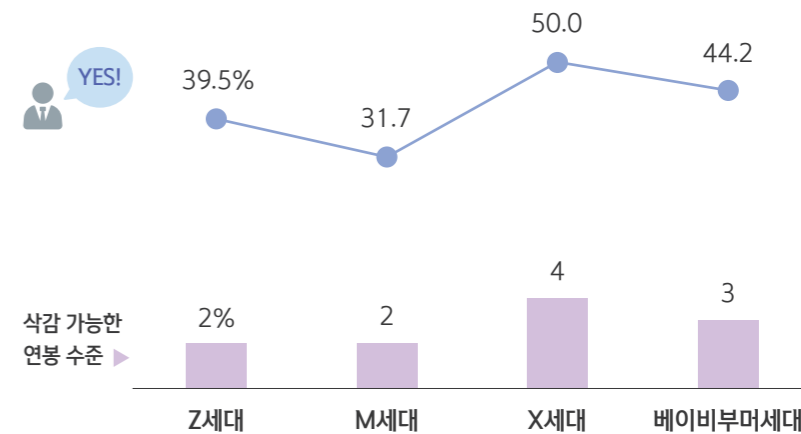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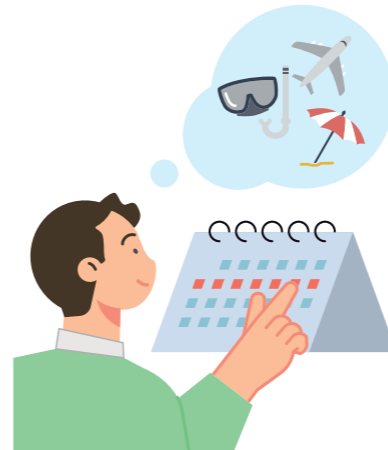
저연차의 Z세대보다는 고연차의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연장 근무 동의율이 높았다.

Z세대는 1시간 10분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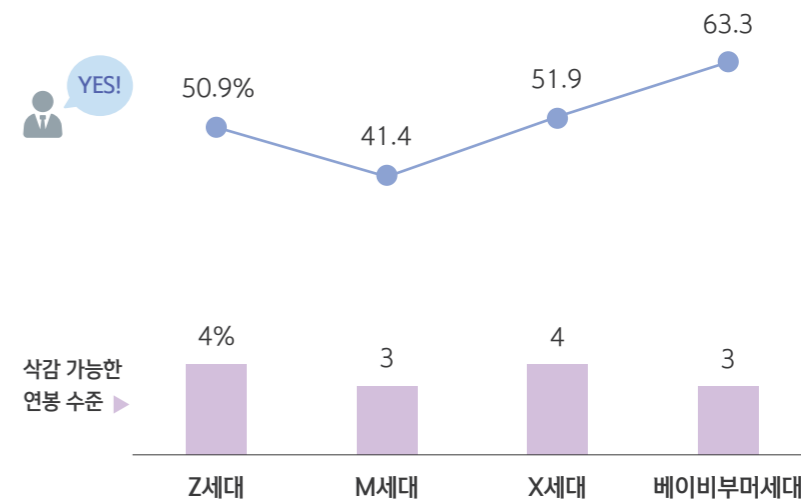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세대는 그보다 1시간 더 긴 2시간 10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복지를 위해 연봉을 삭감할 수 있을까?

휴가 사용이 자유로워진다면?



유연/탄력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근로환경을 위한 유연한 휴가 사용, 유연/탄력 근무제가 제공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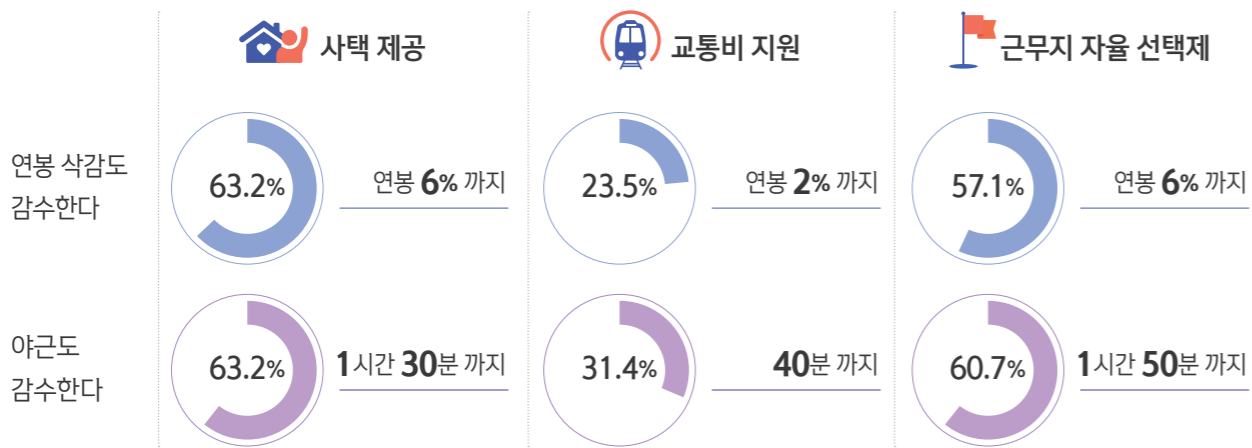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휴가 사용보다 유연/탄력 근무제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세대별로 연봉 삭감에 동의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두 복지에 대해서 모두 연봉의 2~4%를 깎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01 직장인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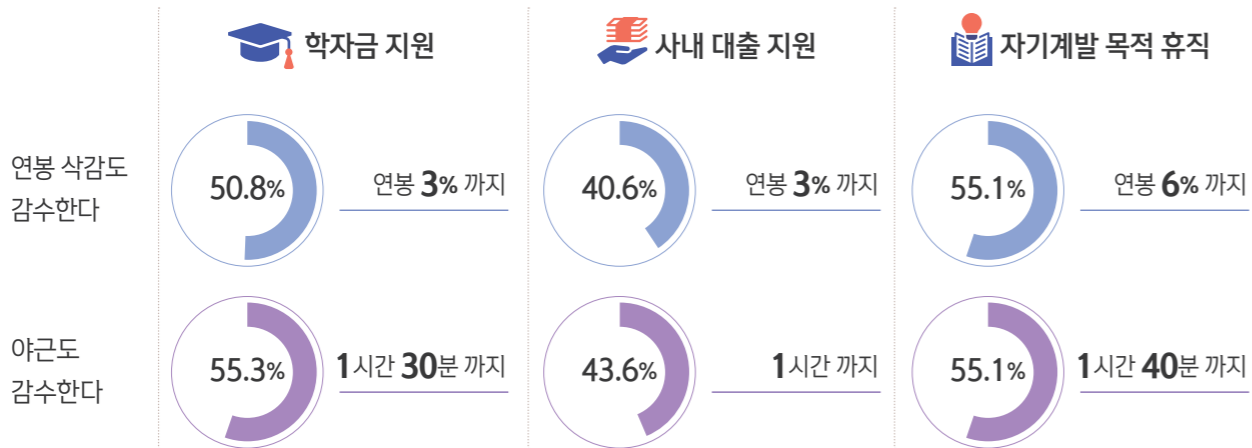
“ 사택이 제공된다면 더 일하겠다는 Z세대 직장인 ”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복지 외에 각 세대가 선호하는 복지가 제공된다면, 연봉과 연장 근무를 어느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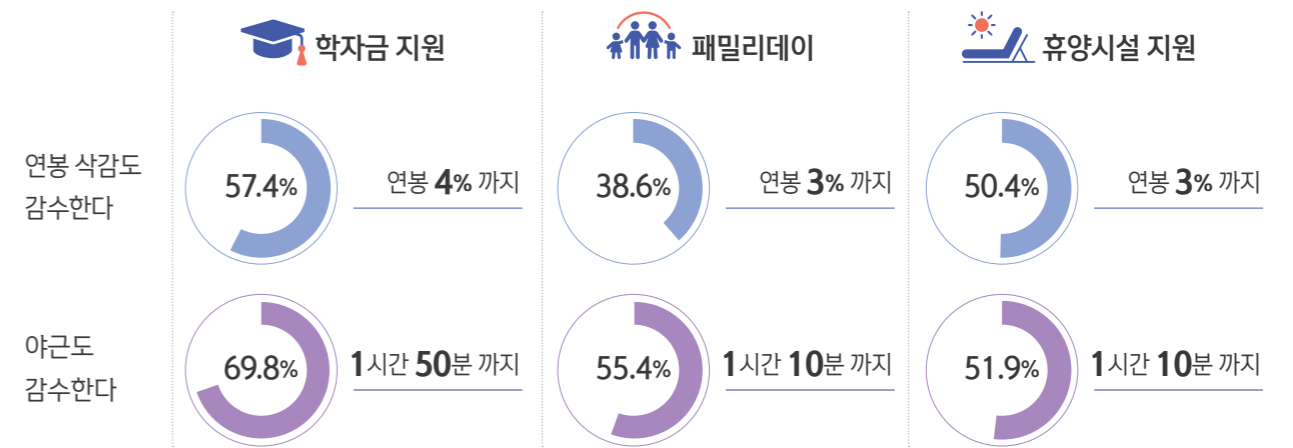
Z세대는 다른 세대 대비 주거환경이 불안정해 사택을 통해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택이 제공된다면 10명 중 6명은 연봉의 6%까지 삭감하고, 주 평균 1시간 30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2~3명만 연봉 삭감에 동의해 상대적으로 니즈가 적었다. 더불어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시간뿐 아니라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 목돈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M세대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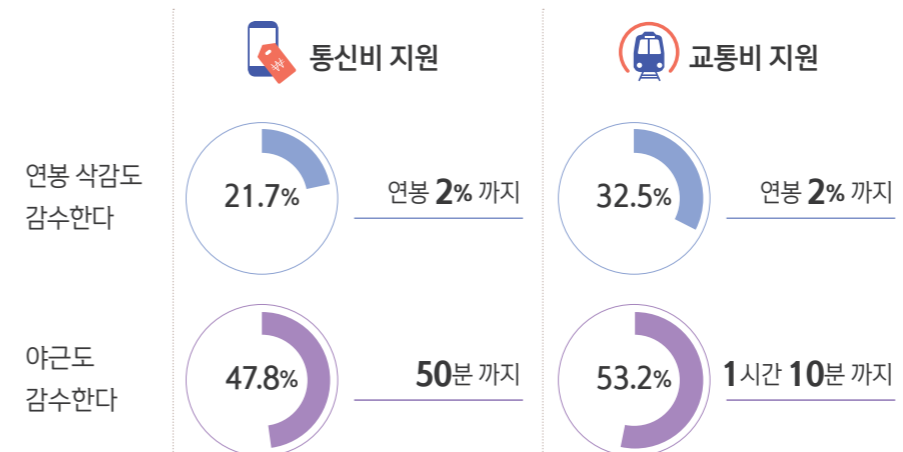
M세대는 이사, 결혼, 출산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회사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학자금이 지원된다면 M세대의 절반이 연봉을 삭감하거나 근무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자기계발 목적 휴직이 제공된다면 학자금 지원보다 더 많은 연봉 삭감과 연장 근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자기계발에 대한 니즈도 높았다.

“ 본인과 가정 모두 챙기는 일거양득 복지를 바라는 X세대 직장인 ”



X세대는 회사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여가를 보내려는 니즈가 있었다. 특히 학자금 지원에 대한 연봉 삭감과 연장 근무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감수할 수 있는 수준도 높아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까워진 퇴직에 생활비 지원을 선호하는 베이비부머세대 직장인 ”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세대는 정년 보장, 장기 근속 포상 외에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생활비 지원을 원했다.

교통비와 통신비를 지원해준다면 연봉 삭감보다는 연장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장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은 1시간 내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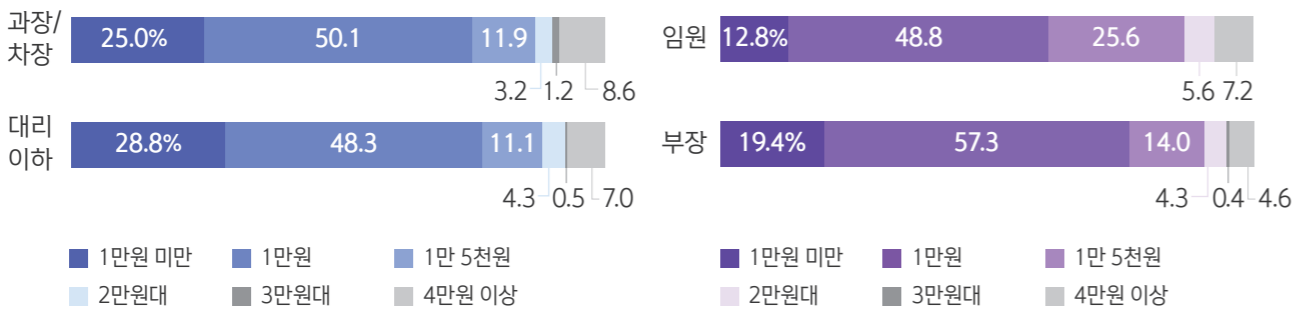


02 소셜라이징

“ 직장 상사 또는 후배와의 점심 식사, 누가 계산을 해야 할까? ”



적절한 점심 식사 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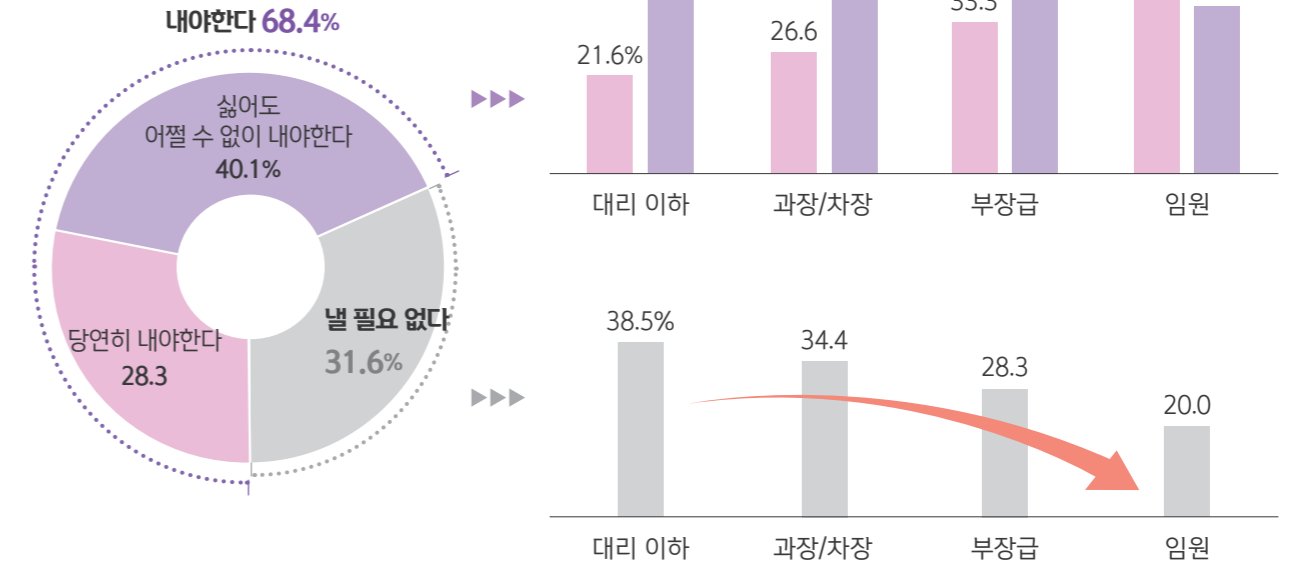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거나 더치페이를 하는 등 점심값을 함께 내고자 했다.

그렇다면 점심을 후배에게 사주거나 상사에게 얻어먹는다고 했을 때 식사 비용은 얼마나 적절할까? 임원/부장의 절반 정도가 후배에게 1만원 정도의 밥을 사줄 의향이 있었고, 후배가 상사에게 얻어먹을 때도 1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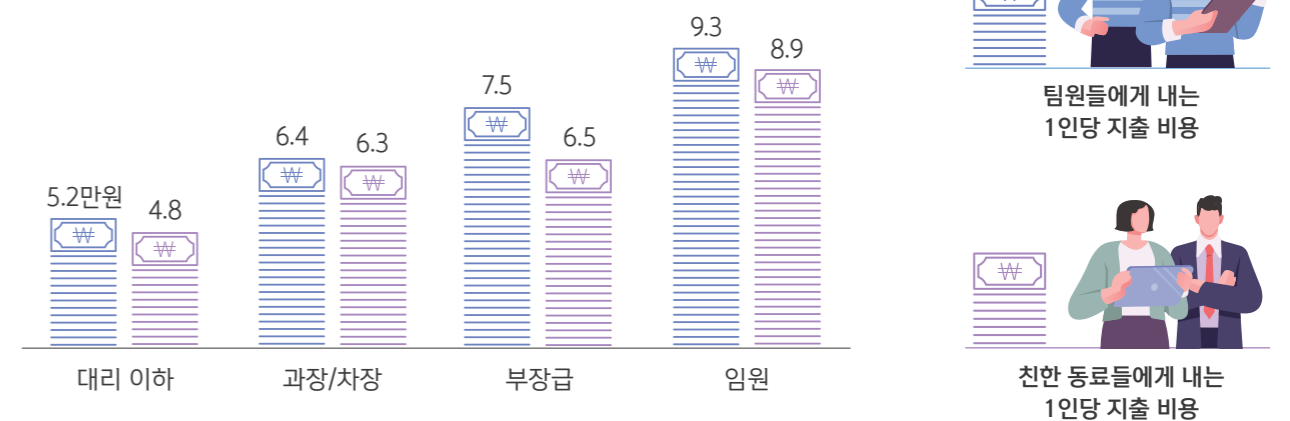
직장에서 점심을 상사 또는 후배와 먹을 때는 1만원 내외 음식을 먹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요즘에도 승진턱을 내야할까? ”

승진턱 지불 인식



승진턱을 낸다면 1인당 지출 비용



직장인의 과반이 승진턱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직급이 낮을수록 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임원은 승진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반면, 부장 이하는 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직급 간 차이가 있었다.

직급이 높을수록 승진턱으로 지불하려는 금액 또한 컸는데, 직급에 따른 임금과 지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직급에서 친한 동료보다는 팀원에게 지출하려는 금액이 더 컸는데,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팀원에게 더 베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사 또는 후배와의 점심값을 1만원 내외로 생각하는 것에 반해 승진턱은 5~9만원대를 고려하고 있어 승진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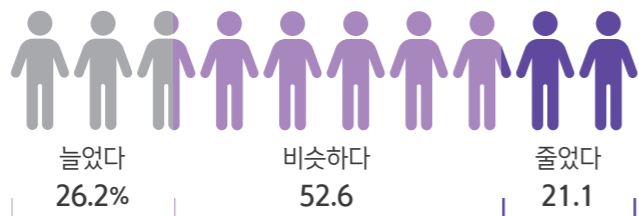
03 경조사

“ 경조사 꼭 참석해야 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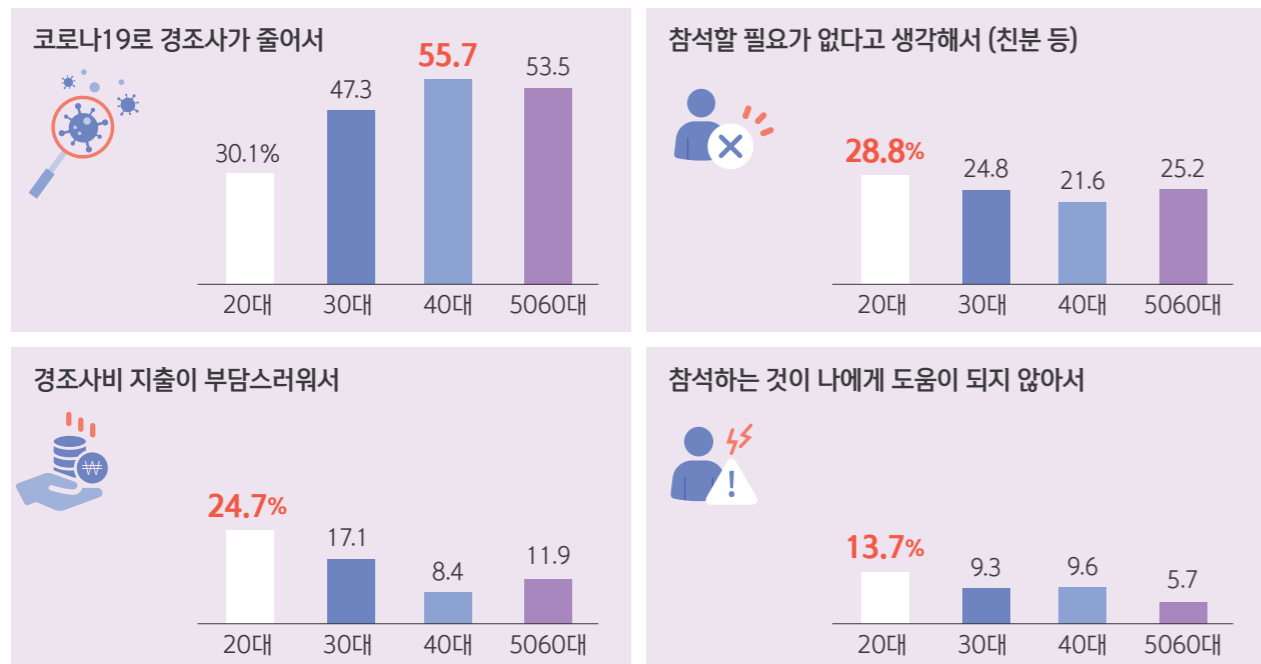
최근 1년 내 경조사 참석 여부



이전 대비 경조사 참석 횟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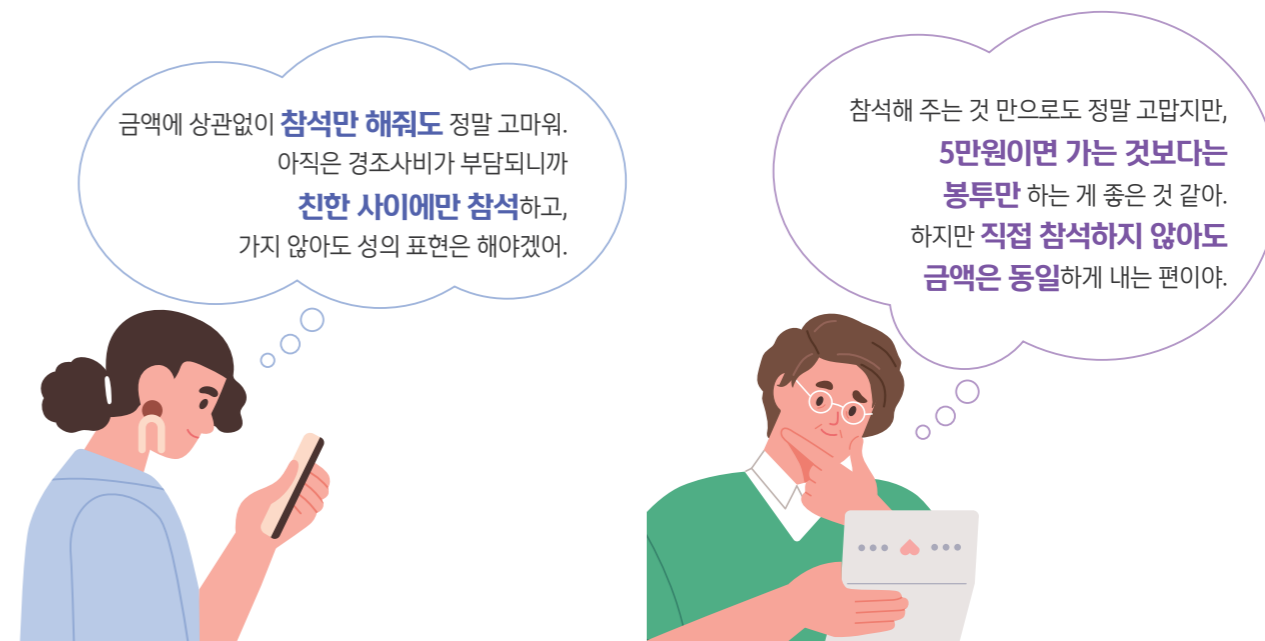


경조사 참석이 줄어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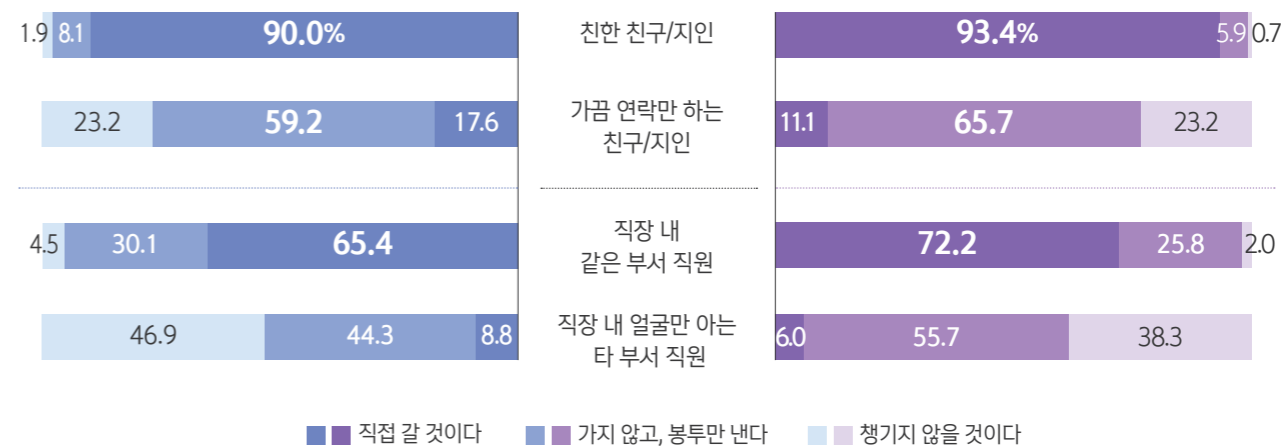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참석 횟수가 많았다.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가족 등을 챙겨야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2명은 이전보다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가 줄었다.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20대는 참석할 만큼의 친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경조사 참석에 대한 인식



경조사 참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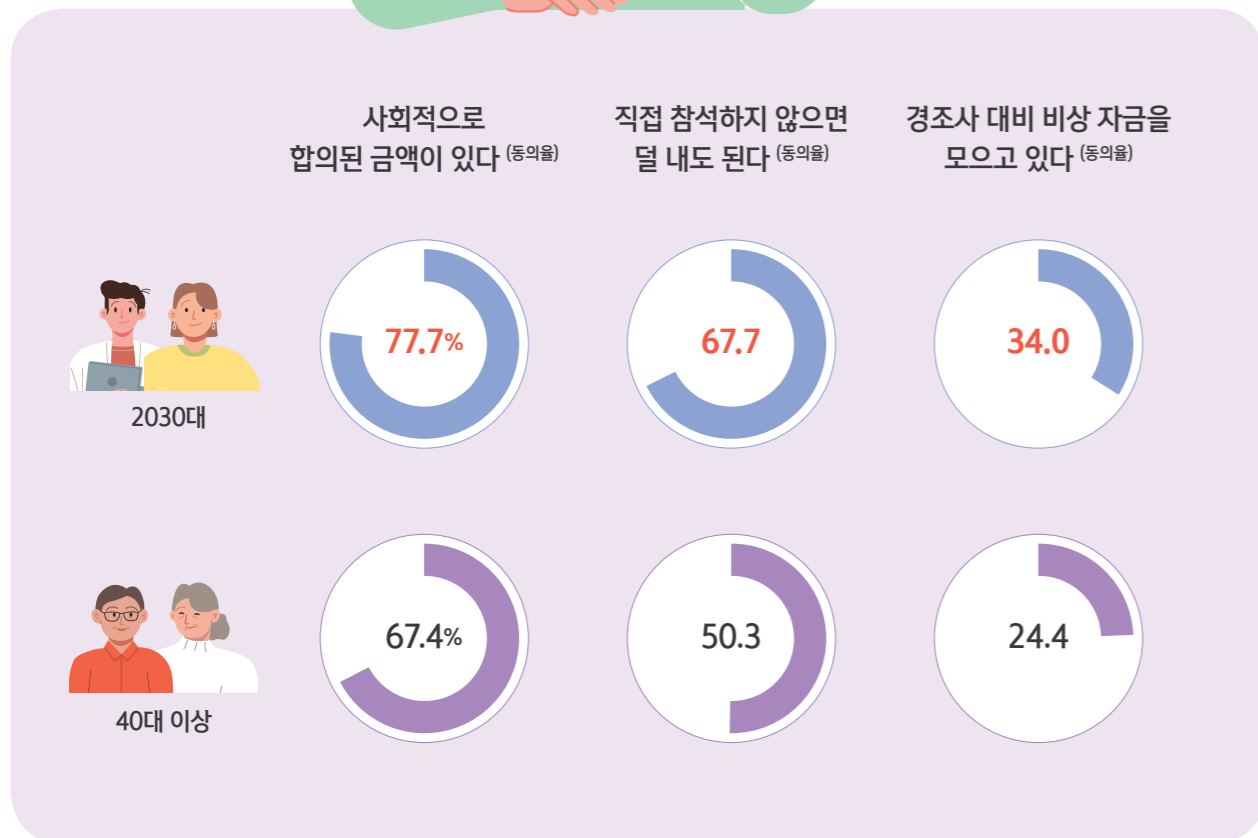


2030대는 경조사로 챙겨주는 액수보다는 참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한편 40대 이상은 적은 금액을 낸다면 참석하기보다는 봉투만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친분 정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지인의 경조사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직접 참석하려 했다. 가끔 연락만 하는 친구/지인의 경조사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3%는 챙기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친한 친구나 직장 내 같은 부서 직원과 같이 자주 보는 사이일수록 직접 참석한다고 응답해, 지인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친분에 따라 챙겨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03 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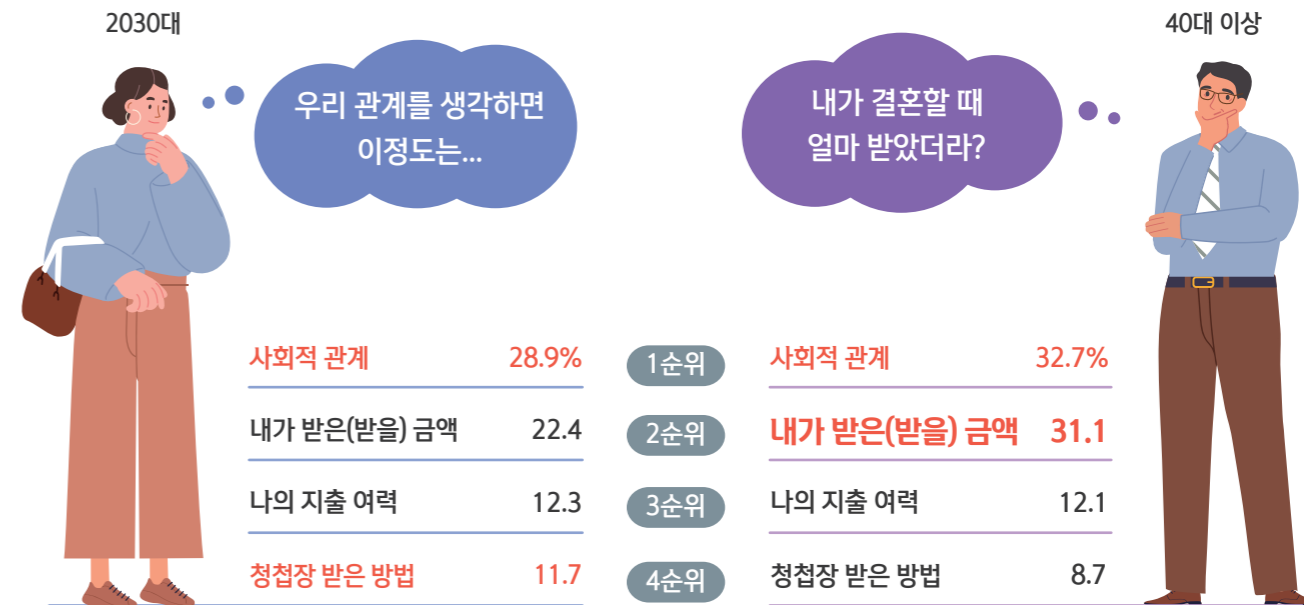
“ 경조사에는 얼마를 내야할까? ”

경조사 비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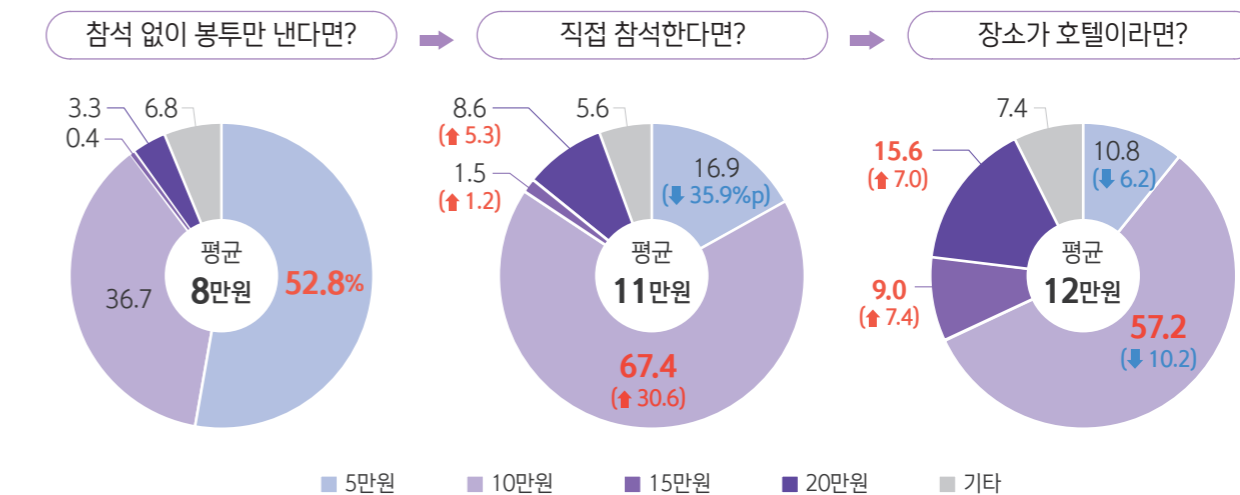


경조사 비용을 정할 때는 사회적 합의,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다.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그 기준을 더 고려해 경조사비를 정했고, 2030대의 1/3은 경조사비 지출을 대비해 비상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다. 이러한 경조사 비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결혼식 축의금을 정하는 데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혼식 축의금 액수 결정 기준



지인이 결혼한다면 축의금은 얼마 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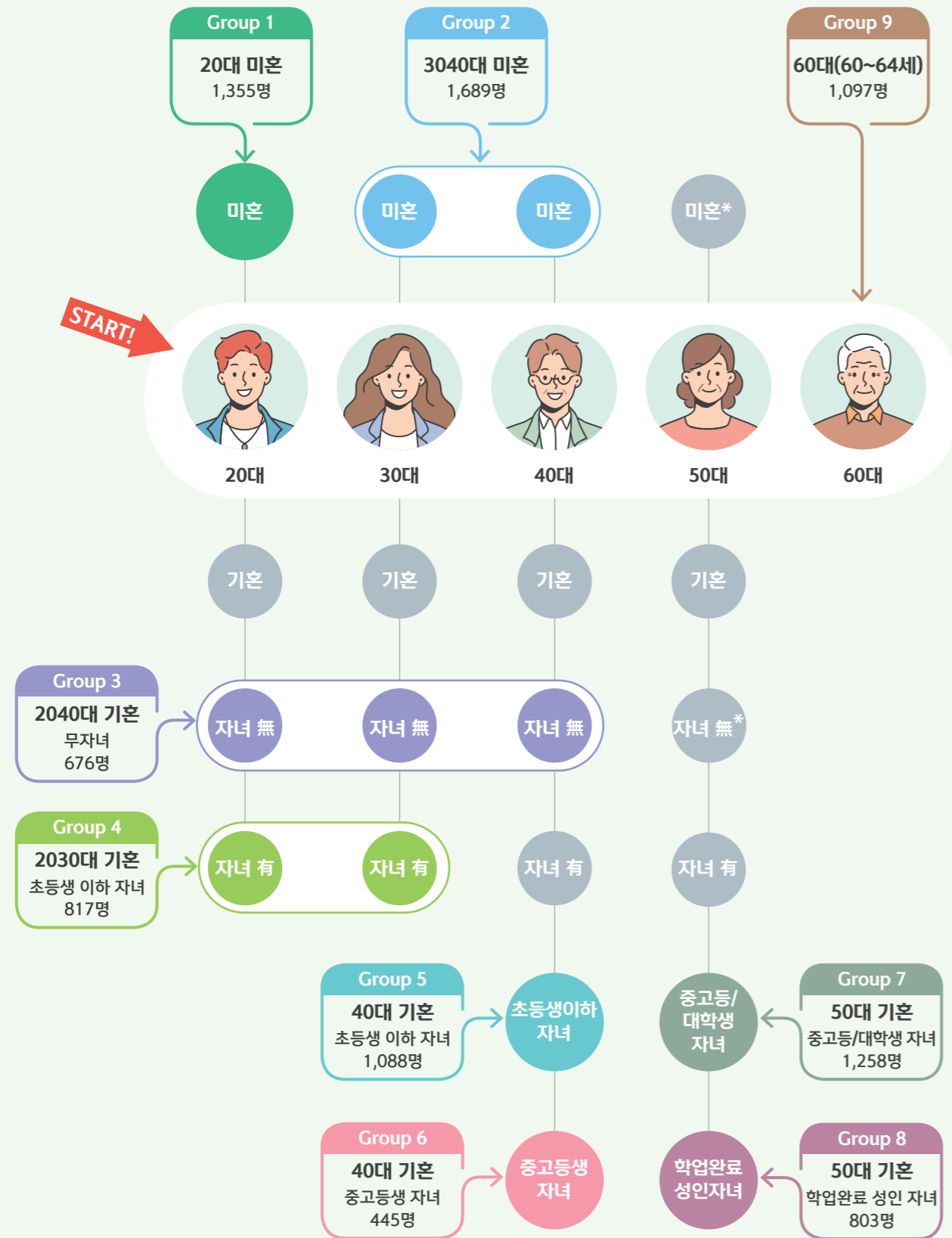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식 축의금의 액수는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2030대는 청첩장을 받은 방식에 따라, 기혼자가 많은 40대 이상은 내가 받은 금액만큼 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결혼식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내고자 하는 액수는 비슷했다.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않고 봉투만 보낸다면 5만원을, 결혼식에 직접 참석한다면 10만원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호텔에서 열린다면 15만원 이상까지도 낼 의향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 비용을 고려해 더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Life Stage별 금융생활

Group 01 20대 미혼	82
Group 02 3040대 미혼	84
Group 03 2040대 기혼 무자녀	86
Group 04 203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88
Group 05 4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90
Group 06 40대 기혼 중고등생 자녀	92
Group 07 50대 기혼 중고등/대학생 자녀	94
Group 08 50대 기혼 학업완료 성인 자녀	96
Group 09 60대(60~64세)	98

Life Stage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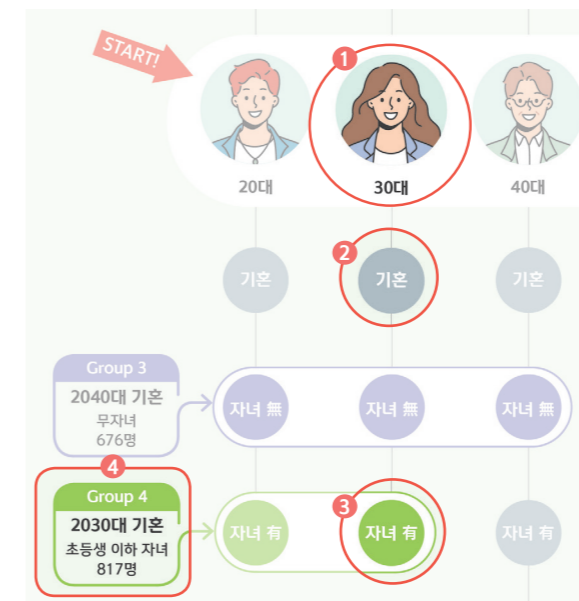
조사대상 총 1만명 중 기타 Group 7.7%(772명)은 본 분석에서 제외
 2030대 중학생 이상 자녀 (21명) | 40대 대학생 이상 자녀 (109명) | 50대 미혼 (356명)
 50대 기혼 무자녀 (126명) | 50대 초등학교 이하 자녀 (160명)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름 : 김보통 (여자, 36세)
 직업 : 중소기업 과장
 월평균 가구 총소득 : 445만원
 가족 구성 : 본인,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1명
 관심사항 : 아파트 구입

STEP 1. “나”의 그룹 확인



- 1 연령
- 2 결혼유무
- 3 자녀유무
- 4 자녀나으로 그룹 확인

Group 4
 203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817명 → p.88

STEP 2. “나”의 소득 구간 확인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소득분포 현황	보유자산	부채 잔액	서비스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인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1구간 하위20%	314	소비/지출 196 62.4% 부채상환 59 18.8% 저축/투자 48 15.3% 예비자금 11 3.5%	총자산 3억 5,492 금융 3,215 부동산 30,125 기타 2,152	8,244	68 88%	18 79%	20 87%	15 91%	33 37%	20 34%	16 45%	11 47%	24 31%	28 63%	14 60%
2구간	458	소비/지출 244 53.3% 부채상환 62 13.5% 저축/투자 70 15.3% 예비자금 82 17.9%	총자산 5억 2,954 금융 4,122 부동산 44,337 기타 4,495	9,458	78 83%	21 81%	25 93%	16 91%	32 29%	18 38%	18 37%	13 40%	23 33%	34 67%	21 50%

전반적 금융생활 확인

본인 소득구간 혹은 한 단계 위 소득구간 비교

세부 소비 현황 확인

관심 항목(예. 주거비)을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사용액으로 본인의 소비 수준 진단 혹은 본인 그룹 외 다른 그룹과 비교

Group 1 | 20대 미혼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107	소비/지출 69 64.5% ^③ 부채상환 15 14.0% 저축/투자 28 26.2% 예비자금 -5 -4.7%	총자산 6,414 금융 995 부동산 3,452 기타 1,967	1,066
190 만원				
2구간	206	소비/지출 107 51.9% 부채상환 13 6.3% 저축/투자 52 25.2% 예비자금 34 16.6%	총자산 8,209 금융 1,876 부동산 4,867 기타 1,466	1,278
230				
3구간	246	소비/지출 106 43.1% 부채상환 18 7.3% 저축/투자 76 30.9% 예비자금 46 18.7%	총자산 1억 3,691 금융 2,909 부동산 8,644 기타 2,138	2,028
270				
Group 1 평균	296	소비/지출 132 44.6% 부채상환 30 10.1% 저축/투자 87 29.4% 예비자금 47 15.9%	총자산 1억 6,938 금융 3,625 부동산 10,859 기타 2,454	2,498
320				
5구간 상위20%	548	소비/지출 237 43.2% 부채상환 33 6.0% 저축/투자 142 25.9% 예비자금 136 24.9%	총자산 3억 3,752 금융 6,906 부동산 23,175 기타 3,671	3,297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22 86% ^⑤	6 79%	8 48%	6 74%	28 30%	14 58%	9 47%	7 10%	12 12%	17 16%	7 42%
31 85%	10 82%	11 57%	7 81%	30 43%	19 58%	14 52%	6 26%	19 21%	9 10%	11 48%
33 85%	9 86%	11 59%	6 88%	29 40%	17 62%	13 49%	7 30%	13 21%	19 8%	9 42%
38 87%	13 86%	13 68%	8 86%	33 44%	26 64%	13 46%	10 31%	17 24%	11 10%	14 45%
59 89%	23 82%	23 67%	16 84%	44 38%	28 65%	30 50%	18 35%	25 30%	27 19%	20 54%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2 | 3040대 미혼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163	소비/지출 94 57.7% ^③ 부채상환 28 17.2% 저축/투자 38 23.3% 예비자금 3 1.8%	총자산 1억 2,530 금융 2,854 부동산 8,197 기타 1,479	2,249
2구간	251	소비/지출 122 48.6% 부채상환 24 9.6% 저축/투자 67 26.7% 예비자금 38 15.1%	1억 6,126 금융 4,416 부동산 9,675 기타 2,035	2,299
3구간	302	소비/지출 150 49.7% 부채상환 33 10.9% 저축/투자 75 24.8% 예비자금 44 14.6%	2억 4,164 금융 5,330 부동산 16,012 기타 2,822	3,339
4구간 Group 2 평균	376	소비/지출 172 45.7% 부채상환 43 11.4% 저축/투자 91 24.2% 예비자금 70 18.7%	3억 6,517 금융 7,589 부동산 26,125 기타 2,803	5,112
5구간 상위20%	733	소비/지출 285 38.9% 부채상환 49 6.7% 저축/투자 144 19.6% 예비자금 255 34.8%	5억 6,716 금융 13,218 부동산 38,535 기타 4,963	4,932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27 91% ^⑤	11 79%	13 73%	7 91%	34 36% ^⑥	12 41%	9 38%	10 22%	17 15%	14 6%	11 51%
36 91%	13 91%	14 76%	9 93%	27 37%	18 60%	14 44%	10 35%	21 26%	16 7%	13 50%
40 89%	16 85%	17 80%	9 95%	33 38%	22 59%	14 48%	10 35%	23 31%	7 8%	17 51%
45 92%	16 89%	18 81%	9 95%	36 38%	26 62%	16 52%	11 37%	24 39%	13 10%	15 56%
73 89%	25 87%	29 83%	16 93%	59 25%	41 67%	29 53%	21 37%	44 44%	35 11%	35 60%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3 | 2040대 기혼 무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¹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²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37	소비/지출 175 51.9% ³ 부채상환 42 12.5% 저축/투자 57 16.9% 예비자금 63 18.7%	총자산 3억 2,099 금융 3,914 부동산 25,924 기타 2,261	6,920
2구간	490	소비/지출 240 49.0% 부채상환 63 12.9% 저축/투자 104 21.2% 예비자금 83 16.9%	5억 3,683 금융 6,146 부동산 44,094 기타 3,443	9,971
3구간	582	소비/지출 248 42.6% 부채상환 79 13.6% 저축/투자 134 23.0% 예비자금 121 20.8%	5억 2,913 금융 7,166 부동산 42,261 기타 3,486	1억 1,156
4구간 Group 3 평균	696	소비/지출 288 41.4% 부채상환 83 11.9% 저축/투자 162 23.3% 예비자금 163 23.4%	6억 4,823 금융 9,851 부동산 50,496 기타 4,476	1억 961
5구간 상위20%	989	소비/지출 375 37.9% 부채상환 99 10.0% 저축/투자 185 18.7% 예비자금 330 33.4%	10억 3,206 금융 13,432 부동산 84,135 기타 5,639	1억 2,525

¹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²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³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60 85% ⁵	22 84%	20 90%	16 90%	24 41%	20 37%	18 33%	13 36%	26 29%	3 2%	18 48%
71 84%	33 85%	25 89%	15 93%	55 39%	27 50%	20 35%	12 37%	28 30%	13 7%	24 42%
66 95%	29 92%	26 96%	17 96%	46 40%	29 55%	22 47%	14 49%	27 33%	12 6%	22 45%
90 94%	34 93%	23 98%	17 99%	57 36%	41 63%	30 50%	16 49%	35 39%	34 9%	25 52%
100 91%	38 90%	32 92%	23 93%	93 21%	48 75%	38 59%	23 59%	45 46%	33 13%	38 59%

⁴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⁵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⁶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4 | 203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14	소비/지출 196 62.4% ^③ 부채상환 59 18.8% 저축/투자 48 15.3% 예비자금 11 3.5%	총자산 3억 5,492 금융 3,215 부동산 30,125 기타 2,152	8,244
2구간	458	소비/지출 244 53.3% 부채상환 62 13.5% 저축/투자 70 15.3% 예비자금 82 17.9%	5억 2,954 금융 4,122 부동산 44,337 기타 4,495	9,458
3구간	557	소비/지출 282 50.6% 부채상환 82 14.7% 저축/투자 85 15.3% 예비자금 108 19.4%	6억 2,763 금융 6,413 부동산 52,501 기타 3,849	1억 851
4구간 Group 4 평균	686	소비/지출 303 44.2% 부채상환 79 11.5% 저축/투자 115 16.8% 예비자금 189 27.5%	8억 9,660 금융 9,224 부동산 75,183 기타 5,253	1억 1,172
5구간 상위20%	1,146	소비/지출 458 40.0% 부채상환 87 7.6% 저축/투자 192 16.8% 예비자금 409 35.6%	11억 7,797 금융 14,185 부동산 95,721 기타 7,891	1억 101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4 6 68 88% ^⑤	18 79%	20 87%	15 91%	33 37%	20 34%	16 45%	11 47%	24 31%	28 63%	14 60%
78 83%	21 81%	25 93%	16 91%	32 29%	18 38%	18 37%	13 40%	23 33%	34 67%	21 50%
83 90%	23 83%	28 91%	17 93%	47 34%	21 51%	24 50%	17 46%	27 41%	47 76%	21 60%
81 88%	30 85%	28 93%	17 96%	39 27%	30 60%	23 51%	14 48%	30 37%	51 74%	21 57%
98 90%	47 86%	38 83%	22 90%	79 19%	58 62%	36 52%	35 47%	49 52%	78 73%	41 59%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5 | 4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¹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²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51	소비/지출 242 68.9% ³ 부채상환 54 15.4% 저축/투자 47 13.4% 예비자금 8 2.3%	총자산 4억 3,496 금융 3,652 부동산 36,747 기타 3,097	6,643
2구간	499	소비/지출 312 62.5% 부채상환 68 13.6% 저축/투자 76 15.2% 예비자금 43 8.7%	총자산 6억 2,593 금융 5,838 부동산 52,978 기타 3,777	8,830
3구간	599	소비/지출 357 59.6% 부채상환 67 11.2% 저축/투자 101 16.9% 예비자금 74 12.3%	총자산 7억 823 금융 7,520 부동산 58,413 기타 4,890	9,242
4구간 Group 5 평균	734	소비/지출 408 55.6% 부채상환 80 10.9% 저축/투자 123 16.8% 예비자금 123 16.7%	총자산 9억 1,305 금융 10,235 부동산 75,434 기타 5,636	1억 996
5구간 상위20%	1,233	소비/지출 555 45.0% 부채상환 87 7.1% 저축/투자 194 15.7% 예비자금 397 32.2%	총자산 14억 286 금융 16,745 부동산 115,974 기타 7,567	9,754

¹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²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³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4 6 64 91% ⁵	23 88%	24 90%	18 96%	39 24%	18 43%	19 47%	13 34%	18 48%	47 85%	16 56%
78 93%	24 90%	30 94%	18 96%	47 22%	23 48%	19 47%	12 46%	23 54%	75 90%	25 59%
98 93%	29 90%	30 96%	21 97%	54 18%	31 53%	25 52%	19 46%	28 56%	71 92%	24 60%
104 92%	32 93%	35 98%	21 96%	53 18%	35 57%	27 58%	16 52%	33 61%	91 90%	26 58%
136 92%	37 90%	40 95%	26 95%	61 14%	46 63%	34 61%	20 52%	47 64%	114 91%	33 66%

⁴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⁵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⁶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6 | 40대 기혼 중고등생 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¹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²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39	소비/지출 228 ³ 67.3% 부채상환 49 14.5% 저축/투자 42 12.4% 예비자금 20 5.8%	총자산 3억 3,257 금융 2,632 부동산 28,474 기타 2,151	4,792
2구간	510	소비/지출 341 66.9% 부채상환 56 11.0% 저축/투자 80 15.7% 예비자금 33 6.4%	6억 8,155 금융 6,597 부동산 57,570 기타 3,988	4,503
3구간	628	소비/지출 379 60.4% 부채상환 53 8.4% 저축/투자 108 17.2% 예비자금 88 14.0%	7억 7,017 금융 8,055 부동산 65,029 기타 3,933	7,183
4구간 Group 6 평균	744	소비/지출 447 60.1% 부채상환 86 11.6% 저축/투자 130 17.5% 예비자금 81 10.8%	8억 7,484 금융 11,782 부동산 70,978 기타 4,724	9,426
5구간 상위20%	1,351	소비/지출 610 45.2% 부채상환 86 6.4% 저축/투자 198 14.7% 예비자금 457 33.7%	12억 9,773 금융 18,418 부동산 104,302 기타 7,053	9,298

¹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²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³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⁴ 55 89% ⁵	18 84%	21 91%	18 96%	30 26%	20 43%	10 44%	15 42%	19 58%	⁶ 56 69%	16 55%
88 88%	27 89%	30 91%	20 98%	52 19%	24 53%	23 51%	17 34%	33 54%	96 88%	20 60%
89 90%	30 92%	30 97%	20 94%	69 15%	21 58%	21 51%	22 44%	39 71%	97 94%	26 51%
103 97%	31 92%	35 97%	23 97%	68 15%	41 61%	27 61%	21 63%	33 78%	116 92%	28 70%
127 88%	37 92%	39 96%	26 94%	52 16%	42 63%	43 58%	23 54%	67 80%	146 97%	32 58%

⁴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⁵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⁶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7 | 50대 기혼 중고등/대학생 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¹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²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45	소비/지출 240 69.6% ³ 부채상환 50 14.5% 저축/투자 51 14.8% 예비자금 4 1.1%	총자산 4억 5,973 금융 4,180 부동산 38,804 기타 2,989	4,880
2구간	512	소비/지출 335 65.4% 부채상환 62 12.1% 저축/투자 86 16.8% 예비자금 29 5.7%	7억 1,698 금융 7,748 부동산 59,997 기타 3,953	6,258
3구간	629	소비/지출 387 61.5% 부채상환 69 11.0% 저축/투자 112 17.8% 예비자금 61 9.7%	8억 2,981 금융 9,282 부동산 68,540 기타 5,159	6,326
4구간 Group 7 평균	769	소비/지출 449 58.4% 부채상환 80 10.4% 저축/투자 143 18.6% 예비자금 97 12.6%	10억 329 금융 12,216 부동산 82,390 기타 5,723	7,409
5구간 상위20%	1,271	소비/지출 614 48.3% 부채상환 63 5.0% 저축/투자 216 17.0% 예비자금 378 29.7%	13억 6,515 금융 21,102 부동산 106,578 기타 8,835	5,576

¹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²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³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56 88% ⁵	22 91%	22 95%	16 98%	37 28%	20 45%	15 45%	13 47%	33 60%	54 65%	19 68%
77 90%	28 94%	29 96%	22 96%	50 20%	29 52%	19 52%	19 56%	43 66%	72 74%	23 65%
85 91%	30 92%	31 93%	23 96%	52 17%	28 55%	23 54%	18 61%	47 71%	86 75%	32 68%
92 94%	35 94%	35 96%	27 98%	73 16%	38 66%	31 65%	26 66%	55 75%	98 69%	28 75%
113 96%	45 91%	51 98%	34 97%	59 15%	62 70%	48 65%	31 65%	74 80%	139 83%	45 74%

⁴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⁵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⁶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8 | 50대 기혼 학업완료 성인 자녀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260	소비/지출 156 60.0% ^③ 부채상환 49 18.8% 저축/투자 56 21.5% 예비자금 -1 -0.3%	총자산 3억 6,599 금융 3,795 부동산 30,493 기타 2,311	4,499
2구간	442	소비/지출 231 52.3% 부채상환 53 12.0% 저축/투자 92 20.8% 예비자금 66 14.9%	6억 3,488 금융 7,118 부동산 52,672 기타 3,698	4,908
3구간	567	소비/지출 282 49.7% 부채상환 64 11.3% 저축/투자 131 23.1% 예비자금 90 15.9%	7억 2,429 금융 9,846 부동산 57,919 기타 4,664	5,280
4구간 Group 8 평균	766	소비/지출 371 48.4% 부채상환 50 6.5% 저축/투자 176 23.0% 예비자금 169 22.1%	10억 6,939 금융 13,867 부동산 87,174 기타 5,898	5,164
5구간 상위20%	1,278	소비/지출 524 41.0% 부채상환 86 6.7% 저축/투자 247 19.3% 예비자금 421 33.0%	12억 323 금융 17,172 부동산 94,265 기타 8,886	7,956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36 88% ^⑤	18 86%	20 96%	12 97%	36 29%	14 48%	13 47%	13 53%	23 24%	9 4%	15 74%
63 87%	26 89%	26 96%	17 97%	40 11%	27 55%	18 45%	22 58%	29 41%	30 6%	25 74%
71 90%	31 88%	30 99%	19 97%	42 9%	29 57%	28 55%	26 68%	35 34%	43 7%	26 81%
86 93%	40 93%	35 99%	23 98%	65 10%	50 70%	32 63%	31 73%	46 57%	70 11%	30 74%
117 96%	65 93%	50 97%	34 96%	36 13%	68 73%	46 75%	43 75%	47 54%	76 9%	47 80%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9 | 60대(60~64세)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229	소비/지출 148 64.6% ^③ 부채상환 35 15.3% 저축/투자 51 22.3% 예비자금 -5 -2.2%	총자산 3억 7,569 금융 5,199 부동산 29,512 기타 2,858	2,785
2구간	393	소비/지출 235 59.8% 부채상환 47 12.0% 저축/투자 75 19.1% 예비자금 36 9.1%	5억 5,617 금융 6,386 부동산 45,038 기타 4,193	4,441
3구간	522	소비/지출 295 56.5% 부채상환 61 11.7% 저축/투자 107 20.5% 예비자금 59 11.3%	7억 7,235 금융 9,306 부동산 63,357 기타 4,572	5,908
4구간	667	소비/지출 359 53.8% 부채상환 60 9.0% 저축/투자 142 21.3% 예비자금 106 15.9%	9억 1,423 금융 11,783 부동산 74,658 기타 4,982	5,124
5구간 상위20%	1,105	소비/지출 483 43.7% 부채상환 77 7.0% 저축/투자 213 19.3% 예비자금 332 30.0%	13억 5,421 금융 19,429 부동산 108,235 기타 7,757	7,511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단위 : 만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 지급	교육비	의료비
4 6 42 91% 5	17 89%	19 94%	10 95%	25 24%	17 43%	12 51%	16 61%	19 24%	25 7%	17 84%
56 91%	26 91%	26 96%	16 96%	43 18%	24 58%	17 53%	19 69%	32 32%	48 11%	25 81%
71 92%	34 93%	30 97%	18 98%	51 19%	24 58%	23 60%	28 68%	32 35%	48 13%	31 83%
81 92%	36 95%	38 98%	23 100%	51 17%	41 66%	29 67%	33 80%	36 41%	53 15%	36 86%
105 90%	54 94%	43 97%	26 98%	61 11%	61 74%	42 68%	40 83%	57 43%	83 20%	42 83%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
2024

발행

신한은행 Mydata Unit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www.shinhan.com
mydataunit@shinhan.com

검수

김현조 부장, 김은혜 수석, 남현진 수석, 박영은 선임, 공영경 선임

발행일

2024년 4월

자료조사

(주)컨슈머인사이트

